

2019 CNI·NAEAK·PCU 공동국제학술대회 발표집

동북아 경제협력과 갈등 그리고 미래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16:00-18:00

장소 : 배재대학교 SP401호

주최 : 충남연구원

(사)한국동북아경제학회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중부미래정책포럼

[프로그램]

■ 16:00-16:10 개회식

사 회: 이혁구(배재대)

개회사: 윤 황(충남연구원 원장)

최의현(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임광혁(배재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 16:10-17:20 제1세션

사회: 고정식(배재대)

발표 1: 최의현(영남대)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 지리의 불보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2: 전호진(서울사이버대)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경영 성과와 투자 결정 요인”

발표 3: 芮晟豪(南京財經大)

“基于社會網絡理論‘仲介角色’評價朝鮮族企業競爭力”

발표 4: 孙占芳(中南财经政法大)·李焱求(培材大)

“韓國‘新南方政策’與中國‘海上絲綢之路’”

토론: 유자영(한남대), 이혁구(배재대), 김옥희(배재대), 白寧(寧夏大),

李翔(潯澤學院), 李鵬飛(鄭州學院), 남수중(공주대), 김상욱(배재대)

■ 휴식(17:20-17:30)

■ 17:30-18:00 제2세션

사회: 최의현(영남대)

발표 5: 홍원표(충남연구원)

“중국의 대북한 전략의 새로운 단계: 소프트 파워전략의 부상”

발표 6: 남수중(공주대)

“통일이후 경제활동의 산업입지 연구를 위한 제언”

발표 7: 金相郁(培材大)

“中國城市規模與幸福指數比較：以中國地級市為例”

토론: 고정식(배재대), 송영현(충남연구원), 박찬석(공주교대), 윤향희(중부대),

백인옥(동국대), 이혁구(배재대)

■ 18:00 폐회식

2019 CNI·NAEAK·PCU 共同國際學術大會

東北亞經濟合作與未來

日期：2019年 12月 4日(星期三) 16:00-18:00

地點：培材大學 SP401號

主辦：忠南研究院

韓國東北亞經濟學會

培材大學社會科學研究所

中部未來政策論壇

[會議日程]

■ 16:00-16:10 開幕典禮

主 持: 李焱求(培材大)

開幕致辭: 尹 煌(忠南研究院院長)

崔義珪(韓國東北亞經濟學會會長)

임광혁(社會科學研究所所長)

■ 16:10-17:20 第一場

主持: 高正植(培材大)

發表 1: 崔義珪(嶺南大)

“中國汽車產業之技術創新: 以吉利收購沃尔沃為例”

發表 2: 全皓振(首爾網絡大)

“美國上市中國公司經營績效與投資決定因素”

發表 3: 芮晟豪(南京財經大)

“基于社會網絡理論’仲介角色’評價朝鮮族企業競爭力”

發表 4: 孫占芳(中南財經政法大)·李焱求(培材大)

“韓國’新南方政策’與中國’海上絲綢之路”

評論: 劉沛姪(韓南大), 李焱求(培材大), 金玉姬(培材大), 白寧(寧夏大),
李翔(荷澤學院), 李鵬飛(鄭州學院), 南守重(公州大), 金相郁(培材大)

■ 茶歇(17:20-17:30)

■ 17:30-18:00 第二場

主持: 崔義珪(嶺南大)

發表 5: 홍원표(忠南研究院)

“中國對北韓戰略之新階段: 軟實力戰略的崛起”

發表 6: 南守重(公州大)

“統一以後經營活動之產業區位研究”

發表 7: 金相郁(培材大)

“中國城市規模與幸福指數比較: 以中國地級市為例”

評論: 高正植(培材大), 송영현(忠南研究院), 박찬석(公州教大), 윤향희(中部大),
백인옥(東國大), 李焱求(培材大)

■ 18:00 閉幕典禮

■ 16:10-17:20 제1세션

사회: 고정식(배재대)

발표 1: 최의현(영남대)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 지리의 볼보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2: 전호진(서울사이버대)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경영 성과와 투자 결정 요인”

발표 3: 芮晟豪(南京財經大)

“基于社會網絡理論‘仲介角色’評價朝鮮族企業競爭力”

발표 4: 孙占芳(中南财经政法大)·李焱求(培材大)

“韓國‘新南方政策’與中國‘海上絲綢之路’”

토론: 유자영(한남대), 이혁구(배재대), 김옥희(배재대), 白寧(宁夏大),

李翔(滄澤學院), 李鵬飛(鄭州學院), 남수중(공주대), 김상욱(배재대)

■ 17:30-18:00 제2세션

사회: 최의현(영남대)

발표 5: 홍원표(충남연구원)

“중국의 대북한 전략의 새로운 단계: 소프트 파워전략의 부상”

발표 6: 남수중(공주대)

“통일이후 경제활동의 산업입지 연구를 위한 제언”

발표 7: 金相郁(培材大)

“中國城市規模與幸福指數比較：以中國地級市為例”

토론: 고정식(배재대), 송영현(충남연구원), 박찬석(공주교대), 윤향희(중부대),
백인옥(동국대), 이혁구(배재대)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 : 지리의 불보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최의현, 영남대학교

I. 서론

2000년대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빠르게 늘어났다. 중국이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선 원인으로는 에너지 자원획득, 중국내 인건비 상승, 보호무역장벽 우회, 기술 도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주로 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한 선진국으로의 해외투자에 맞춰져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해외투자가 여타 개도국의 그것과 다른 점이다.

중국기업은 왜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까? 첫째, 90년대 시장환경기술 정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후, 기업이 직접 해외로 나가서(저우추취, 走出去) 필요한 기술을 가져오려고 한다. 둘째, 자국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다(백권호 2005). 글로벌시장에서 선진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국기업을 배척하는 중국시장에서 자국기업들을 앞서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스로 개발하기 보다는 남의 기술을 베끼려는 중국식 문화가 작용한다(백서윤, 백권호 2017: 111-115). 외부에서 필요한 기술을 그때그때 도입하는 것이 스스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¹⁾

그런데 M&A를 통한 기술이전 정책은 시진핑정부에서 ‘중국제조 2015’가 출현하면서 더욱 정교해진다. 기존의 기술이전이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제는 글로벌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과거의 기술도입 정책이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 공격적인 기술도입에 나서게 된 것이다. 본 연구가 분석하는 지리의 불보 인수 사례는 이러한 기술도입을 위한 적극적 M&A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0년 지리가 불보를 인수하기 이전에도 중국 기업이 대형 글로벌 기업을 인수한 사례는 여럿 있었다. 2000년대 초반 TCL의 톰슨 및 알카텔 인수, 레노보의 IBM PC 사업부 인수,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 사례는 대부분 중국기업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이들 피인수기업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기는 하지만 기술경쟁력이나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은 아니었다(백권호, 서석홍 2006).

2000년대 중반 들어 중국기업은 해외 M&A 대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한다. 최의현, 쑤차오(2018)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 M&A 사례를 분석, 이들이 전략적으로 특정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선진국 중소기업을 M&A하였음을 보였다. 특히 주요 부품기업의 특허 출원을 조사한 결과, 해외 M&A 이후 특허 출원이 늘어났고 무엇보다도 피투자기업이 장점이었던 기술 분야에서 중국 모기업이 특허를 출원하였음을 밝혔다. 선진국 피투자기업에서 중국 모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지리의 불보 인수는 당시 ‘뱀이 코끼리를 잡아먹었다’라는 세간의 비아냥거림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중국기업 해외투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회자된다. 지리의 급격한 판매량 증가,

1) Kennedy(2017: 8-10)는 글로벌창의성지수(Global Creativity Index, GCI)에서 중국이 139개국 가운데 62번째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전통적 사상의 영향으로 창의성이 약하고 베끼는데 능하다고 비판하였다. GCI는 토론토대학에서 개발한 지수이다 (<http://martinprosperity.org/media/Global-Creativity-Index-2015.pdf>).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 개선, 볼보와 합작한 새로운 브랜드인 링크앤코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볼보에서 지리로의 기술이전이 성공의 핵심 이유라고 당연시한다. 그런데 지리의 판매량 증가는 소비자 선호 변화, 마케팅 능력 제고, 자체 기술력 향상 등 기술이전과는 무관한 요인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리의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볼보로부터의 구체적인 기술이전 여부는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특허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볼보의 기술이 직접적으로 지리에 이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단순히 M&A 이후 지리의 특허 출원이 증가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리의 특허에 볼보의 기술이 들어갔는지(특허 인용문헌 분석), 볼보의 기술자가 직접적으로 지리의 기술개발에 참여했는지(특허 출원인 분석), 그리고 스웨덴 볼보 본사에 지리측 연구원이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했는지를 분석한다. 만일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보의 기술이 지리에 이전되었다면 지리의 판매량 증가는 단순한 마케팅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이전과 혁신에 기인한 것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존 연구를 정리하고, 역기술이전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를 검토한다. III장은 지리자동차의 볼보 인수 과정과 특징을 고찰한다. IV장은 특허 통계를 이용하여 볼보에서 지리로 역기술이전이 발생하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규모와 기술적 특징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과 기술이전

1.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전통적인 해외투자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해외투자는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으로 흐른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현상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이론적 검토가 시작되었다. UNCTAD(2006)는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으로 개발도상국 기업의 해외투자 역시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개도국기업 역시 선진국기업처럼 시장추구(market seeking) 및 자산추구(asset seeking)가 해외투자의 주요 동기였다. 많은 개도국기업들은 1차 산업 및 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갖고 있었고 이것이 해외투자에 나서게 된 배경인 것이다. 둘째, 개도국기업은 본국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았다. 이 역시 엑슨, 마이크로 소프트, BASF(독일) 등 선진국기업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UNCTAD, 2006: 149). 셋째, 특정 부가가치 사슬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갖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 다국적기업은 전자, 자동차부품, 의류, 신발 등의 가치사슬에서 특화의 우위를 발휘하였다.²⁾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동기도 상기와 같은 개도국기업의 동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백권호(2005: 213-218)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요인으로 적극적인 정부정책과 함께 기업차원의 동기로 요소비용 상승에 따른 동기, 공급과잉 해결, 보호주의 장벽의 우회 필요성 그리고 핵심역량으로서 기술자원 획득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해외투자에 나서는 여타 개도국기업과 중국기업의 차이점이라면 바로 기술자원 획득 부분이다. UNCTAD(2006)에 따르면 해외투자는 자본이 풍부한 국가에서 자본이 부족한 국가로 흐르게 되고,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는 것처럼 개도국기업도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를 가진 개도국 기업이 그렇지 않은 국가로 투자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중

2) UNCTAD(2006: 151)는 브라질의 Marcopolo, 요르단의 Hikma Pharmaceuticals, 말레이시아의 AIC 등 개별기업의 사례를 열거하였다.

국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술적 우위에 있는 선진국기업을 M&A하는 특징이 있었다(백권호, 서석홍 2006).

그런데 중국기업의 선진국기업 M&A가 기술자원 획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백권호, 서석홍(2006)은 2000년대 초반의 M&A 사례인 TCL의 톰슨 및 알카텔 인수, BOE의 하이디스 LCD 사업부 인수, 레노보의 IBM PC사업부 인수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해외투자 경험이 부족한 중국기업이 이러한 대형 M&A의 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최의현, 라매근(2011)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을 M&A한 중국기업(상하이차-쌍용차, 정동광-하이디스)을 조사하였는데 중국측이나 한국측 모두 M&A 이후 재무적 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사례연구를 검토한 결과 중국기업이 시도한 대형 M&A는 실패한 경우가 많은 반면, 작은 규모의 M&A는 상대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다고 결론 내렸다. 작은 기업을 M&A 할 경우 피인수 기업에 대한 관리가 용이할 수 있다. 그리고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기업문화 역시 단순할 것이다. 해외투자 경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국기업이 피인수기업을 관리하기 편할 것이다.

최의현, 쑤차오(2018)는 중국 자동차부품기업의 선진국기업 인수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³⁾ 그 결과 웨이차이동력, 닝보화상전자, 권성전자, 완펑아오토 등의 독일 및 미국기업 인수사례에서 피인수기업에서 중국 모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피인수기업이 장점을 가진 기술분야에서 중국 모기업이 새로운 특허를 출원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이전받은 것을 넘어 기술 내부화에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2010년 이후 중국기업은 과거 대형 M&A의 비효율성에서 점차 벗어나게 된다. 문철주, 백권호(2013)는 상하이자동차의 국제화 과정을 통해 모기업과 피인수기업간의 기업문화가 통합되고 있음을 보였다. 2000년대 초반 중국기업들이 대형 M&A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부족 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있었다. 왕혁신, 백서윤(2019)은 지리의 볼보인수 사례에서 두 기업이 서로의 기업문화를 어떻게 통합해 나갔는지를 분석하였다. 지리와 볼보가 문화적 융합과 소통을 위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고, 그 결과가 두 기업의 경영성과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기업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단순히 브랜드만 획득하거나 기존 기술을 빼내는 것을 넘어 자회사의 기술을 본국으로 이전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초반 해외투자 초기에는 과시적 욕구로 선진국 대형기업 M&A에 나섰지만 경험부족으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둘째, 그 이후 목표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선진국 중소기업 M&A에 나서게 되고,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점차 해외 경영을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면서 다시 대형기업을 M&A하게 된다. 지리의 볼보 인수는 경험을 축적한 중국기업의 해외 M&A 사례이다.

2. 다국적기업에서의 역기술이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본국에서의 혁신을 전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본국의 기술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를 통해 다른 국가로 이전된다. 기업내부의 기술이전 현상이다. 그런데 만약 자회사가 속한 국가(지역)에 특정된 기술이 필요하다면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가 혁신을 맡게 될 것이고, 그 혁신은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전된다. 기업내 역기술이전(intra-firm reverse technology transfer)이 발생한다.⁴⁾ 화학과 제약 분야의 유럽 다국적기업과 이들의 미국 자회사간의 기술이전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미국 자회사의 기술이 유럽 모기업으로 이전된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기업내 역기술이전을 증명한다(Criscuolo 2003: 3). 한편 이렇게 모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이 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는 기술

3) 피인수된 선진국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이다.

4) 역기술이전이란 개념은 Mansfield(1984)가 정의하였다.

이라면 모국 기업들 사이로 확산될 것이다. 이를 기업간 역기술이전(inter-firm reverse technology transfer)이라고 한다.

자회사의 연구개발 기능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회사가 속한 지역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를 모국기반 자원활용(home-base-exploiting: HBE)이라고 한다. 다국적기업이 현지에서의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행위이다. 다른 하나는 현지 기업이 모회사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모국기반 자원획득(home-base-augmenting: HBA)이라고 한다. 이 경우 자회사는 자회사 내부 뿐 아니라 외부 자원(이를테면 현지 대학 연구소)을 동원하여 모회사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한다(Kuemmerle 1997). 기업내 역기술이전은 모국기반 자원획득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가 살펴볼 지리의 사례에서는 모기업인 지리가 피인수기업인 볼보의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보다 지리의 중국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⁵⁾

Criscuolo(2003)는 1980~1999년에 24개의 유럽 제약 및 화학회사의 미국자회사가 출원한 특허를 분석하면서 제1발명자와 소속 그리고 인용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미국 자회사의 특허출원이 다국적기업 전체 특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기업에서는 기업 전체특허의 50% 이상을 미국 자회사가 출원하였고 유럽기업이 자신들의 특허에 미국자회사 특허를 다수 인용하였다.⁶⁾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역기술이전을 분석하기 위해 특허 통계의 인용지수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Criscuolo(2003)의 방법론과 유사하다.⁷⁾

III. 지리의 볼보 인수 과정과 특징

1.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지리의 발전

중국 자동차산업은 대형 국유자동차회사가 글로벌 메이커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자동차가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로컬자동차(독자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이다. 최근 창청, 지리 등 중국 로컬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외국계 자동차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자동차시장은 외국계 자동차의 점유율이 높고, 이들에 의해 시장이 움직인다. 외국계 자동차업체는 중국 국유기업과 50대 50으로 합작하여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므로 판매 수입은 외국측과 중국측이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이다. 중국정부가 로컬브랜드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크지 않은 배경이 여기에 있다.

로컬브랜드의 자동차 생산과 기술추격은 외자계 자동차가 소홀히 생각했던 소형 및 저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로컬브랜드는 선진국 자동차회사의 구형 엔진을 역엔지니어링 방식으로 생산하였다. 최의현 외(2016)는 지리, 창청, 치루이 등 주요 로컬브랜드들이 모두 핵심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지는 못하였지만, 부품의 외부조달과 모방을 통해 가격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했다고 분석하였다. 로컬브랜드의 첫 번째 주자는 치루이었다. 2000년대 중반, 디자인 모방과 오스트리아 AVL사로부터 도입한 소

5) 백권호(2005)는 중국기업이 선진국 기업을 M&A하는 이유가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중국내 경쟁력 향상이라고 주장하였다.

6) Criscuolo(2003)는 이들 유럽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인지 유럽내 자회사인지를 밝히지는 않는데 아마 전체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7) Criscuolo(2003)는 인용지수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기업단위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고, 본 연구는 특정 기업의 개별 특허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형엔진에 힘입어 판매량을 크게 늘렸지만, 외부 기술에 힘입은 성장은 반짝 증가에 머물렀다.⁸⁾ 2010년 이후 로컬브랜드의 선두주자는 창안과 창청으로 바뀌었다. 무엇보다도 SUV에 대한 강한 소비자 선호가 이들 두 회사의 점유율 상승에 큰 기여를 했는데, 최근 SUV시장에서 판매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들의 성장세 역시 주춤해졌다(표 1 참고).

2010년대 중반이후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로컬브랜드는 지리이다. 2016년 판매량 순위가 10위였는데 2017년에는 6위로 다시 2018년에는 중국 자동차시장의 탑4에 속한 상하이GM우링을 제쳤다. 중국 자동차는 역사상 판매량 4위에 오른 로컬브랜드는 지리가 유일하다.

<표 1> 제조사별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비교

단위: 만 대

순위	기업명	2016	기업명	2017	기업명	2018
1	상하이VW	200.0	상하이VW	206.3	상하이VW	206.5
2	상하이GM	188.0	상하이GM	200.0	이치VW	203.7
3	상하이GM우링	187.8	이치VW	195.7	상하이GM	197.0
4	이치VW	187.2	상하이GM우링	155.8	지리	150.1
5	창안	121.9	둥펑닛산	125.1	상하이GM우링	135.6
6	베이징현대	114.2	지리	124.8	둥펑닛산	130.1
7	둥펑닛산	111.8	창안	106.3	창청	91.5
8	창청	96.9	창청	92.0	창안	85.9
9	창안포드	94.3	창안포드	81.0	베이징현대	79.0
10	지리	76.6	베이징현대	78.5	광저우혼다	74.0
전체		2,437.7		2,887.9		2,235.1

자료: 中国汽车工业协会统计信息网(<http://www.auto-stats.org.cn/>)

그런데 지리의 자동차 생산 경험은 대단히 일천하다. 1986년 소형 오토바이를 생산하던 지리는 2001년에서야 비로서 자동차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0년 세계적인 브랜드인 볼보를 인수하고, 현재 중국 탑4의 자동차회사로 올라섰다. 최의현 외(2016: 194-196)는 지리가 2006년 토요타의 구형엔진을 바탕으로 자체엔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모방적 설계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⁹⁾ 지리는 이때 개발한 엔진을 SUV와 터보차량 등에 적용하였다. <표 2>는 지리의 연도별 R&D 투자 규모를 보여준다. 최근 들어 연평균 30~50%씩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 대비 비중도 2% 전후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다른 중국기업에 비해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화웨이는 매출액의 10% 이상을 R&D에 투입한다. 로컬자동차 가운데서도 비야디와 창안은 각각 매출액의 4.08%, 5.78%를 투입하였다(2018년 기준). 창청은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78%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3.33%에 달하여 역시 지리보다 높았다. 지리의 경영성과를 인정하더라도 연구개발 능력은 기대이하 수준이었다.

8) 치루이는 2005년 판매량 순위 5위에 올랐으나, 2010년 이후에는 줄곧 10위권 밖으로 처졌다.

9) 지리가 모방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했다는 의미이다.

<표 2> 지리의 연도별 R&D 투자 현황

단위: 억 위안,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1.22	1.83	2.18	4.18	5.29	5.02	7.74	10.88	14.78	19.26
증가율	130.2	50.0	19.1	91.7	26.6	-5.1	54.2	40.6	35.8	30.3
매출액대비 비중	0.86	0.91	1.04	1.70	1.84	2.30	2.57	2.02	1.59	1.81

자료: Geely Auto Annual Report 각연호 (<http://global.geely.com/tag/annual-report/>)

2. 지리의 볼보 M&A와 파급효과

지리는 2010년 8월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포드로부터 볼보의 지분 100%를 사들였다. 지리의 리슈푸 회장은 2007년부터 볼보 인수에 관심을 갖고 포드에 접촉하였고 사실상의 M&A 협상은 2009년 말에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 문제로 최종 결정까지의 시간이 약간 지체되었다.¹⁰⁾ M&A 이후 양 사의 협력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리와 볼보가 함께 스웨덴에 자동차 연구소(China Euro Vehicle Technology, CEVT)를 설립하였다. 둘째, 2016년 중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링크엔코(Lynk&Co)라는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를 설립하였다. 마지막으로 볼보가 중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적극적인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게 되었다.

2013년 설립된 CEVT는 약 400명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작품은 양 사의 자동차에 공동으로 쓰이는 소형차 플랫폼(Compact Modular Architecture, CMA)이었다(Goteborgdaily 2013). 이 플랫폼은 2017년 볼보의 소형 SUV인 XC40에 적용되었고, 연이어 링크엔코의 소형차(모델명 01, 02, 03)와 지리의 Borui GE 및 Xingyue에 적용되었다.¹¹⁾ 지리가 스웨덴 연구소에서 볼보와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여 고급차(볼보), 중급차(링크엔코) 그리고 저급차(지리)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볼보 기술이 지리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링크엔코는 2017년 이후 2019년 7월 현재까지 소형차 시리즈인 01~03만을 출시하였다. 지리는 링크엔코를 2020년 이후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국내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링크엔코의 차별성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볼보와 지리의 중간에 위치하고, 대신 편의성을 높였다는 데 있다.¹²⁾ 시장에서 링크엔코는 마케팅 측면에서 성공한 차로 인식되는데 다양한 편의 및 커넥티드 기능, 이미지 제고(예, developed in Europe, made in China), 판촉 효과(예, 137초에 6천대 판매) 등이 효과를 발휘하였다.¹³⁾

셋째, 볼보는 피인수된 다음 해인 2011년 상하이에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2013년 다칭을 비롯한 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2015년에는 저장성 루차오시에 네 번째 공장을 건설하였다.¹⁴⁾ 볼보는 중국

10) 「中 지리자동차, 볼보 인수한 비결은?」. 『머니투데이』. 2013.07.1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072815072821782&outlink=1&ref=%3A%2F%2F>)

11) 모델명 01, 02, 03는 2017~2018년에 출시되었고 01은 소형 SUV, 02는 크로스오버, 03은 세단형으로 플랫폼을 공유한다. 이들은 볼보 엔진을 사용한다. 지리가 2018년 이후 출시한 Borui와 Xingyue 역시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기에 차급은 같지만, 디자인과 동력계통은 다르다.

12) 「领克01销量大涨后趋于稳定, 网友: 危机即将开始了」. 『搜狐网』.
2018.09.24. (https://www.sohu.com/a/255827473_189230),
http://www.autoview.co.kr/content/article.asp?num_code=61854,
<https://www.moto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89>

13) <https://www.autocar.co.uk/car-news/motor-shows-shanghai-auto-show/lynkco-01-receives-6000-orders-137-seconds>.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전량 판매하고 있는데(2018년 13만대 생산, 13만대 판매), 이는 볼보가 고급차 시장에서 후발주자임을 감안할 때 매우 양호한 실적이다.¹⁵⁾ 종합하면 지리는 외자계가 장악한 고급차 시장에서는 볼보, 외자계 범용차와의 경쟁은 링크엔코, 그리고 로컬 브랜드끼리의 경쟁에서는 지리차를 내세우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IV. 특허 통계를 이용한 기술이전 효과 분석

1. 지리의 특허출원 현황과 특징

OECD(2012)와 Kennedy(2017)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에 힘입어 중국기업의 국내 특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발명하기보다는 디자인이나 응용측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대책이 늘어났다고 비판하였다. 최의현 외(2016)는 주요 로컬자동차의 중국내 특허 출원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이 실용신안의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지리의 경우 2007년에서야 비로서 첫 번째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기술개발 능력이 여타 중국기업에 비해서도 뒤쳐졌다(최의현 외 2016: 70). 실용신안 비중 역시 2008년에는 전체 특허의 89.6%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볼보를 인수한 2010년 이후에도 한동안 바뀌지 않았으나, 2015년부터는 실용신안의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졌고, 특허 공개와 등록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표 1> 지리의 중국특허 출원 추이

단위: 건, %

연도	전체	공개	등록	실용신안
2008	115	8.7	1.7	89.6
2009	164	6.7	6.1	87.2
2010	860	13.7	0.3	85.9
2011	1,276	9.4	2.0	88.6
2012	1,741	17.3	5.9	76.9
2013	2,330	26.0	5.1	68.9
2014	1,098	29.4	14.2	56.4
2015	1,120	21.4	33.4	45.2
2016	1,194	21.7	30.6	47.7
2017	1,092	34.3	23.4	42.2
2018	1,332	38.7	14.2	47.1
소계	12,322	23.4	13.0	63.7

자료: Wipson DB(<https://www.wipson.com>).

지리의 국제특허(PCT) 출원 추이는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PCT 특허는 법적으로 특허를 보호해

14) 루차오 공장에서는 볼보와 링크엔코가 함께 생산된다.

15) Pamela(2018)는 볼보의 ‘안전 중심’에 대한 가치가 중국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분석하였다.

16) Bertel(2017)은 지리차가 세 브랜드의 차별화를 통해 판매량을 늘리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지는 않지만, 세계 각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다.¹⁷⁾ 지리의 PCT 특허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2015년 이후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015년을 전후로 지리의 특허출원에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볼보 인수에 따른 기술이전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한다.

<표 2> 지리의 PCT 특허 추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계
건수	7	4	1	4	3	1	0	12	15	22	29	98

자료: Wipson DB(<https://www.wipson.com>).

기술적인 면에서 자회사인 볼보에서 모회사인 지리로 역기술이전이 발생하였는지는 <표 3>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다. 2016년까지 지리의 PCT 특허에는 기술개발자 명단에 외국인이 단 한명도 없었으나 2017년과 2018년 각각 6건, 13건의 외국인과 공동 발명한 특허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은 연인원 35명에 달하고 모두 스웨덴 국적이었다.¹⁸⁾ 적게는 한 특허당 1명, 많게는 4명의 볼보소속 연구원이 다수의 중국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지리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국제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지리와 볼보의 관계에서 모국기반 자원획득(home-base-augmenting: HBA) 유형의 역기술이전이 발생했다는 증거이다.

<표 3> 지리의 PCT 특허에서 스웨덴 국적의 기술자 참여 정도

연도	특허 수	비율	스웨덴 국적	19개 특허의 특징
~2016	0개	0%	0	-실내환기(B60H) 특허와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는 기화기(F02M) 특허가 각각 3개로 가장 많았음 -좌석, 트레일러 특허는 각각 2개씩 -그 외 배선, 배터리장착, 브레이크 유압, 차량제어, 디지털인터페이스 등의 분야
2017	6개	27.3%	12명	
2018	13개	44.8%	23명	

주: 비율은 지리의 PCT특허에서 스웨덴 국적 발명자가 참여한 특허의 비율임.

자료: Wipson DB(<https://www.wipson.com>).

2. 볼보의 기술개발에서 지리의 역할

볼보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자동차 및 중장비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허 활동 또한 활발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250건 정도의 특허를 유럽특허청(EPO)과 미국특허청(USPTO)에 출원했고, 이중 절반 정도가 등록특허이다. 그런데 지리에 인수된 이후 중국 국적의 발명가가 참여한 특허는 한 건도 없었다.¹⁹⁾

PCT 특허의 경우 볼보는 연간 100건 내외의 특허를 출원하는 편인데, 2015년에는 총 83건 가운데 중국인이 참여한 특허가 1건, 2017년에는 2건(총 65건), 2018년에는 3건(총 61건)이었다. 그런데 중국

17) 물론 PCT 특허도 성과지표의 하나이기에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일부러 신청하기도 한다. PCT 특허는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8) 발명자 개개인의 소속은 알 수 없으나 스웨덴 국적이라는 점에서 볼보 또는 스웨덴 합작 연구소인 CEVT 소속인 것으로 보인다.

19) 반면 한국인은 볼보트럭코리아(김해 소재), 볼보건설기계(울산 소재) 등을 통해 매년 다수의 특허에 발명자로 참여하였다. 중국 기술자보다 한국 기술자가 볼보의 기술혁신에 더 적극적이었다.

인 발명가의 소속이 모두 지리가 아니었고, 관련 기술도 모두 건설장비 분야로 자동차 관련 특허는 아니었다.

불보가 중국에 출원한 특허는 2018년 말까지 총 684건인데 이중 중국인 기술자가 참여한 특허는 2013년도가 처음이었다. 이후 2018년까지 총 30개의 특허에 중국인 기술자가 참여하였는데 이중 건설장비 분야의 특허가 24개이고, 나머지 6개는 배터리 관련 특허 2건, 배출가스 테스트 1건, 자율주행 관련 특허 2건, 전기차 충전 1건 등이었다. 자율주행 및 전기차 특허가 3건 포함되었으나 전체 특허 규모로 볼 때 의미 있는 규모는 아니다. 따라서 M&A 이후 불보의 자동차 관련 기술개발에 지리측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특허 인용 분석

지리와 불보의 기술이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로의 특허에 상대방의 특허를 얼마나 인용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만일 지리의 중국인 기술자에 의해 발명된 특허에 불보의 특허가 인용되었다면 불보의 기술이 지리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를 보면 2010년 M&A 이전 지리는 자신들의 특허에 단 한 건의 불보 특허도 인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조금씩 늘어나 2013년과 2015년에는 모두 4건의 불보 특허를 인용하였다.²⁰⁾ 불보 역시 지리의 특허를 자사의 특허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수가 너무 적어 불보가 중국 특수성이 있는 지리의 특허를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²¹⁾

<표 4> 지리와 불보의 상호 특허 인용 관계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리의 인용	0	1	2	4	1	4	3	1	2
불보의 인용	0	0	1	0	1	1	0	2	1

자료: Wipson DB(<https://www.wipson.com>).

주: 중국특허를 기준으로 지리와 불보의 개별 특허에서 상호 인용 횟수를 분석함.

상기 분석에 따르면 지리는 M&A 이후 불보의 특허를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 많이 인용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불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고급차 브랜드와의 특허 인용 관계는 어떤지 분석하였다. <표 5>에 따르면 지리는 독일 3사의 특허를 불보보다 더 많이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M&A 이후 지리가 자신들의 기술개발에 불보의 기술을 인용한 것은 맞지만 다른 선진국 제조사에 비해 특별히 불보의 기술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한편, PCT 특허를 기준으로 지리와 불보의 상호 특허 인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단 한 건의 인용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불보가 지리특허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지리가 불보특허를 PCT 특허 출원 특허에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아직 불보로부터 이전된 기술이 글로벌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로벌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 아니라는 뜻이며, 백권호(2005)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외 M&A를 통한 기술이전이 중국 내부의 경쟁력 제고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방증한다.²²⁾

20) 4건의 불보 특허가 한 건 이상의 지리의 특허에 인용되었다는 의미이다.

21) 불보는 자신들의 중국특허에 매년 50여 건의 중국인이 출원한 특허를 인용하였는데 대부분 건설기계 관련 특허였다.

22) 지리가 대외적으로 링크엔코를 글로벌시장 판매용이라고 선전하지만, 불보 기술력을 마케팅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이유도 그러하다.

<표 5> 지리의 독일 3사 특허 인용 건 수

단위: 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벤츠	1	0	2	1	1	3	0	2	0
BMW	0	0	6	0	4	3	3	3	1
아우디	0	0	1	9	2	6	5	1	0
소계	1	0	9	10	7	12	8	6	1

자료: Wipson DB(<https://www.wipson.com>).

V. 결론

근래 들어 지리는 자국시장에서 높은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볼보 인수와 볼보로부터 첨단기술을 습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쉽게 판단 내린다. 지리가 볼보와 함께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리의 특허에 볼보 기술자가 직접 참여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볼보가 개발한 제품을 사용한 것과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것은 별개이며, 지리가 볼보의 기술을 자신들의 특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기술혁신은 투입지표인 R&D 규모와 결과지표인 특허출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지리는 여타 로컬자동차에 비해 혁신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볼보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여타 선진국 자동차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리의 PCT 특허 출원에서 약간의 역기술이전이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지리 내부로 기술이 체화되었음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볼보 기술자의 참여가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든다. 분명한 것은 지리가 그룹차원에서 볼보, 링크엔코, 그리고 지리 등 세 브랜드로 각기 차별화된 시장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만일 링크엔코의 개발은 볼보에 일임하고, 지리는 가격경쟁력을 내세운다면 볼보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문철주, 백권호. 2013. 「상하이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 연구」. 『중국과 중국학』, 19.
- 백권호. 2005. 「6장 중국기업의 국제화와 그 의미」.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백권호, 서석홍. 2006.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走出去')의 현황과 평가」. 『중국학연구』, 35.
- 백서윤, 백권호. 2017. 「중국기업의 사회적 창의성 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국과 중국학』, 31호
- 왕혁신, 백서윤. 2019. 「신흥개도국 기업의 조직 창의성에 따른 해외 인수합병의 역지식이전효과 사례연구: 중국 지리 자동차의 볼보차 인수 M&A 사례」. 『한중사회과학학회 춘계세미나 발표자료』, 2019.06.01.
- 최의현, 라매근. 2011. 「중국 해외투자 기업의 경영성과 분석-對韓 투자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10-2.
- 최의현, 쑤차오. 2018. 「중국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습득과 혁신에 관한 연구- 해외 M&A 사례를 중심으로 -」. 『중국과중국학』, 35.
- 최의현, 황걸, 박수열. 2016. 「중국 로컬자동차의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 『현대중국연구』, 17-2.
- Arundel, A. and I. Kabla. 1998. "What percentage of innovations are patented? Empirical estimates for European firms", *Research Policy*, 27: 127-141.
- Bertel, S. 2017. "If Any Chinese Car Company Will Take On The World, It's This One". *Forbes*, 04.24.
(<https://www.forbes.com/sites/bertelschmitt/2017/04/24/if-any-chinese-car-company-will-take-on-the-world-then-this-one/#1867c08a6c1a>)
- Brouwer, E. and A. Kleinknecht. 1999. "Innovative output and a firm's propensity to patent. An exploration of CIS micro data", *Research Policy*, 28: 615-624.
- Criscuolo, Paola. 2003. "Reverse Technology Transfer: A Patent Citation Analysis of the European Chemical and Pharmaceutical sectors". *SPRU Electronic Working Paper Series*, 107.
- Jaffe, A. B., M. Trajtenberg and M. Fogarty. 2000. "Knowledge spillovers and patent citations:evidence from a survey on inventor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0-2: 215-218.
- Kennedy, Scott. 2017. *The Fat Tech Dragon-Benchmarking China's Innovation Driv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C).
- Kuemmerle, Walter. 1997. "Building effective R&D capabilities abroad,"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61-70.
- Mansfield, E. 1984. "R&D and innovation: some empirical findings" in Z. Griliches (ed.) *R&D, Patents, and Productivity*.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and NBER.
- OECD. 2012. *Dulling the Cutting Edge: How Patent-Related Policies and Practices Hamper Innovation in China*
- Pamela, A. 2018. "Volvo & Geely: The Unlikely Marriage Of Swedish Tech And Chinese Manufacturing Might That Earned Record Profits". *Forbes*, 01.23.
(<https://www.forbes.com/sites/pamelaambler/2018/>)

01/23/volvo-geely-the-unlikely-marriage-of-swedish-tech-and-chinese-manufacturing-might-that-earned-record-profits/#3fbe0c384ecc)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6: FDI form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s, 2006

인터넷 자료

「中 지리자동차, 볼보 인수한 비결은?」. 『머니투데이』. 2013.07.1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07281507](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072815072821782&outlink=1&ref=%3A%2F%2F)

2821782&outlink=1&ref=%3A%2F%2F, 검색일자:2019,07,20)

「领克01销量大涨后趋于稳定, 网友: 危机即将开始了」. 『搜狐

网』. 2018.09.24.

(https://www.sohu.com/a/255827473_189230, 검색일자:2019-07-20)

Martin Prosperity Institute. 2015. *The Global Creativity Index 2015*.

(<http://martinprosperity.org/media/Global-Creativity-Index-2015.pdf>,

검색일자:

2019-07-24)

Goteborgdaily. 2013. “CEVT to expand in 2014”(12-16)

(<http://www.goteborgdaily.se/cevt-to-expand-in-2014> , 검색일자:2019-07-24)

Geely Auto Annual Report

(<http://global.geely.com/tag/annual-report/>, 검색일자:2019-06-12)

Wipson DB(<https://www.wipson.com>)

http://www.autoview.co.kr/content/article.asp?num_code=61854(검색일자:2019-07-24)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89>(검색일자:2019-05-04)

<https://www.autocar.co.uk/car-news/motor-shows-shanghai-auto-show/lynkco-01-receives-6000-orders-137-seconds>. (검색일자:2019-07-12)

미국상장 중국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 결정요인

전 호 진¹⁾

〈차 례〉

- | | |
|-----------------------|-----------------|
| I. 서 론 | IV.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 |
| II. 중국의 해외상장 특징과 초기성과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자료 및 방법론 | |

핵심 주제어 : 해외상장, 경영성과, IPO, 상장가격, 누적비정상수익률
JEL분류기호 : F14, F21, F31, G10, G11

I. 서 론

중국은 2000년대 초 경제 개방정책 시행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현재 세계 G2의 경제 규모로 급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과거 중국 경제는 낮은 임금과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역할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 생산 기지로의 역할을 통한 기술습득을 기반으로 인터넷, IT 기반의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 기반의 변화와 함께 중국의 IT,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와 함께 벤처 창업의 붐을 통해 중국 산업의 체질 변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첨단 산업의 환경 속에서 새롭게 창업한 중소 벤처 기업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인 기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이었다.

거대기업의 경우 중국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이 어렵지 않은 것과 달리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자국 내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에 있어 많은 제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상장을 위한 엄격한 요건과 안정적인 재무성과 요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상장까지의 심사 기간 역시 오래 걸려 창업 초기 많은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원활한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 도태되는 경우가 많았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부 세무회계학과 부교수(jeonhojin@iscu.ac.kr)

어렵게 생존한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사업 확장, 글로벌 시장 개척 등 다양한 전략의 실천을 위한 자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선진국에 비해 유동성이 크지 않은 본국 금융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에 많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함께 자국 기업의 세계 금융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을 확대하며 중국 기업의 해외상장은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 기업의 해외상장은 2004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 2008년 잠시 주춤한 흐름을 보인 후 2009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알리바바와 중국 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新浪微博)의 해외상장을 통한 대규모 해외 투자자금 모집 가능성을 통해 해외 상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상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무성과와 까다로운 상장 조건을 만족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중소 인터넷, IT 벤처기업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한계에 직면 할 수밖에 없어 본국에서의 자금조달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NASDAQ 시장의 경우 명시적인 재무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성, 기술우위 지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 NASDAQ 해외시장으로의 상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 IPO 주관사들의 경우 중국 기업의 높은 성장성과 경쟁력은 IPO 추진의 강력한 유인 요인이 되었다. 다만, 객관적인 재무성과를 제시 할 수 없는 벤처기업의 경우 상장에 따른 위험이 커 주관사의 입장에서는 IPO 가격 산정에 있어 디스카운트 요인을 더 크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실질적으로 미국 상장을 고려하는 중국 기업의 재무성과는 실질적으로 상장 가격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상장 이전의 기업 재무성과가 상장 후 주식시장에서 IPO 초기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장기업은 무분별한 디스카운트에 대한 대안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투자자들은 투자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중국의 해외상장 특징과 초기성과

1. 중국 기업의 해외상장 유인요인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 역사는 1994년 화천자동차(華晨汽車)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방식으로 상장한 것이 기원이지만 실질적인 해외상장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자본 시장이 개방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중국경제는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으며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국의 경제발전은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유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전까지 중국 자본시장은 매우 폐쇄적이었으며 주식시장 역시 내국인 투자자를 위한 A주식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B 주식으로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었다. B주식의 경우 A주식에 비해 낮은 유동성과 많은 제약으로 투자자들은 투자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투자 정보의 접근과 관련하여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 정보 획득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외에도 환차손 가능성, 중국 정부의 예측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를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어려움 등은 실질적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유치가 시급한 중국의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자본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해외상장을 공격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

글로벌 자금 모집의 우호적인 환경과 함께 중국의 기업들은 해외상장에 따른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선진 기술의 획득 등의 다양한 이점 등으로 해외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격적 M&A 방어 수단으로 NASDAQ 시장 상장을 고려하게 되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경우 대주주인 마윈 회장의 지분이 10% 내외인 상황에서 지분 경쟁에 직면하는 경우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NASDAQ 시장의 경우 1주(株) 1의결권이 아닌 경영권자에게 차등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권 방어의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어 이러한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 상장을 고려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추진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높은 자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중국 주식의 매매가 가능했으며 정보의 획득 역시 미국 상장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업 정보 획득을 통해 개별적 기업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미국 상장의 경우 미 달러화로 거래가 되어 환차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 2000년대 초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기업 투자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 중국기업의 미국 상장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된 것이 중국기업에 대한 언더프라이싱 문제였다. 10%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개별 기업의 우량한 재무성과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신, 기업에 대한 회계 정보 접근의 어려움, 중국 정부 정책의 예측 어려움 등으로 미국의 주간사들은 저가발행을 유도하려는 특징이 높았다.

이러한 저가 발행 행태에 대해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벤처 기업의 경우 본국에서의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저가 발행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중국 주식시장의 급등으로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자본시장의 경쟁력 상승으로 일부 미국 상장을 준비하던 중국 기업이 저가발행에 반대하며 본국 상장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 자본시장의 확대로 인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저가발행의 행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실질적으로 IPO 상장 가격의 산정에 있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저가발행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객관적인 상장 심사를 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무분별한 저가발행의 행태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미국 투자자들에게 있어 중국기업의 회계불신, 신속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은 주간사의 저가 발행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2. 중국기업의 해외 IPO 발행가격 관련 기존 연구

중국기업의 해외 상장 초기 연구와 관련하여 楊丹, 王麗(2001)는 실질적으로 상장 초기 초과 수익률이 발생하며 이러한 요인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자국 내 상장의 경우 역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IPO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정보의 획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상장의 경우 상장국의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중국 본국의 기업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정보 접근의 제약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저가발행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IPO 시장에서 발행기업의 저가발행의 원인으로 Rock(1986), Beatty and Ritter(1986)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IPO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저가발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저가발행의 다른 원인으로 발행 주간사의 저가발행 유도를 살펴볼 수 있다. Baron and Holmstrom(1980), Baron(1982)의 연구에 따르면 IPO 상장시장에서 주간사들은 발행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언제나 발행 주식의 100% 판매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 100% 소진되지 않으면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발행가격을 낮추려 노력한다는 것이다.

Ruud(1993)는 발행기업의 입장에서 상장 초기 주가의 급락은 해당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가발행을 고려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徐文燕, 武康平(2001)는 중국기업의 저가발행과 관련하여 발행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장 초기 주가의 급락은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해당기업의 이미지와 가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상장 초기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함에 따라 상장 초기 주가의 하락 가능성이 낮음을 제시하고 있다.

Ritter and Welch(2002) 역시 중국기업의 저가발행의 원인으로 발행기업은 초기투자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며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저가발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제시하고 있다.

IPO 시장에서의 투자자 특징과 관련하여 江洪波(2007)는 IPO 시장에서의 투자자의 투자 패턴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가치 투자의 특성은 매우 낮으며 단기적인 초과 수익을 위한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장 초기 단기적인 오버슈팅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공모시장에서의 저가발행 행태는 일반적인 형태로 초기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가발행의 필요성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 주식시장 간의 저가발행

의 정도는 해당 국가에서의 주식시장 특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Boulton et al.(2011)는 실질적인 국가 간의 초기성과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글로벌 국가 평균 상장 첫날의 초기성과는 상장가격 대비 20-50% 상승하는 특징을 보여 저가발행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유추했으며 특히, 중국 IPO 시장의 상장 첫날의 증가는 평균 60-80%의 상승 특징을 보여 글로벌 주식시장에 비해 더 높은 초기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중국 IPO 시장의 경우 다른 국가의 IPO 시장에 비해 상장 기업의 공모가 산정에 있어 저가 발행의 행태가 더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IPO 시장에서의 높은 초기비정상수익률 결과의 원인과 관련하여 Chang et al.(2008)는 중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상장 가격 산정에 있어 중국 정부는 상장 요건으로 기 상장 유통주 평균 P/E 대비 상장 기업의 P/E를 낮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인 저가발행의 원인을 제공함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회계불신,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 기업 회계정보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해외 상장되어 왔으나 최근에서 중국 금융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과거에 비해 무분별한 저가 발행의 행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완전히 저가발행의 행태가 해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성과에 따라 상장 가격의 산정에 있어 차별화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자료 및 방법론

1.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론

과거 IPO 성과와 관련한 다양한 기존 연구에서는 저가발행에 대해 많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중국기업 해외상장의 경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업의 가치 대비 저평가된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으나 중국 자본시장의 확대 및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저가발행의 행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저가발행 보다는 상장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상장 초기 성과의 차별화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들이 해외상장 시장으로 가장 선호하는 미국 주요시장을 대상으로 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실질적으로 상장 후 초기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가 저가발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장을 고려하는 기업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대상 기업과 연구기간의 선정에 있어서는 중국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이 이루어진 2001년 WTO 가입 결정 이후인 2002년부터 2018년까지를 연구 기간으로 산정하였다.

해당 연구 기간에 미국 Nasdaq 시장에 상장 한 102개 기업과 NYSE 상장을 실시한 38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기업을 선정했으며 연구기간 동안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의 IPO 초기성과 분석을 위한 변수로는 Brown and Warner(1985)의 시장조정 모형(Market adjusted model)을 기반으로 한 AR(Abnormal Return; 비정상수익률), CAR(Cumulative Abnormal Return;누적비정상수익률) 변수를 활용하였다.

AR, CAR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IPO \text{ 중국기업}(i) \text{의 일간수익률} = \log\left(\frac{PRI_t}{PRI_{t-1}}\right)_i, \quad (\text{식1})$$

IPO 중국기업의 상장 후 t거래일의 i기업 AR의 산정은 상장시장의 대표지수(m)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AR(Abnormal \text{ Return})_{at} = Return_{at} - Return_{mt} \quad (\text{식2})$$

IPO 이후 투자자가 t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t시점의 CAR은 다음과

$$\text{같다. } CAR_{it} = \left[\prod_{t=0}^t (1 + AR) \right] - 1 \quad (\text{식3})$$

IPO 상장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활용한 경영성과 변수로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국기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투자에 있어 해당 기업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 NASDAQ 상장 중국기업의 경우 짧은 업력으로 가시적인 경영성과 도출이 어려워 본국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상장으로 선회한 기업들이 많다. NASDAQ 시장은 가시적인 경영성과 도출이 어려운 경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현재의 경영성과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 상장 중국기업에 있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역시 중요한 상장 요건이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의 수익성은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지표를 제시한다.

안정성 지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부채비율(debt ratio; 부채총액/자기자본), 유동비율(current ratio; 유동자산/유동부채), 당좌비율(quick ratio; 당좌자산/유동부채)

수익성 지표: ROI(return on investment;투자자본수익률), ROE(return on equity;자기자본이익률), 영업이익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

중국기업의 해외상장의 효과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해외 상장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상장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두 기간 간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IV.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

1. 해외 상장 중국기업의 경영성과와 초기성과

기업의 글로벌화와의 단계로 살펴볼 때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은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한국기업의 경우 대체로 본국에서 자본 조달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룩한 후 세계화,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중국기업들의 경우 자국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자본 조달을 위한 IPO 과정에 있어 엄격한 상장 조건, 까다로운 상장 심사, 상장까지의 오랜 시간이 요소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해외 시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화 과정은 해외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을 시작으로 글로벌화를 추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중국기업의 해외상장 추진과 관련하여 본국 내에서의 엄격한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력이 짧은 인터넷, IT 기업의 해외상장 추이가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NASDAQ 시장의 경우 IPO를 위한 재무성과 요건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경우 장기적인 성장성 지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가시적인 재무성과를 제시할 수 없었던 중국 기업의 진출 비율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재무성과 지표가 부족한 기업의 상장가격 산정에 있어 기업가치 대비 높은 상장 가격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Nasdaq 상장 중국기업의 경영성과와 IPO 초기 성과

	$Dependent = \alpha + \beta_1 ROI + \beta_2 OPER + \beta_3 NPRO + \beta_4 CASH + \beta_5 DEBT + \beta_6 CR + \beta_7 QR + \epsilon$					
	t-1년			t년		
	1Week	2Week	1Month	1Week	2Week	1Month
α	-0.024 (-0.31)	-0.004 (-0.03)	-0.064 (-0.41)	-0.012 (-0.14)	0.0128 (0.12)	-0.0463 (-0.34)
β_1	-0.0002 (-0.35)	-0.0001 (-0.26)	0.0005 (0.74)	-0.003* (-1.81)	-0.0008 (-0.4)	-0.001 (-0.56)
β_2	-0.0002 (-0.19)	0.0007 (0.29)	0.0031 (1.05)	-0.0002 (-0.16)	0.00014 (0.07)	0.0016 (0.61)
β_3	0.0001 (0.18)	-0.0006 (-0.34)	-0.002 (-1.12)	0.0002 (0.89)	0.0002 (0.86)	0.0003 (0.86)
β_4	0.0008 (0.43)	0.0007 (0.22)	0.00008 (0.02)	0.0004 (0.24)	-0.001 (-0.55)	-0.0029 (-0.93)
β_5	-0.0002 (-0.17)	-0.0002 (-0.1)	0.0019 (0.66)	-0.0005 (-0.26)	-0.0001 (-0.07)	0.003 (1.06)
β_6	-0.036 (-1.46)	-0.063 (-1.48)	-0.068 (-1.38)	-0.021 (-0.31)	-0.048 (-0.59)	-0.04 (-0.37)
β_7	0.066* (1.83)	0.0019* (1.78)	0.121* (1.69)	0.03 (0.44)	0.063 (0.76)	0.059 (0.54)
$F\ value$	0.85	0.81	0.92	0.86	0.56	0.61
$Adj\ R^2$	0.134	0.13	0.144	0.127	0.087	0.094

따라서 주관사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저가발행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결국 저가발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중국기업들은 자국에서의 자본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가발행의 불리한 상장 조건에도 해외상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저가발행의 행태는 2007년 중국 금융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국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와 함께 무분별한 저가발행의 행태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중국기업의 해외상장에 따른 발행가 산정에 있어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저가발행의 행태에서 기업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 특징이 강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가 초기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1>에서와 같이 NASDAQ 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경우 대체로 유의한 결과는 많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인터넷, IT 기업들이 선호하는 NASDAQ 시장의 경우 상장 기업의 경영성과가 상장 초기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투자 요인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NYSE 상장 중국기업의 경영성과와 IPO 초기 성과

	$Dependent = \alpha + \beta_1 ROE + \beta_2 ROI + \beta_3 OPER + \beta_4 NPRO + \beta_5 CASH + \beta_6 DEBT + \beta_7 CR + \beta_8 QR + \epsilon$					
	t-1년			t년		
	1Week	2Week	1Month	1Week	2Week	1Month
α	0.206 (1.74)	0.136 (1.31)	0.198 (1.34)	-0.036 (-0.34)	-0.056 (-0.55)	-0.1255 (-0.72)
β_1	-0.0018* (-1.8)	-0.0006 (-0.76)	-0.00001 (-0.01)	-0.0002 (-0.29)	-0.0005 (-0.6)	-0.0006 (-0.41)
β_2	0.006* (2.13)	0.0011 (1.24)	-0.00003 (0.24)	0.0007 (0.3)	0.0018 (0.78)	0.0018 (0.46)
β_3	0.011* (1.82)	0.0184*** (3.37)	0.025*** (3.27)	-0.001 (-0.51)	-0.0017 (-0.67)	-0.0068 (-1.52)
β_4	-0.009 (-1.2)	-0.014* (2.11)	-0.023* (2.41)	0.00012 (0.08)	-0.0007 (-0.49)	-0.0018 (-0.72)
β_5	-0.007 (-1.54)	-0.003 (-0.78)	0.0018 (0.29)	0.0005 (0.2)	0.0018 (0.73)	0.0046 (1.08)
β_6	-0.0025* (-1.79)	-0.003** (-2.61)	-0.0058*** (3.36)	0.00005 (0.29)	0.0006 (0.39)	0.0031 (1.16)
β_7	0.019 (0.14)	0.191 (1.62)	0.513** (3.05)	-0.001 (-0.01)	0.0422 (0.43)	-0.0433 (-0.26)
β_8	-0.014 (-0.11)	-0.317** (-2.54)	-0.7635*** (-4.29)	0.012 (0.11)	-0.0342 (-0.34)	0.0899 (0.53)
<i>F value</i>	2.12	2.5*	3.5**	0.35	0.26	1.97*
<i>Adj R²</i>	0.358	0.428	0.555	0.121	0.093	0.216

다만 상장 전년도 재무성과 중 당좌자산(quick assets) 변수와 초기성과 간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당좌자산의 경우 해당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현금성이 높은 자산인 당좌자산이 높은 경우 유동부채의 지급에 충당할 충분한 자산으

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2>의 NYSE 상장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 변수와 초기수익률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몇몇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상장 이전 년도의 재무성과 지표 중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과 초기성과 간에는 대체로 양(+)의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다. 해당 기업의 총체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인 영업이익률은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PO 시장에서 역시 투자자 유인 요인에 따라 초기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익률 변수와 초기성과 간에 일부 음(-)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순이익의 경우 고유한 기업의 영업만으로 산출되는 지표가 아닌 유가증권의 취득, 처분 또는 특별손익, 손실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이익 변수만으로는 투자자들의 투자 행동을 유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인 수익성 요인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투자자의 투자 유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안정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인 부채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유의한 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상장 중국기업의 부채비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결국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좌자산(quick assets) 변수와 초기성과 간에 결과에 있어서는 NASDAQ 시장과 상반된 음(-)의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당좌자산 항목은 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압력이 오래되고 장기적인 경영성과를 보유하며 엄격한 상장 요건을 충족한 NYSE 상장 중국기업에 있어서는 NASDAQ 기업과 같이 안정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NASDAQ 상장 요건보다 엄격한 상장 조건을 충족해야하는 NYSE 시장의 경우 상장 심사 과정에서 높은 당좌자산의 비율은 해당 기업의 가치 산정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초기 IPO 가격에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장 후 초기성과에 있어 고가 상장에 따른 주가의 기술적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NYSE 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영성과와 초기 성과에 있어 상장 이전 년도의 경영성과와 초기성과 간에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된 반면 상장 년도의 경영성과와 초기성과 간에는 유의한 결과가 전혀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상장 가격 산정에 있어 상장 이전 년도의 경영성과가 해당 기업의 상장 가격에 영향을 미침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해외 상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해외상장을 고려하는 중국기업들은 글로벌 자본의 유치, 인지도 상승을 통한 시장의 확대, 선진 기술의 습득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선진시장에서의 상장을 고려한다.

실질적으로 중국기업이 해외상장에 따른 이점을 얻는다면 상장 후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외상장 중국기업의 상장 전후 간의 실질적인 경영성과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T-test* 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3> Nasdaq IPO 전·후 간 경영성과 T-test 분석

기간 \ Dummy	Dummy1	Dummy2	D1-D2	T-value
ROE	-331.5	-349.6	18.07	0.04
ROI	-0.09	4.6644	-4.755	-0.36
OPER	2.9945	9.5323	-6.538	-0.9
NPROFIT	2.597	7.9093	-5.312	-0.62
CASH	9.6729	17.768	-8.095	-1.26
DEBT	24.762	18.549	6.213	1.25
CR	13.482	5.119	8.362	0.79
QR	13.52	4.49	9.029	0.83

1) Dummy 변수 = IPO 이전기간은 Dummy1, IPO 이후 기간은 Dummy2

2)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표 4> NYSE IPO 전·후 간 경영성과 T-test 분석

기간 \ Dummy	Dummy1	Dummy2	D1-D2	T-value
ROE	7.513	3.2148	4.3882	0.19
ROI	-14.82	8.3761	-23.2	-0.63
OPER	14.295	16.634	-2.339	-0.55
NPROFIT	5.066	5.4851	-0.419	-0.04
CASH	23.949	26.231	-2.282	-0.54
DEBT	32.363	20.537	11.826	1.69*
CR	2.03	2.8497	-0.82	-0.97
QR	1.7148	2.5194	-0.805	-0.98

분석 결과 유의한 결과는 많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NASDAQ, NYSE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ROI,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현금흐름 변수에 있어 상장 전에 비해 상장 후의 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상장 후 즉각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채비율에 있어서는 NASDAQ, NYSE 시장 모두에서 상장 후 부채비율이 하

락하는 모습을 보여 해외상장의 주요 목적인 글로벌 자본조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해외상장이 해당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단기적인 경영성과와 함께 해외상장에 따른 인지도 제고, 해외 시장 개척의 긍정적인 요인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장기적인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기업의 해외상장이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많은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 있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요약 및 결론

중국 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불구하고 과거 해외상장 중국기업의 저가발행 행태는 일반화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2007년 중국 자본시장의 확대 및 주식시장 급등의 영향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 증가로 해외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저가발행의 행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상장 후 초기수익률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 저가발행의 행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상장 가격의 산정에 있어 무분별한 저가발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IPO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특징은 NYSE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기업의 경우 업력이 오래되고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제시하는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상장 가격 산정에 있어 재무성과를 기반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반면 NASDAQ 시장 상장의 경우 NYSE 시장과는 상이하게 업력이 짧으며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제시할 수 없는 인터넷, IT 기업의 비중이 높아 NYSE 상장 기업에 비해 저가발행의 행태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들이 해외상장 시장으로 가장 선호하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기업의 경영성과가 해당 기업의 초기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 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NASDAQ 상장 중국기업의 경우 경영성과와 초기성과 간에는 유의한 결과를 많이 도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NASDAQ 시장에 상장된 규모가 크지 않은 인터넷, IT 기업의 경영성과가 실질적으로 상장 후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 당좌자산 비율과 초기성과 간에 유의한 양(+)의 결과를 나타내어 기업의 대표적인 환금성 지표인 당좌자산의 비율에 대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살펴 볼 수 있었다.

NASDAQ 시장과는 달리 NYSE 시장의 경우 경영성과와 초기성과 간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경영성과 특히, 영업이익률과 초기성과 간에 명확하게 유의한 결

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영업이익률의 경우 순수한 기업의 영업활동 지표로써 우량한 영업이익지표는 투자자를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순이익률과 초기성과 간에는 영업이익과는 상반된 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영업이익과는 달리 순이익의 경우 기업의 근본적인 영업 이외에 가령, 유가증권 취득, 처분과 특별손익, 손실 등의 영업이외의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순이익 변수만으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채비율과 초기성과 간에는 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 기업의 선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기업의 안정성을 고려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은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높은 부채비율은 투자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 상장 후 초기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NYSE 시장의 경우 대체로 상장 전의 경영성과 지표와 초기성과 간에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상장 후의 경영성과와 초기성과 간에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상장 가격의 산정에 있어 상장 이전의 경영성과의 영향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상장 전·후 간의 경영성과간의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유의한 결과는 많이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수익성 지표인 ROI,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현금흐름 변수의 경우 상장 전의 지표에 비해 상장 후의 지표가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영향력은 아니지만 상장 후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상장 전에 비해 상장 후의 부채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현금흐름에 있어서 역시 상장 후 양호한 지표를 보여 실질적으로 해외상장을 통한 글로벌 자본의 조달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초기 성과에 있어 기업의 경영성과 변수가 실질적인 초기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로 상장 전후 간의 장기적인 경영성과를 살펴볼 경우 미국에 상장하는 중국기업의 상장 목적에 부합하여 장기적으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Baron D. P.,1982, "A model of the demand for investment banking advising and distribution services for new issues", *The journal of Finance*, Vol. 37(4), pp.955-976.
- Baron D. P and B. Holmstrom.,1980, "The investment banking contract for new issue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delegation and the incentive problem, *The journal of Finance*, Vol. 25(5), pp.1115-1138.
- Beatty, R. P. and J. R. Ritter.,1986, "Investment Banking, Reputation and the Underpricing of Initial Public Offering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5, pp. 213-232.
- Boulton, T. J., S. B. Smart and C. J. Zutter, (2011), "Earnings Quality and International IPO Underpricing," *The Accounting Review*, Vol. 86, pp.483-505.
- Brown, S., and Warner, J. 1985, "Using Daily Stock Returns: The Case of Event Stud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4: 3-31
- Chang, E., C. Chao, J. Chi and M. Young, (2008), "IPO underpricing in China : New evidence from the primary and secondary markets," *Emerging Markets Review*, Vol. 9, pp.1-16.
- Ritter, J. R., and I. Welch., 2002, "A Review of IPO Activity, Pricing, and Allocations", *The Journal of Finance*, Vol. 57, No(4), pp.1795-1828
- Rock. K., 1986, "Why New Issues Are Underpriced",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5, pp.1051-1069.
- Ruud, J. S.. 1993, "Under writer Price Support and the IPO Underpricing Puzzl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34(3), pp.135-151.
- 楊丹, 王麗(2001), "中國新股發行抑价: 一个假說的檢驗", 厦門學報(社會科學版)
- 徐文燕, 武康平(2001), "對中國新股發行抑价的再思考—承銷商托市", 山西財經大學學報, (12): 71-75
- 江洪波(2007), "基於非有效市場的A股IPO價格行為分析". 金融研究, 6卷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중개자 역할'로 살펴본

조선족기업의 경쟁력 분석¹

-조선족기업가 관련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중개자 유형화 분석-

예성호(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南京財經大學)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외교부가 발표한 <2017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743만 여명에 육박하는 재외동포 중 중국동포는 255만 여 명(전체 재외동포 중 34.29%차지)으로 그 비중이 가장 크다. 또한 해외동포의 경제적 교류를 위해 열리는 재외동포 경제인대회라 할 수 있는 세계한상대회(World Hansang Convention)²에 재중 조선족기업의 참가비중이 미국과 더불어 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중 조선족기업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1년 345여 개에 불과했던 조선족기업이 2012년도에는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³에 등록된 기업 수 기준으로 약 3,600 여 개에 이르며, 조선족사회의 대표적 신문 중 하나인 흑룡강 신문사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17,5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족기업의 분포 지역도 1991년 중국동북 3성에만 국한되었지만, 현재는 중국 전역을 포

¹ 본 원고는 2019년 12월 4일 동북아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로 조선족기업 관련 기존 선행연구결과와 실증 데이터를 사회네트워크 관점에서 재해석한 시론적 차원의 논의임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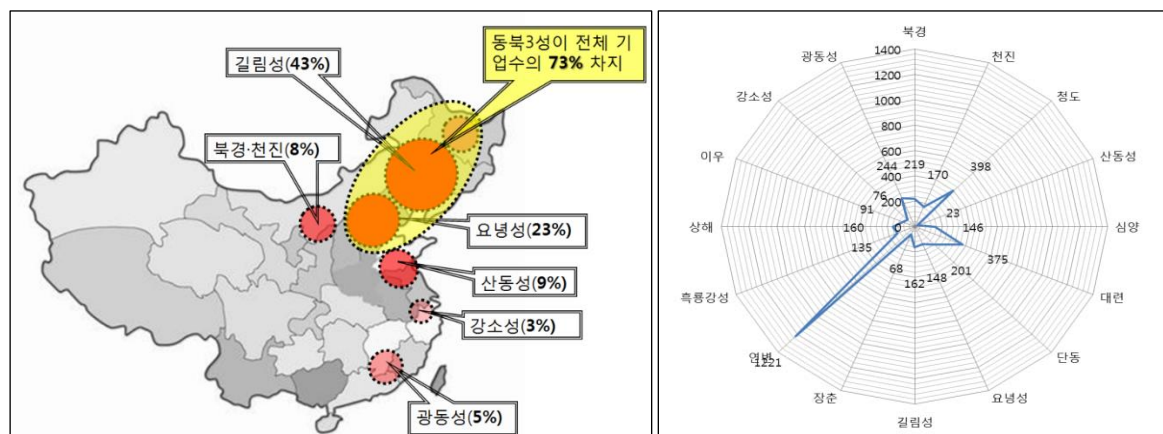
² 세계한상대회는 1991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된 뒤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세계화상대회(世界華商大會)가 모티브가 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대회는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민족의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는 국제 비즈니스의 장이다. 재외동포재단과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지난 2002년 제1차 세계한상대회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 열릴 제17차 세계한상대회까지 개최되었다. 특히 해외 진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한상대회를 통해 해외 시장정보를 얻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한다(한상넷, 네이버 지식백과의 관련내용을 정리한 것임)

³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2007년 출범되었으며, 2013년 9월에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 받게 된다. 2016년 기준으로 100여 명 회장단, 중국 16개 도시에 조선족기업가협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3,600개 소속 회원기업을 둔 중국 최대 규모의 협회로 성장하였다. 협회 산하에 총 28개 지역협회가 있으며, 각 협회 산하에 제조업, 무역, 과학기술, 종합, 요식업, 의학 등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조직에도 25개 중국 지역지부가 설립되어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함해 일본, 미국 등 글로벌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 35년 간 조선족기업들은 상당한 자본축적을 거치며 발전해 왔고 향후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언론을 통해 성공한 조선족기업들의 소개가 보도된 적이 있다. 조선족 3세인 신동일 회장이 CEO로 있는 '랑시(LANCY)' 그룹은 중국의 패션업계를 대표하는 조선족기업이다.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상장기업으로 2014년에는 아가방(Agabang & Co.)을 약 5,000억원에 인수했으며, 2016년에는 KEB 하나은행과 중국 및 한국시장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합작회사 설립에 합의하기도 했다.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에 등록된 3,600여 개 조선족기업 지역별·권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길림성 38%, 요녕성, 23%, 흑룡강성 4%로 동북3성 지역이 전체 기업 수의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산둥성 11%, 북경·천진 10%, 화동지역 8%, 광둥성 6% 순이다. 이들의 업종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제조·설비업(29%), 무역·유통·물류업 (25%), 각종 서비스업(18%), 여행·숙박·요식업(13%), 보건업(3%), IT관련(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김윤태 외 2016).



본 연구는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조선족기업의 경쟁력을 사회네트워크 이론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결과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조선족기업의 경쟁력이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중국인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을 시점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발현되는 것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사회네트워크적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중국·북한·한국 삼국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적 틈새(structural hole)에 위치(Burt,1995;2004)해 있으면서 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대변인, 게이트키퍼, 연락인 등의 다양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언론을 통해 소개된 성공한 조선족기업가 관련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중개자 유형화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논의

김시중(2003), 이장섭(2011), 김현미(2008)등의 조선족기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조선족의 사회변화 속에서 탈농촌 도시화 현상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중국 내 대도시 및 해외 지역으로의 조선족 기업 이동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선족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지역별 조선족기업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연구(임채완,2007; 임채완 외,2012), 조선족기업가 형성과정 분석연구(예동근,2012), 조선족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과 정체성 변화 연구(백권호 외,2015), 조선족기업의 비즈니스네트워크 추이분석(이장섭 외,2016) 그리고 이들의 기업가 정신과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연구(이장섭,2017), 조국가주의 역동성'으로 본 성공한 조선족기업가 유형분석 연구(김윤태 외,2017), 중국 조선족기업의 발전과 새로운 이주에 대한 연구(백권호 외,2018) 등이 진행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거 문헌조사 혹은 2차 자료에 의존한 연구, 제한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조선족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실증연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의 국내외적 비즈니스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연구도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기존 선행연구 중 특별히 아래 두 가지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데이터에 주목하게 되었다. 즉 조선족기업의 경쟁력은 '구조적 공백'이라는 네트워크 구조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쟁적 우위를 활용하는 가운데 발현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권호 외(2018) 연구는 중국 전역 조선족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조선족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고찰했다. 연구자들은 2016년 1월부터 7월 30일까지 대련, 북경, 천진, 청도, 길림, 장춘, 흑룡강성, 단둥, 심양, 소주, 삼아, 길림성, 위해 등에 소재한 조선족기업을 대상으로 조선족기업의 성공요인 분석을 진행했다. 조선족기업가협회를 통한 랜덤 표본추출방법으로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약 400부 회수 목표를 두었으나, 최종 320부가 회수되었고, 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 정 항 목	전혀 아니다	대제로 아닌 편	보통 이다	대제로 그런 편	정말로 그렇다
중국 현지경험의 축적			52 (16.7%)	203 (65.3%)	56 (18.0%)
통찰력과 도전정신		3 (1.0%)	152 (48.9%)	111 (35.7%)	45 (14.5%)
현지 중국인(한족)과의 네트워크 구축		6 (1.9%)	110 (35.4%)	163 (52.4%)	32 (10.3%)
현지 조선족과의 네트워크 구축		119 (38.3%)	111 (35.7%)	73 (23.4%)	8 (2.6%)
현지 한국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28 (9.0%)	12 (3.9%)	166 (53.4%)	99 (31.8%)	6 (1.9%)
한국과 네트워크 구축	9 (2.9%)	29 (9.3%)	117 (37.6%)	104 (33.4%)	52 (16.7%)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7 (11.9%)	2 (0.6%)	194 (62.4%)	61 (19.6%)	17 (5.5%)
사업자금의 보유 및 확보	37 (11.9%)		65 (20.9%)	193 (62.1%)	16 (5.1%)

Figure 1 조선족기업의 경영성과 요인분석(백권호 외,2018)

위 분석결과표를 살펴보면, 경영성과 요인으로 중국 현지경험의 축적(18%), 한국과 네트워크 구축(16.7%), 통찰력과 도전정신(14.5%), 현지 중국인(한족)과의 네트워크 구축(10.3%) 순임을 알 수 있다. 통찰과 도전정신이라는 자신의 기업가적 역량과 현지경험과 노하우 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성공을 담보하는 핵심역량에 있어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비중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현지 중국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조선족기업의 경영성과는 중국 현지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습 축적한 지식을 시장요구에 맞게 사업화하는 기업가적 역량과 현지화에 필요한 자원들을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묻는 항목에서 전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현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중국 조선족기업의 성공이 중국현지와 한국을 잇는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표를 보면, 재중 한국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상당히 저조하다. 여기서 한국과의 네트워크란 모국인 한국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모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조선족기업의 초국가주의⁴적 특성을 반증하는 연구결과이다.

지금까지 조선족기업을 신고전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하나의 원자화된 경제적 행위자로만 가정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조선족기업가의 경쟁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북한)과 중국 간

⁴ 모국과 거주국 사이를 왕복하는 이러한 생활방식을 소위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라 부른다(Basch, et al 1994).

관계에 자리매겨진(배태된) '관계적 행위자(relational concept of man)⁵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한편, 김병연 외(2015;2016) 연구는 북한과의 비즈니스 거래에서 조선족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분석결과를 제시해 주었다. 지금까지 북중무역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북한의 집계적 무역통계에 의거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북중무역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대북 거래 중국기업들의 행태를 기업단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2년과 2013년의 두 번에 걸친 중국 현지 대면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북중 거래 기업의 특성과 경영 성과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단둥 지역의 176개 현지기업(한족기업이 76개, 조선족 기업이 40개, 북한화교 기업 35개, 한국계를 비롯한 기타 기업 25개)을 대상으로 대북무역의 투자 특징 및 그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대북사업 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무역기업과 투자기업 모두 '북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로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법·제도의 예측 가능성에서 조선족 무역기업이 37.5%로 한족(23.2%), 북한화교(22.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 분석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한족	조선족	북한화교	기타	전체 평균
무역 (n=138)	가능	23.2	37.5	22.6	31.6	27.5
	불가능	76.8	62.5	77.4	68.4	72.5
투자 (n=54)	가능	44.0	25.0	44.4	62.5	42.6
	불가능	56.0	75.0	55.6	37.5	57.4

Figure 2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법 제도의 예측 가능성(김병연, 2016)

한족기업과 비교해 자본규모에 열세이긴 하지만, 북한과의 무역거래⁶에서 조선족기업이 한족기업에 비해 높은 경쟁우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은아·박종철(2014)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북무역을 둘러싼 한족, 조선족, 북한화교, 한국 기

⁵ 여기서 '관계적 인간'은 동양사회의 '관계성' 혹은 '관계 중심주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사회관계에 배태되어(embedded) 있다는 의미에서 '관계적 인간'으로 가정할 수 있다(김용학, 2004; Coleman, 1988; Granovetter,1985; Portes, 1993)

⁶ 사업방식에 따라 무역기업과 투자기업으로 구분하였다. 투자기업은 투자 형태에 따라 합영, 합작, 설비제공형 투자, 북한인력 수입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주요 무역 형태에 따라 일반수출, 일반수입, 위탁가공, 도소매,기타(밀수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전체176개 기업 표본 중 무역기업이 122개, 투자기업이 38개, 그리고 무역과 투자를 동시에 하는 업체는 16개였다.

업행위자의 관행, 행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이 언어, 인맥, 정보 등의 장벽으로 북한 내부에까지 깊숙이 들어가는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조선족이나 북한화교에 의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선족 무역기업은 북한화교에 비해 뛰어난 중국어 구사능력을 그리고 중국 한족에 비해 한국어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중 무역을 중개하고 있다.⁷ 특히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조선족기업가의 경쟁력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중국 공민으로서의 국민정체성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활용하면서 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분석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잦은 정책 변화와 법·제도 미흡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국인이라는 국민정체성과 한민족의 민족정체성을 활용해 한국과 북한을 이동하는 역동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한민족이라는 종족(민족) 정체성과 중국인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천적 자원(원초적 유대)’을 가지고 있다. 즉 조선족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한국·북한·중국이라는 국가간 네트워크 관계에 배태되어(자리매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족기업은 중국기업의 대 북한, 한국 진출에 중개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배경으로 북한과 한국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중국·북한·한국 삼국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적 틈새(structural hole)’의 위치(Burt,1995;2004)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사회네트워크 이론과 중개자 유형화 분석들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는 인간의 경제적행위는 신고전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듯이 합리적이고 원자화된 개인들의 이익추구 과정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데 이는 행위자들의 행동이 현재의 직접적인 사회적 맥락(immediate socialcontext)으로부터 원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의 행위는 항상 현재 개인이 맺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관계에 배태되어(embedded) 있다는 것이다. 배태성은 수동적, 능동적 행위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원초적 유대에 의해 ‘배태되기도’(embeddedness) 하지만 한편으로 ‘배태하는’(embedding) 주체적 행위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조선족기업가는 중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한민족과

⁷ 조선족은 대화 상대에 따라 그에 맞는 방언을 사용하는데 북한인에게는 이북을 ‘조선’, 한국어를 ‘조선말’이라 부르고 한국인에게는 ‘북한’, ‘한국말’이라 한다(정수열 외, 2017).

‘원초적 유대’(primordial ties)⁸를 가지고 있는 민족 구성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들이 갖는 이중적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구분된 생활을 하고 있다. 중국의 국민이라는 국가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모국이라는 개념 또한 애매할 수밖에 없다. 짐멜(Simmel, 1950)은 이러한 ‘잠재적 유랑인’을 ‘이방인’(stranger)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한 사회구성원으로 규정했다.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은 ‘사회구조 내 존재하는 빈 공간(the empty spaces in social structure)’으로 ‘중복되지 않은 행위자 사이의 분리(the separation between nonredundant contacts)’를 의미한다. 공백은 전기 회로의 절연체(insulator)같은 완충장치(buffer)로 그들 사이의 공백으로 인해 네트워크 이점을 제공한다(Burt, 1995:18). 버트는 연결을 형성(overlapping)하지 못한 ‘공백’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차별화된 경쟁적 우위를 제공하는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경쟁적 우위는 크게 통제효익과 정보효익 두 가지로 나타난다. 두 행위자가 서로 모르거나, 서로 알더라도 정보교환에 따른 거래비용이 상당히 높을 때 구조적 공백의 통제효익이 발생한다. 정보효익은 정보 원천의 다양성의 차이로 인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공백이라는 위치에 있는 행위자에게 상호 접촉 기회가 없거나 적은 이질적 행위자(액터)들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굴드와 페르난데스(Gould&Fernandez, 1989)는 그룹 내 혹은 그룹 간의 관계에서 중개자(broker)로서 행동하는 예고와 예고 이웃과의 관계분석을 통해 중개자의 다양한 역할을 분석하였다. 중개자는 속한 그룹 및 역할에 따라 코디네이터, 컨설턴트, 대변인, 게이트키퍼, 연락인의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아래 그림을 보면 정보(자원)의 흐름 방향(화살표)과 소속 그룹을 기준으로 중개자 역할을 구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⁸ 문화인류학자 기어츠(Geertz, 1963)에 의해 체계화된 것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주어지는 혈통, 인종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과 더불어 특정한 종교 공동체에서 태어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무의식적이고 선형적으로 습득하게 되는 언어, 종교, 관습 등과 같은 불변의 문화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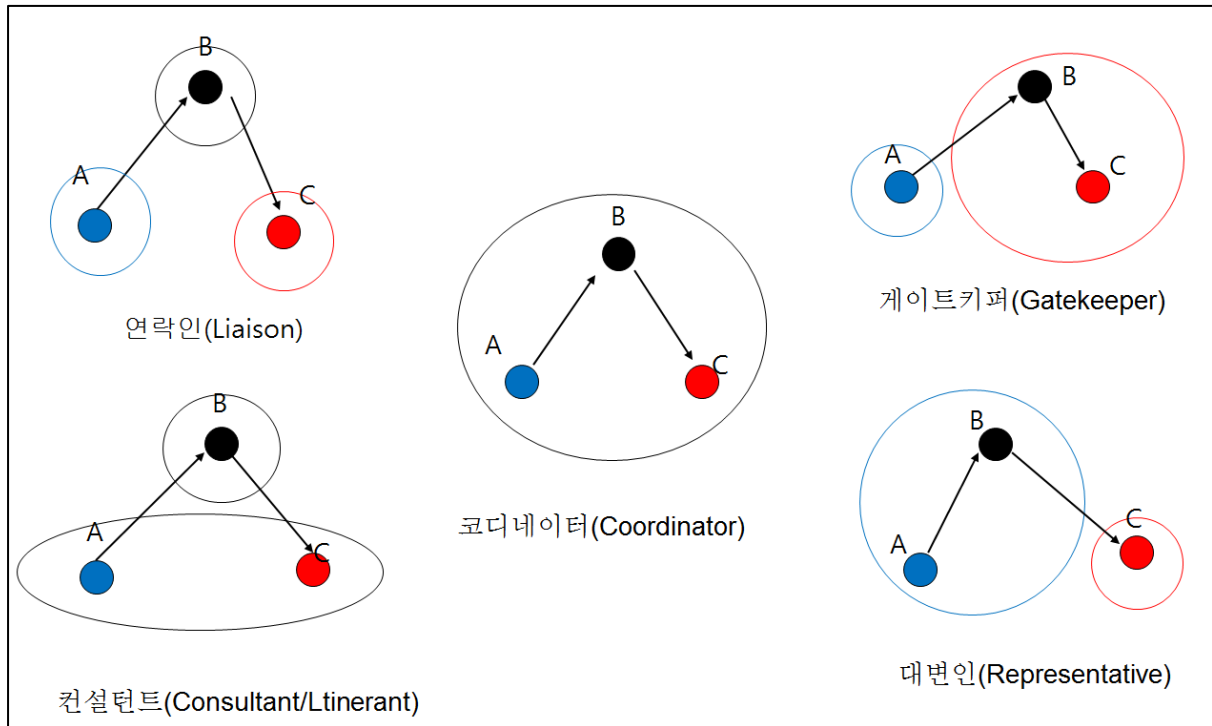


Figure 3 다섯 가지 중개자 유형(Gould & Fernandez(1989,1993) 참고로 필자 작성)

위 그림은 그룹별 소속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파란색(A), 붉은색(C), 검은색(B) 점과 선으로 각각 표기했다. 파란색 점(출발점 A)을 한국 혹은 북한으로, 붉은색 점(도착점 C)을 중국으로 가정할 수 있다. 중간의 검은색 점을 중개자(조선족 기업)로 가정할 수 있다. 다섯 가지 중개자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	개념
코디네이터	중개자는 출발점과 도착점 모두 같은 그룹의 구성원인 경우이다. 중개자는 본 그룹의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컨설턴트	출발점과 도착점 모두 동일한 그룹에 속하나, 중개자는 이들과는 다른 그룹 소속이다. 중개자는 이 둘 사이를 중개하는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한다.
대변인	출발점과 중개자는 같은 그룹에 속한다. 중개자는 출발점을 대신하여 도착점과 협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중개자는 출발점의 이익을 대변한다.
게이트키퍼	출발점은 중개자와 도착점이 속한 그룹과 다른 그룹에 속한다. 중개자는 문지기로 출발점이 도착점에 접근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락인	출발점, 중개자, 도착점 모두 다른 그룹에 속한다. 중개자는 다소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데, 연락자인 중개자는 출발점, 도착점 사이에서 협상안을 이끌어 낸다.
-----	---

Figure 4 다섯 가지 중개자 유형 정의

한국어와 중국어 등 이중 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조선족기업가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중개자 역할을 진행한다. 중개자 유형 그림을 통해 보면, 조선족 기업가가 중국인이라는 국민(국가) 정체성을 활용하면, 그들은 중국의 게이트키퍼로 한국(북한)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민족정체성을 활용하게 되면 한국(북한)을 대표하는 대변인으로 중국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선족기업가는 자신의 이중적 정체성을 시점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정체성 저글링(identity juggling)⁹을 하고 있다(정수열 외, 2018).

조선족이 중국인이나 한민족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다(강진웅, 2012).¹⁰ 또한 조선족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이주하면서 글로벌 조선족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선족이 한민족과 분리되면서도 향후 중국민족인 한족과도 다른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족기업가는 본인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인과 중국인을 연결하는 연락인 역할은 물론,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라는 기업가들을 매칭하는 컨설턴트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¹¹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을 통한 정체성 저글링을 통해 조선족기업가가 얻는 이득은 단순히 거래의 성사에 머물지 않고 협상력을 제고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양자에게서 이윤을 취하기도 한다(정수열

⁹ 이 개념은 국제이주자 연구에서 제안되었다. 그로리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úa)의 '문화들을 저글링하기(to juggle cultures)'와 조디 딘(Jodi Dean)의 '저글링 기술(juggling skills)'이라는 개념에 착안해서 한국사회 이주자들이 다양한 시점과 상황에서 본인들이 가진 다중 정체성을 공존, 경합, 교섭시킨다고 주장했다(이현재, 2012).

¹⁰ 강진웅(2012)연구는 조선족이 한국으로 이주노동을 경험하면서 한국민에 의해 타자화되면서 중국국민 의식이 강화되는 한편 귀환 이후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족과 경쟁에서 사회경제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¹¹ 구조적 공백에 위치한 중개자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심리적 동기가 성취지향적 동기(entrepreneurial orientation)와 관계지향적 동기(relationship-building orientat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성취지향적 중개자들은 그들의 힘(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자 사이를 분리하고, 관계 지향적 중개자들은 중개 대상자 사이를 연결하고자 하고, 심지어 갈등이 있을 때 조차 연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Kalish, 2008).

외,2018).

이처럼 조선족기업의 성공은 바로 한국(북한)-중국 사이의 구조적 공백에 위치한 경쟁우위를 십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공한 조선족기업가 인터뷰 자료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중개자 유형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4. 연구결과: 중개자 역할 유형화

조선족기업 관련자료는 1974년부터-1992년까지의 조선족기업가 편지 데이터¹², 중국조선족 3대 언론사인 흑룡강 조선족신문사, 요녕 조선족신문사, 길림 조선족신문사에서 2011년 4월9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특별기획으로 조선족기업을 보도한 자료¹³와 한국 언론에서 소개된 조선족기업가 협회장들의 인터뷰 기사를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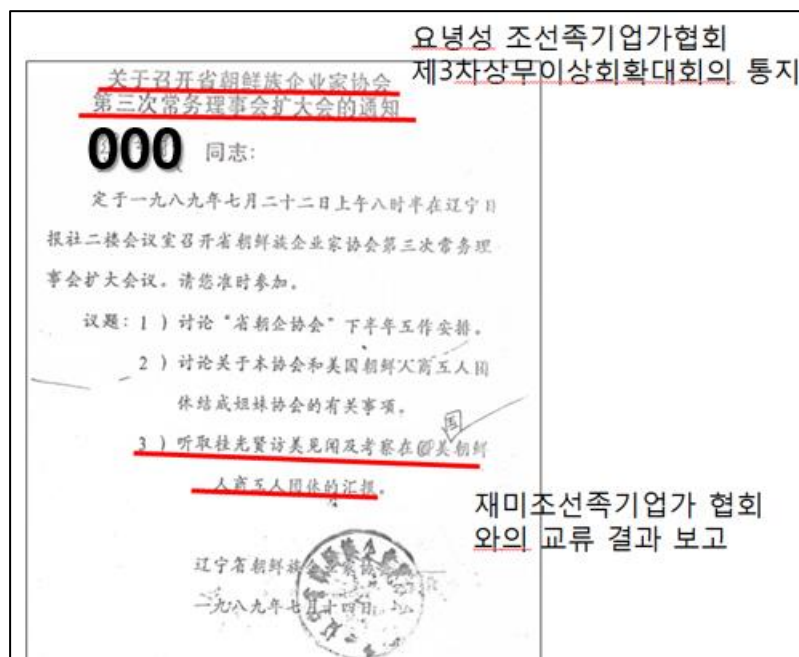


Figure 5 1979년 7월 22일 모 조선족기업가 편지내용

위 그림은 요녕성에 소재한 모 조선족기업가의 편지에서 발견된 회의통지 관련 자료이다. 이

¹² 관련 데이터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 동포 서신 DB구축 및 생활문화 분석' 과제로 진행된 조선족편지DB(<http://letter.dongduk.ac.kr/>)를 검색 활용한 것이다.

¹³ 백권호, 문철주. 2013. 중국조선족기업의 선도자들-중국조선문 3대 언론사 특별기획 중심으로. 다해.

를 통해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얼마 지나지 않은 1979년 당시에 이미 재미 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와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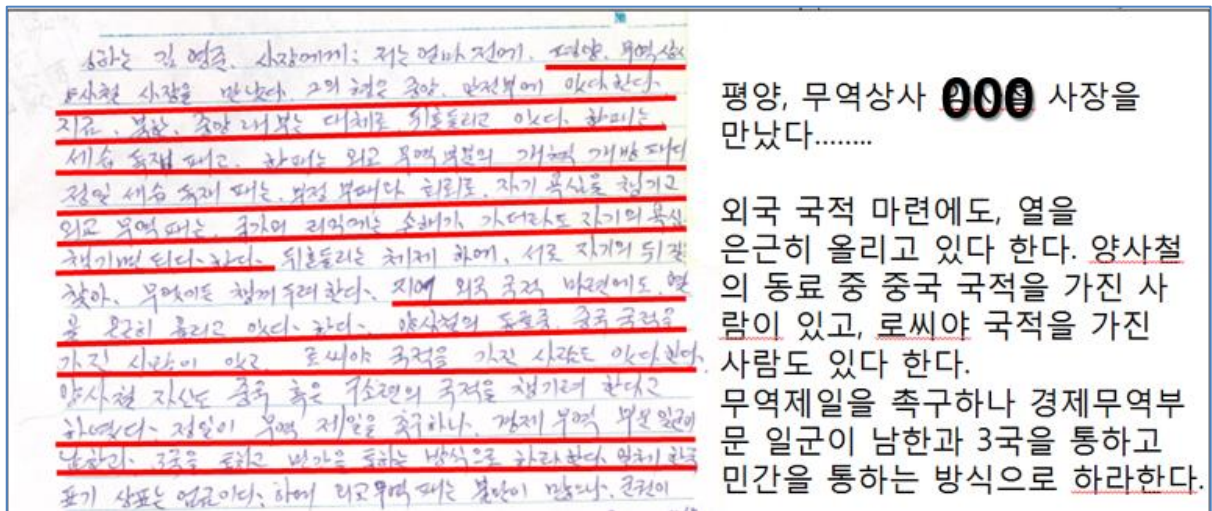


Figure 6 1983년 9월 13일 모 조선족기업가 편지내용

위 편지내용을 통해 당시 기업가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중 일부 지역과 이미 무역거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들 지역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래 '대변인' 유형에 속하는 조선족기업가 인터뷰 일부 내용을 발췌했다.¹⁴

조선족기업가 A : “조선족 대부분은 한국 때문에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사실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과 달리 조선족들에게는 자기 언어가 있고, 자기 문화가 있고, **독립된 모국**이 있다. 연변에서의 다수 조선족은 물론 한족도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모두 한국제품이다. 한국문화가 모두 **연변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간다.**”

조선족기업가 B : “한국은 **제 모친의 나라**로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21세기 한중교류협회 부회장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 및 우호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신안군에 아람, 금산, 대척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한국의 경제와 환경발전에도 기여 할 계획입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이 조선족기업가 A는 한국을 자기언어와 문화가 있는 ‘독립된 모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국을 통해 조선족들이 잘 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 거주지 연변을 통해 한국제품이 전파되어 중국의 한족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¹⁴ 본 연구의 인터뷰 내용은 김윤태 외(2017)연구에서 재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한족에 대한 열등감을 중화시킴과 더불어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의 원초적 유대를 바탕으로 민족정체성을 활용해 한국의 정보를 중국으로 전파하는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첨단 IT 및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조선족기업가 B는 한국을 '모친의 나라'로 규정함으로써 원초적, 민족적 동질감을 토대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방면에서 모국발전을 위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게이트키퍼' 유형이다. 한국을 민족적 동질감으로 생각하는 '대변인' 유형과는 달리 '게이트키퍼' 유형의 조선족기업가는 한국의 가격경쟁력을 갖춘 신기술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도입해 중국에서 현지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즉 중국인으로서의 국가정체성을 활용해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정보흐름을 주도한다.

조선족기업가 C: *"아직 개발능력이 강하지 못한 조선족기업들에게는 한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해 현지화하는 전략이 회사발전의 디딤돌이다. 중국시장에 맞는 **한국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해 현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이트키퍼 유형에 속하는 기업가는 도·소매업,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조선족기업가 C처럼 '한국 유명기업 상품', '한국문화', '한류', '한국기술자'등의 키워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인기식품, 선진기술, 노하우를 받아들여 중국에서의 현지화를 매우 강조했다.

세 번째로, '연락인'과 '컨설턴트'유형이다. 이 유형은 조선족기업가가 독립적 집단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다른 집단 간 혹은 동일 집단 내 중개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유형의 조선족기업가들은 한국을 중심으로 일컫는 '한상(韓商)', 조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조상(朝商)'과 구분되는 '단상(檀商)'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선족경제인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했다.

"장백산의 량질목재와 한국의 선진적인 제조기술, 원료를 바탕으로 질 좋고 열전달이 좋으며 친환경적인 온돌용 마루판을 생산하여 현재 시장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 제품은 이미 일본, 한국 등 나라에 주문을 받은 상태이고 중국의 내수정책에 힘입어 연변을 기점으로 동북 3성과 나아가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다."

"우선 한복의 발원지인 한국으로 같다. 한국의 박물관을 찾아다니며, 또 한복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한복의 변천사를 일일이 체크했던 것이다. 우리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전국(중국) 각지는 물론 한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이 유형의 조선족기업가들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기술과 노하우 가져다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채 다양한 지역과 국가로 수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성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장은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재중동포가 북한 내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해 한국기업으로 하여금 북한을 이해하고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¹⁵ 이는 '연락인' 유형이다. 연락인은 새로운 정보를 다른 집단 간 전달하는 다소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컨설턴트는 동일한 목적이나 부류에 속하는 그룹 내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 대북사업의 산증인으로 통하는 전규상 길림천우건설그룹 회장은 1997년 북한에 진출, 나선특별시에 호텔과 시장을 짓고 평양과기대 설립멤버 중 한명이다. 그는 *"체제와 역사적인 문제 등으로 한국 기업들이 바로 평양 등에서 사람을 접촉하고 교류하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 조선족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¹⁶ 이는 컨설턴트의 유형이다.

한편, 대부분 조선족 선민들이 바로 남북분단 이전에 중국으로 이주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의 모국이라는 구체적인 의식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한반도 전반에 있으며, 구체적 표현 형태는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구조를 나타낸다(임채완 2008). 이런 측면에서 조선족기업은 한국(남조선)-조선족-북한(북조선)을 하나의 집단으로 상정하고 동일 집단 내 코디네이터 역할을 진행할 수 있다.

건축·무역·과기 분야 15개 자회사를 이끌고 100차례 이상 방북하며 대북투자를 주도한 표성룡 요녕신성그룹 회장은 2018년 9월 한국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북한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북한 내 건설과 부동산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¹⁷ 평안북도가 고향인 그는 한민족 공동 번영론을 역설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이나 조선족, 그리고 북한에 사는 동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서로가 지닌 편견을 버리고 힘을 합쳐 각자 속한 곳에서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합니다"*¹⁸, *"앞으로 펼쳐질 남북 경험 시대에 조선족 기업가들이 한국 기업들의 확실한 가교가 되겠다"*고 말했다.¹⁹ 코디네이터로서 동일 집단 내 구성원 간 존재하는 편견을 없애면서 상호협력을 이끄는 중개자 역할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토론

¹⁵ 머니투데이, 2018.07.04 16:02, "성공한 조선족 기업인들의 첫 만남 "남북경협 다리역할"

¹⁶ 머니S, 2019.01.16 11:13, 박용만 회장 "남북경협 여건 녹록지 않아... 중국이 경쟁력 우위"

¹⁷ 매일경제, 2018.09.12. 09:52:21, "희림, 중국 최대 조선족 기업 신성실업과 MOU 체결 북한사업 공동진출·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적극 협력키로"

¹⁸ 연합뉴스, 2011-05-19 13:30, <사람들>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표성룡 회장

¹⁹ 조선일보, 조선족 기업가들, 北에 '평양 韓商 대회' 개최 건의, 2018.07.05 03:00

본 연구는 조선족기업의 경쟁력을 기업가적 역량이라는 원자화된 경제행위자가 차원이 아닌 민족과 국가로 배태되어진 관계에서 발현된다고 보는 사회네트워크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즉 조선족기업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과 중국인이라는 국가정체성을 활용해 한국(북한)-중국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점유하면서 다양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했다.

이상의 조선족기업가의 중개자역할 유형화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적 방안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은 모국(한국, 북한)에 대한 감정적 유대를 바탕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방면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민족 공동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선봉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유형별 조선족기업을 통해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구축 방안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북중 경험, 남중북 협력 방안 논의를 뛰어넘어, 북한-조선족기업-한국기업이라는 삼자간 협력 모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아래와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족기업가의 중개자 유형이 지역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조선어) 능력과 민족적 유대 등의 선천적 자원을 통한 경쟁우위가 향후 줄어들 수 있다. 중개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한 비율로 사라지는데, 경쟁력 있는 새로운 관계가 기존의 경쟁력 없는 관계를 대체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Burt, 2002). 실제로 북한기업가 중에서 대부분 나이트 기업가는 중국어 실력이 간신히 의사소통만 가능한 수준이지만 최근 젊은 기업가들은 중국어가 능숙하다(정수열 외, 2018). 따라서 조선족 기업가의 이러한 중개자 역할에 따른 경쟁력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즉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하는 중개자와 그 다양한 유형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개자의 역할이 어떻게 유지, 강화 혹은 약화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이병규,2009;이병규 외,2012).

참고문헌

강진웅, 2012, “디아스포라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종족의 사회적 구성과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46(4), pp. 96-136.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역.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서울: 새물결, 2005.

김광기. 「'이방인'의 '인간행위자': '친밀'과 '거리'사이」. 사회와 이론, 제7집2호(2005), 151-175쪽.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을 위한 이론적 정초」. 한국사회학, 제38집6호(2004), 1-29쪽.

김병연, 중국의 대북무역과 투자: 단둥시 현지 기업조사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3월호

김병연·정승호, 중국의 대북무역과 투자: 단둥시 기업조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김시중, "재중동포의 경제적 지위와 역할", 『코리아 디아스포라와 세계경제』서울, 국제경제연구소, 2003년.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2003.

김용학. 사회구조와 행위. 파주: 나남, 2003.

김윤태·문철주·예성호, 한상의 모국진출 현황: 중국조선족 기업의 네트워크 및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 재외동포재단, 2016

김윤태·예성호 '초국가주의 역동성'으로 살펴 본 조선족 기업가 유형분석과 그 의미- 성공한 조선족기업가 인터뷰 내용에 키워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제32호, 2017년

김재기, "남북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대북한 경제협력-중국조선족 재일 조총련 동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4집, pp167-194, 2005년.

백권호 외 3, 재중 조선족 동포 기업가 사회조사연구, 다해, 2014

백권호·문철주, 중국 조선족기업의 발전과 새로운 이주, 한국학술정보, 2018

백권호·문철주, 중국조선족기업의 선도자들 -중국조선문 3대 언론사 특별기획 중심으로,다해,2013

염유식. 2007."16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가결에 관한 연결망 분석: 의원들의 중개자 역할(brokerage)이 법안 가결 여부에 미치는 영향." 『법과 사회』 32권, 159-184.

이병규 · 염유식. 2012. "중개 위치 점유의 증가와 감소에 관한 연구: 제 17대 대한민국국회의 대표 발의 연결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학』 46집 4호, 137-175.

이병규. 2009. "중개자 역할의 유지 매커니즘: 17대 국회 법안발의 연결망 분석을 통하 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85-1104.

이장섭,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58호, pp91-117, 2011년.

이정남, "동북아의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정책: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2호, pp279-305, 2008년.

이현재, 2012, "여성의 이주,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열기 그리고 정체성 저글링," 여성문학연구 22, pp.7-36.

임채완, 2008, "지구화시대 디아스포라의 초국적 활동과 모국: 동남아 화인과 중국조선족에 대한 비교연구", 『국제정치논총』, 48(1).

임채완. 2008. 「지구화시대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활동과 모국」. 국제정치논총, 48(1).

주봉호, "중국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과제". 『동북아 농촌』41. p149-172.

허명철, 2011, "조선족공동체와 정체인식," 통일인문학논총 52, pp.307-328.

건설경제신문, 2018-09-12 09:34:23, <희림, 중국 최대 조선족 기업 신성실업과 MOU 체결>

머니투데이, 2018.07.04 16:02, <성공한 조선족 기업인들의 첫 만남"남북경협 다리역할>

매일경제신문, 2018.10.23 17:51:16, "北, 26개 개발구 투자유치중...남북경협에 가교역할 하겠다"

Alejandro Portes and Julia Sensenbrenner.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8, No. 6 (May, 1993), pp. 1320-1350.

Burt, R. S. 1992. "Structural holes." Cambridge, MA.

Burt, R. S. 2002. "Bridge decay." *Social Networks* 24:333-363.

Gloria Anzaldúa,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Sanfrancisco: Spinsters/Aunt Lute, 1987, p.79.

Gould, R. V. and R. M. Fernandez (1989). "Structures of Mediation: A Formal Approach to Brokerage in Transaction Network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19, pp. 89-126.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1, no.3, pp.481-510.

James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1988). pp. S95-S120.

Jodi Dean, *Solidarity of Strangers. Feminism after Identity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36.

Kalish, Yuval. 2008. "Bridging in social networks: Who are the people in structural holes and why are they ther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53-66.

韓國 ‘新南方政策’ 與中國 ‘海上絲綢之路’ ：在ASEAN市場上的競爭與合作

2019. 12. 4

李焱求(培材大學)· 孫占芳(中南財經政法大學)

目次

I. 新南方政策

II. 海上絲綢之路

III. 韓中與ASEAN經貿關係

IV. 政策評價

V. 啟示點

I 何謂”新南方政策”

- 文在寅政府的 “東北亞+責任共同體” 課題中, 確定對外經濟政策的兩大重心
- ✓ “新北方政策” 與 “新南方政策”
- “新南方政策” 從政治上, 擴大和加強基於ASEAN和印度等國需要的實質性合作建立 “特殊戰略夥伴關係”
- ✓ 韓國與ASEAN、印度的關係提升為韓國與周邊四大強國近似的水平
- ✓ 與ASEAN以需求基礎加強實質性合作; 與印度加強戰略合作以及跨大實質性經濟合作
- 新南方政策” 從經貿上, 提升韓-ASEAN經貿關係水平, 構建經濟共同體
- ✓ 2020年將與東盟國家的貿易額提升至2000億美元
- ✓ 2020年將人員交流達到1,500萬人次

I 何謂”新南方政策”

➤ “新南方政策” 上層原則: 構建 “3P共同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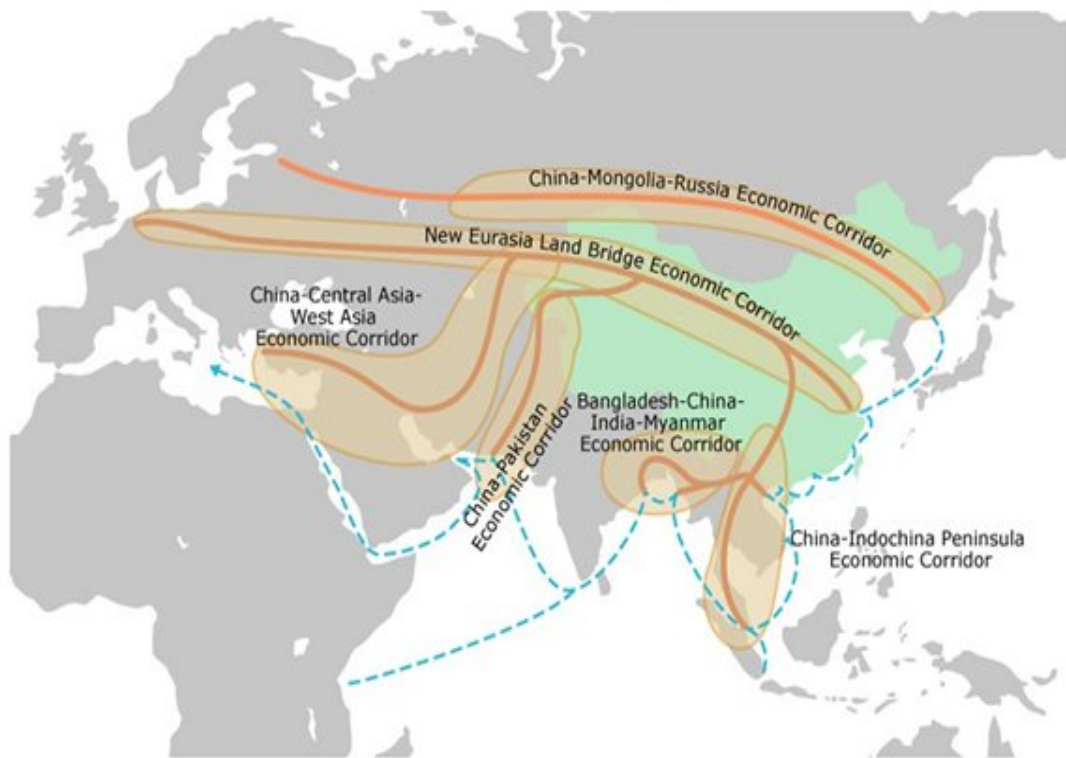
- ✓ 人與人, 心與心相連的人的共同體 (People)
 - 由於韓國無法 “以量取勝”, 所以就設法 “以人取勝”
- ✓ 通過互利合作構建生活富裕的繁榮共同體 (Prosperity)
 - 東盟加強區域內聯繫 (Connectivity) 的四大重點合作領域(交通, 能源, 水利資源管理, 智能信息通信)
- ✓ 通過安全合作貢獻於亞洲和平共同體 (Peace)
 - 鑑於當今亞太地區的緊張與不確定性源於大國之間的競爭, 韓國與東盟可以通過中等強國外交在緩和區域內緊張和穩定地區秩序方面發揮較大作用。

I 為何提出”新南方政策”？

- 因應外部環境發生變化, 通過轉變經濟外交政策, 需要形成戰略投資組合
 - ✓ 美中貿易保護主義擴散及“薩德”問題引發韓中關係僵持
 - 需要降低對中依賴(中國風險), 尋找多邊化
 - ✓ 東盟共同體的重要性日益增加(ASEAN Centrality)
 - 東盟具有6.4億人口, 2.7萬億美元的國內生產總值, 年輕的市場和生產基地
 - 2020年前將韓國與東盟的貿易額提升至2000億美元(Next China, Post China, China+)
 - ✓ 韓半島和平穩定需要東盟發揮作用

II 一帶一路倡議：概念框架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ix Economic Corridors Spanning Asia, Europe and Africa



通過以下方式連接亞洲，歐洲和非洲：

- 絲綢之路經濟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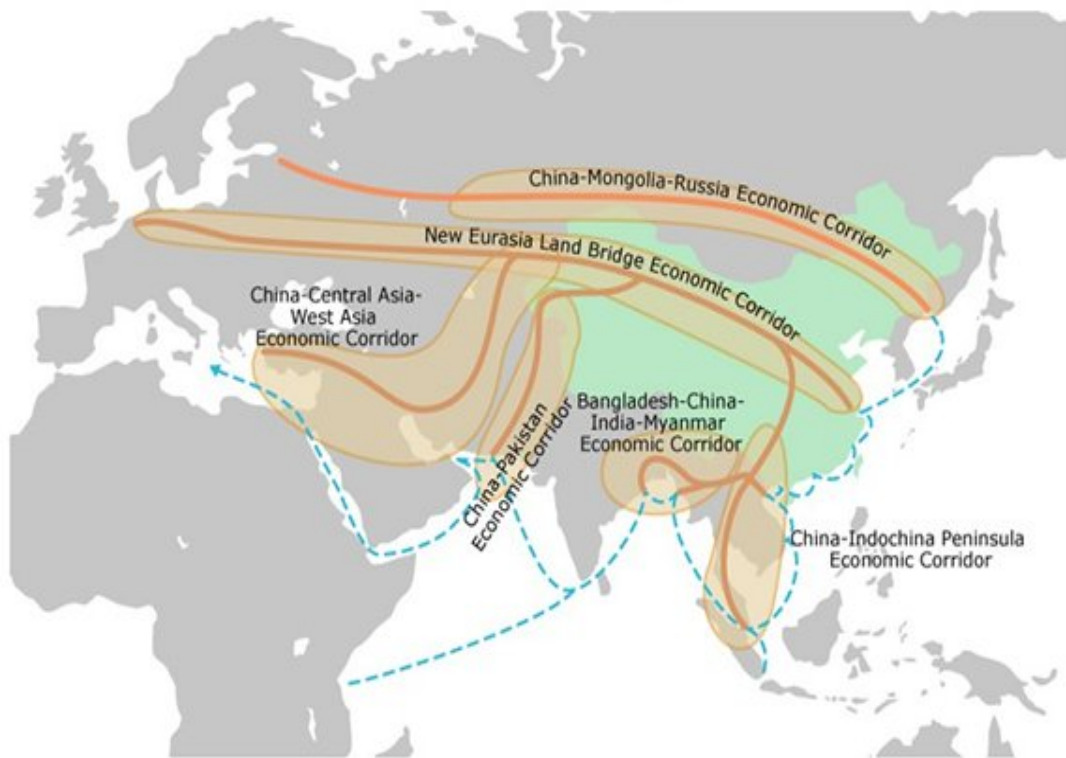
著重於通過中亞和俄羅斯將中國與歐洲聯繫；
通過中亞將中國與中東連接起來；並將中國與
東南亞，南亞和印度洋匯聚在一起

- 21世紀海上絲綢之路

著重於利用中國沿海港口：通過南中國海和
印度洋將中國與歐洲連接起來；並通過南中
國海將中國與南太平洋連接起來

II 一帶一路倡議：概念框架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Six Economic Corridors Spanning Asia, Europe and Africa



通過以下方式連接亞洲，歐洲和非洲：

- 絲綢之路經濟帶

著重於通過中亞和俄羅斯將中國與歐洲聯繫；
通過中亞將中國與中東連接起來；並將中國與
東南亞，南亞和印度洋匯聚在一起

- 21世紀海上絲綢之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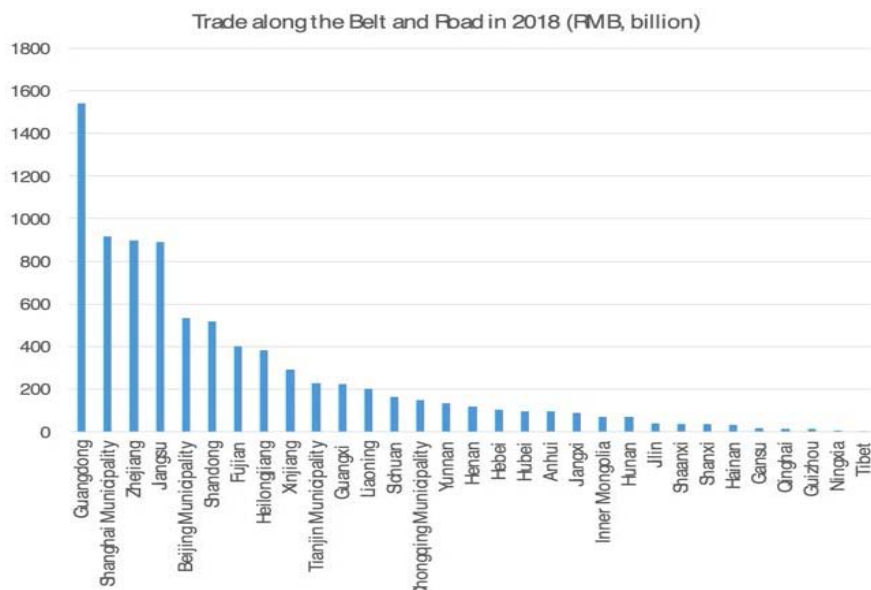
著重於利用中國沿海港口：通過南中國海和
印度洋將中國與歐洲連接起來；並通過南中
國海將中國與南太平洋連接起來

II 一帶一路倡議展望(2015-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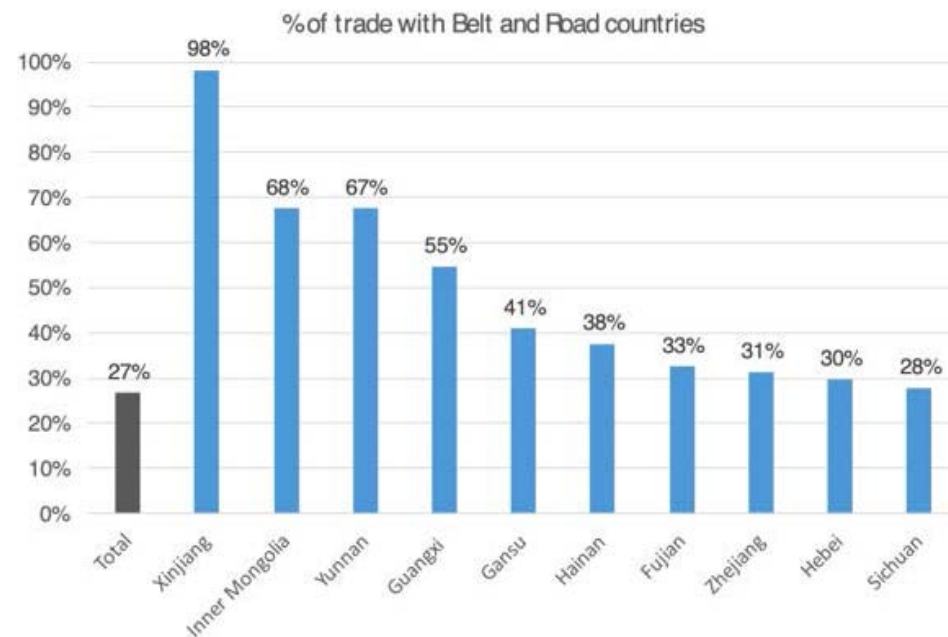
	指標	2015	2017	2027
GDP	2015不變價格(億美元)	230,963	249,440	394,850
	全球比重	31.10%	31.80%	38.20%
固定資產	2015不變價格(億美元)	78,028	90,053	130,577
	全球比重	43%	46%	50%
人口	總人口(億人)	45.7	46.5	49.6
	全球比重	62.30%	62.00%	60.40%
新增就業	就業人數(億人)	21.8	22.2	23.6
	全球比重	64.50%	64.20%	62.70%

II 一帶一路與中國地方政府

- 2018年，中國與“一帶一路”沿線國家的貿易額超過8萬億元人民幣（1.3萬億美元）。與2017年相比增長了13%
- 中國貿易總額的27%是與“一帶一路”沿線國家進行



- 儘管廣東省與“一帶一路”沿線國家的貿易額最高，但這僅佔其總貿易額的20%，遠低於全國平均水平（27%）



II 海上絲綢之路: 重點合作領域

1. 政策溝通

“一帶一路”沿線國家將通過平等協商，共同製定發展計劃和措施，以促進跨國或區域合作，並通過協商解決合作中出現的問題

2. 設施連通

將努力推進港口基礎設施建設，清理陸水多式聯運通道，以期建立連接亞洲各個次區域與亞洲，歐洲和非洲其他地區的基礎設施網絡。

3. 貿易暢通

將採取步驟解決投資和貿易便利化問題，減少投資和貿易壁壘，促進區域經濟一體化。

4. 資金融通

將採取行動擴大沿線國家之間本幣結算和貨幣之間貿易與投資的交換範圍，加深多邊和雙邊金融合作，並通過區域安排提高管理金融風險的能力。

5. 民心相通

將努力促進不同文化之間的交流與對話，為促進區域合作奠定基礎。

II 廣東省海上絲綢之路: 重點合作領域

China's Greater Bay Area

GDP of cities, Hong Kong and Macau



Source: HSBC Research

BBC

- 廣東省政府已與中國銀行，中國工商銀行和交通銀行合作建立了廣東絲綢之路基金
- 與香港特別行政區的緊密聯繫使該省與東盟國家以及南太平洋和北美洲的交通聯繫更加緊密。
- 廣東省是世界上最集中的港口集群-粵港澳大灣經濟區的所在地
- 能源，先進製造，金融和物流等眾多行業的公司也在BRI國家/地區進行了海外投資

III 韓中-ASEAN經貿關係

➤ASEAN概況(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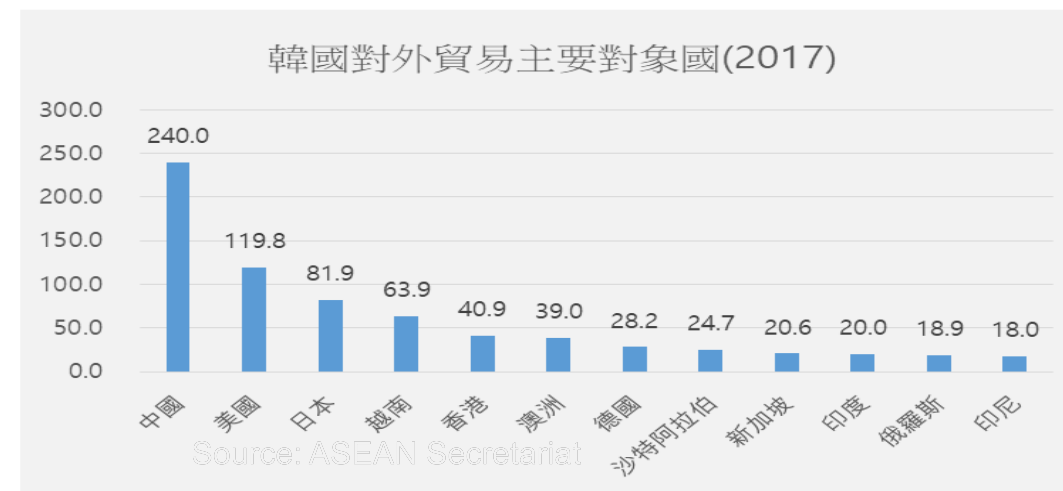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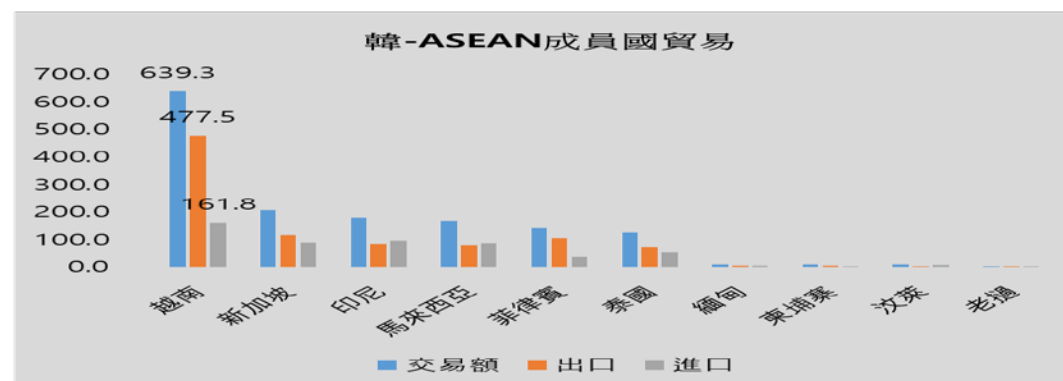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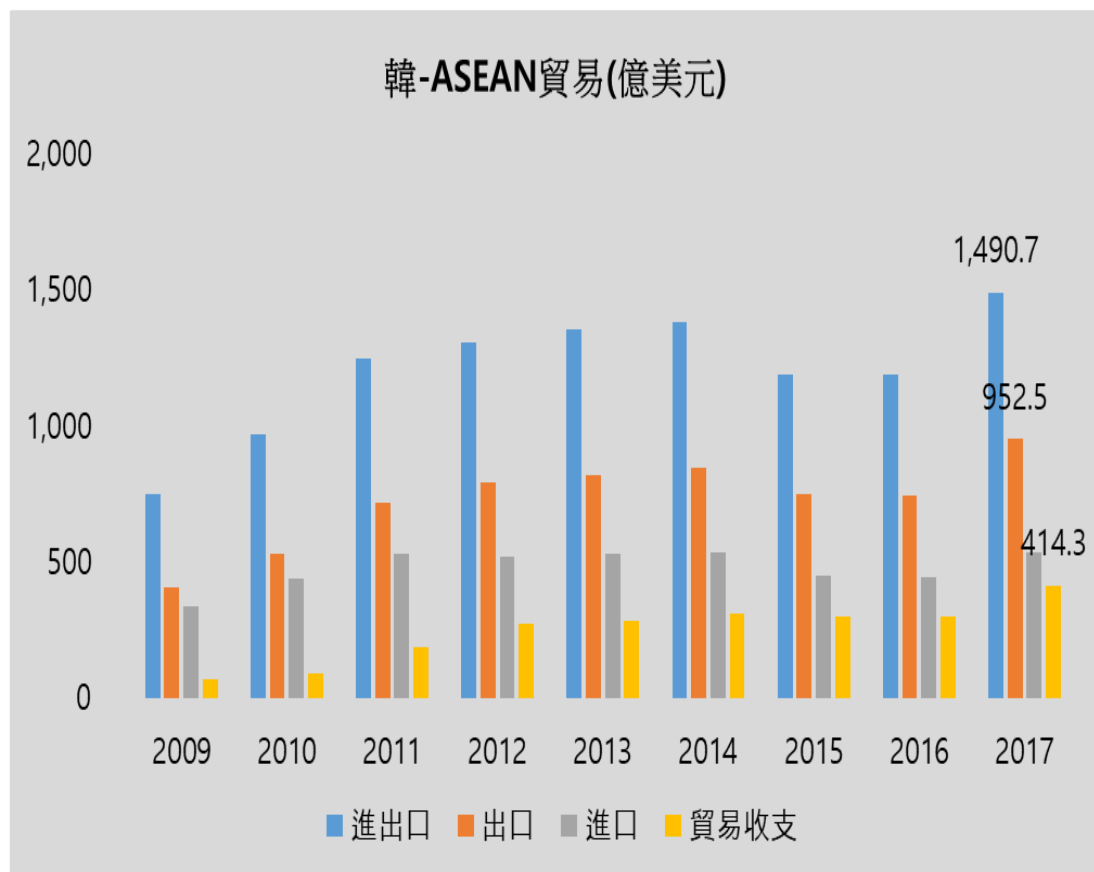


	加盟國	人口(萬)	GDP(億美元)	人均GDP(美元)	貿易(億美元)
ASEAN	10國	64,739	27,671	4,274	25,774
EU	28國	51,246	172,777	33,715	117,030
NAFTA	3國	49,159	221,936	45,146	56,188
MERCO SUR	6國	3,686	3,266	9,863	6,028

➤基於年輕穩定增長的東亞經濟整合樞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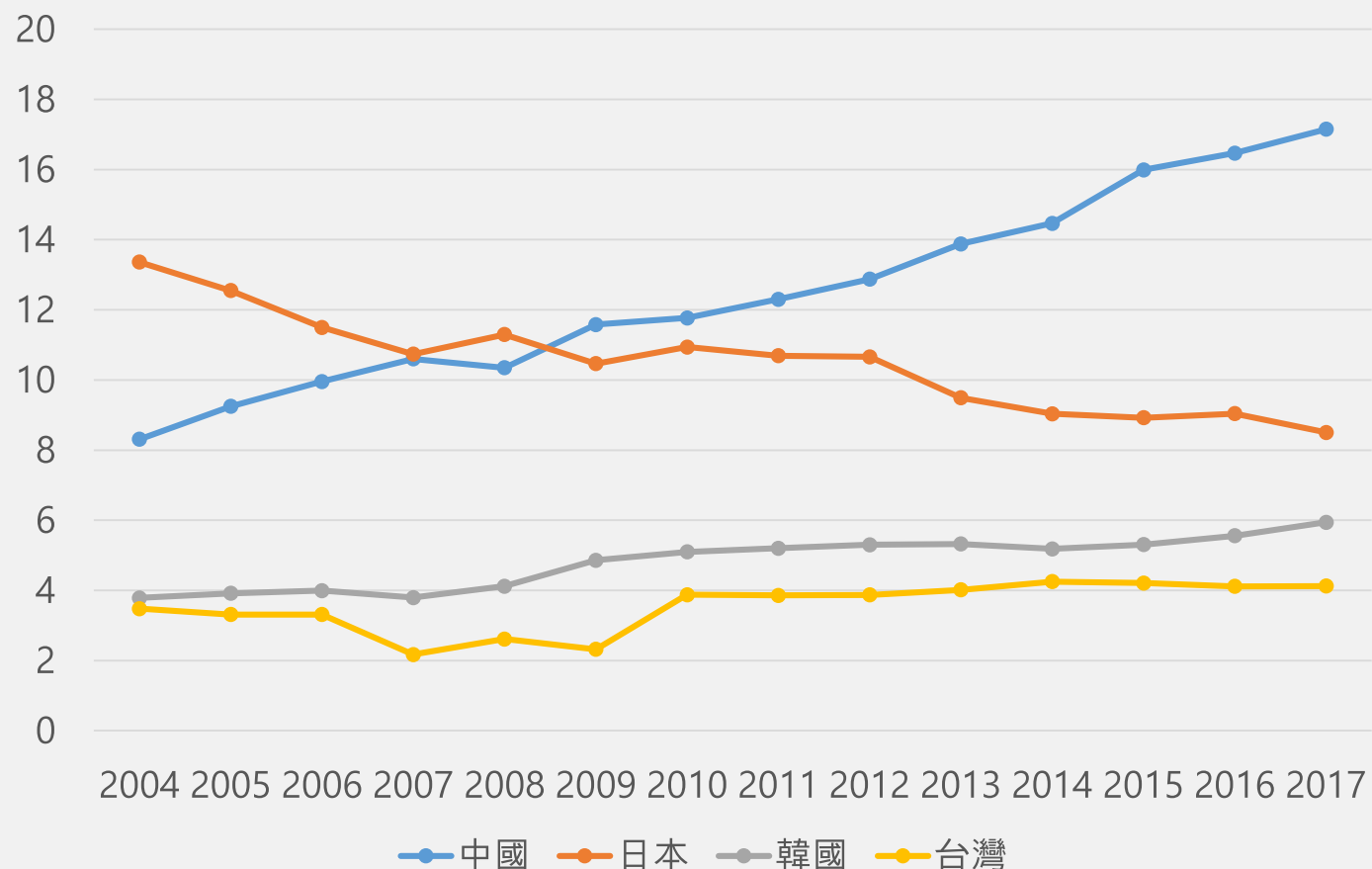
III 韓中-ASEAN經貿關係

- 截至2017年，韓國對東盟的出口額為952億美元，占出口總額的16.6%，順差超過400億美元。
- ✓ 韓-ASEAN FTA後交易規模增至2.1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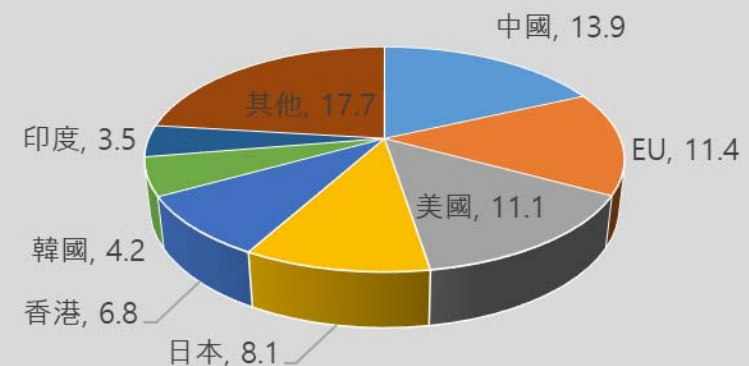
III 韓中-ASEAN經貿關係

ASEAN進出口主要交易對象國(比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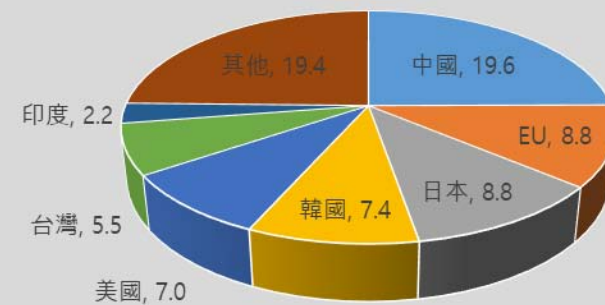


Source: ASEAN Secretari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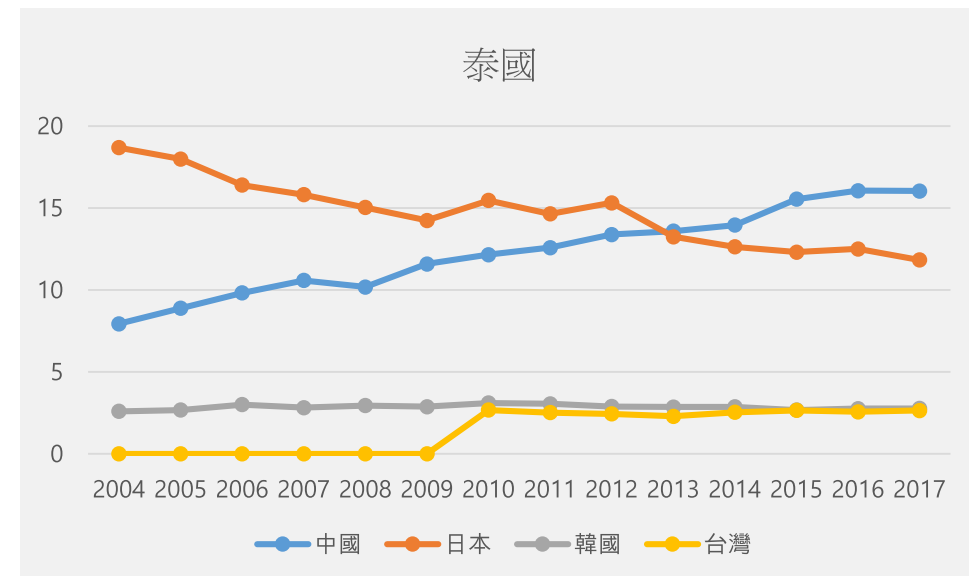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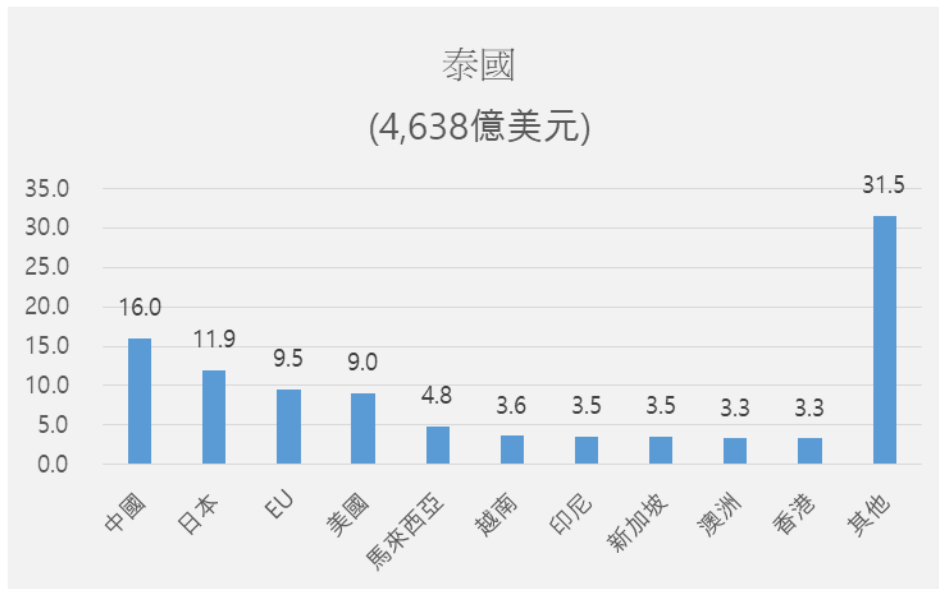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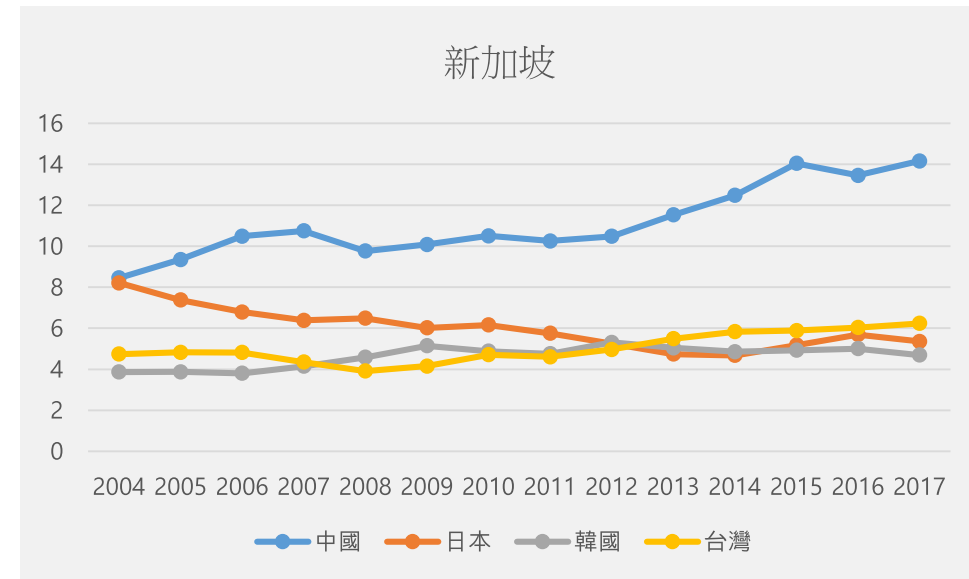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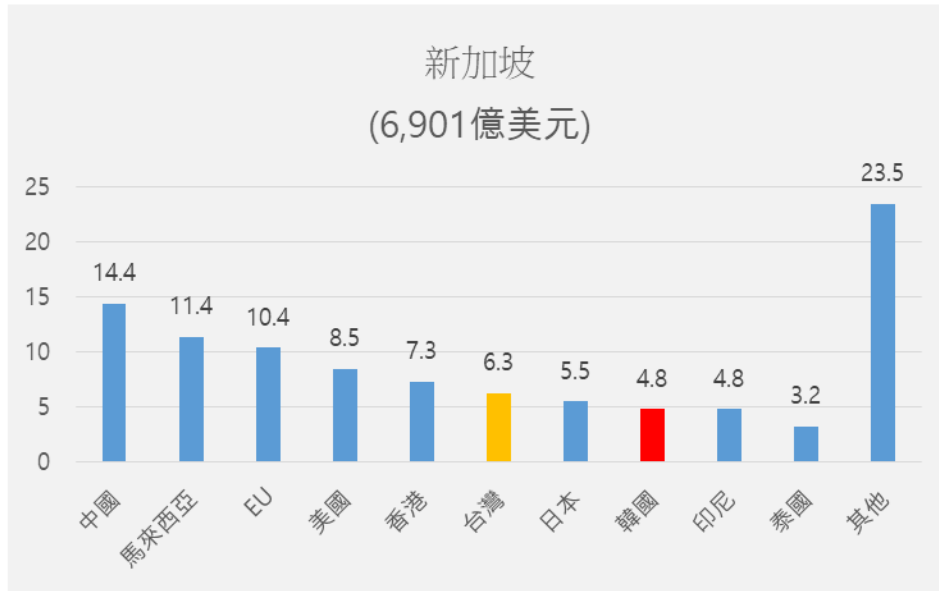
ASEAN出口對象國比重(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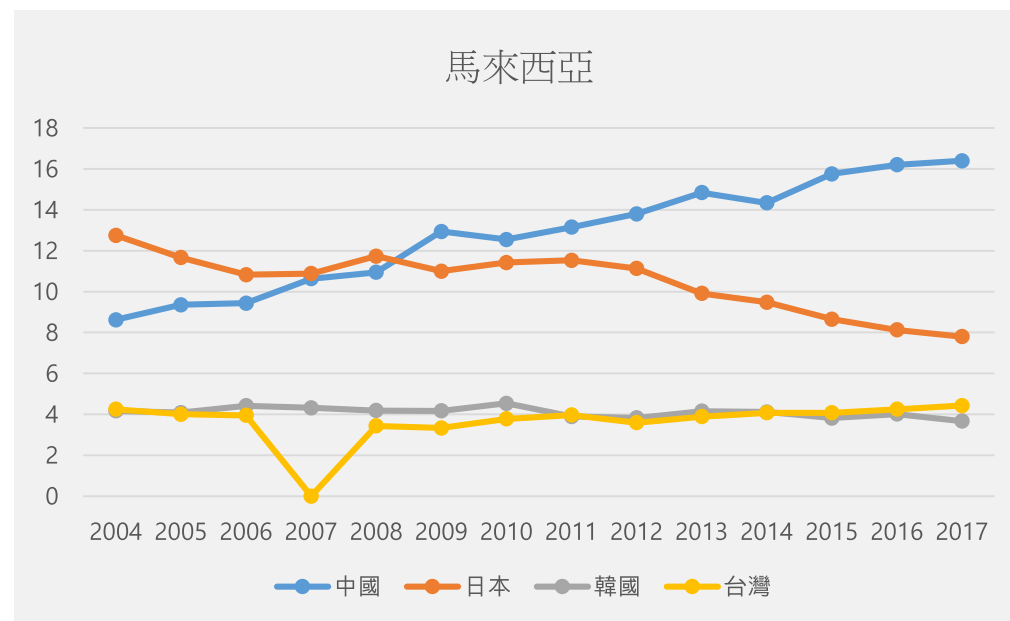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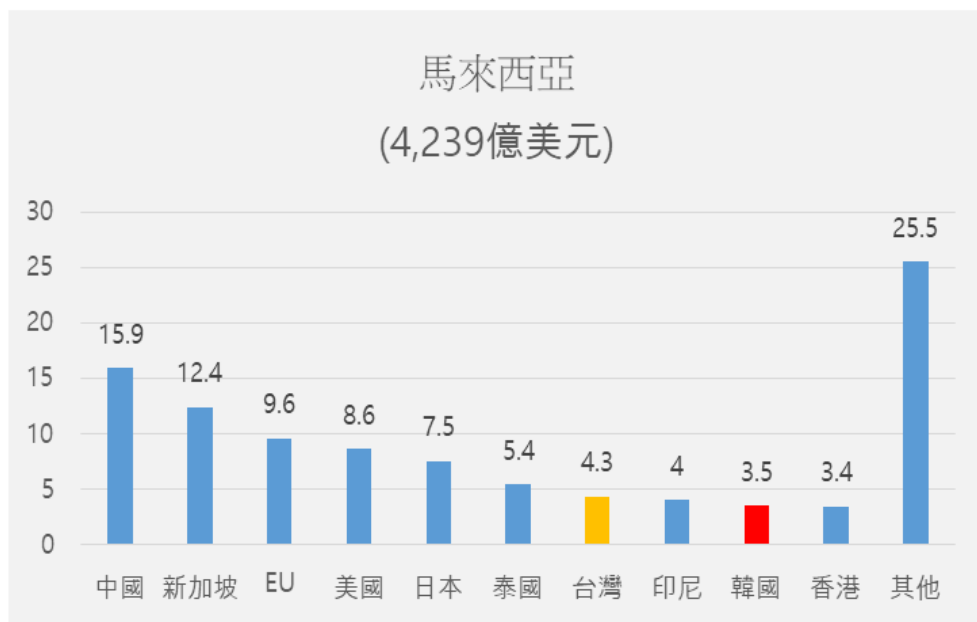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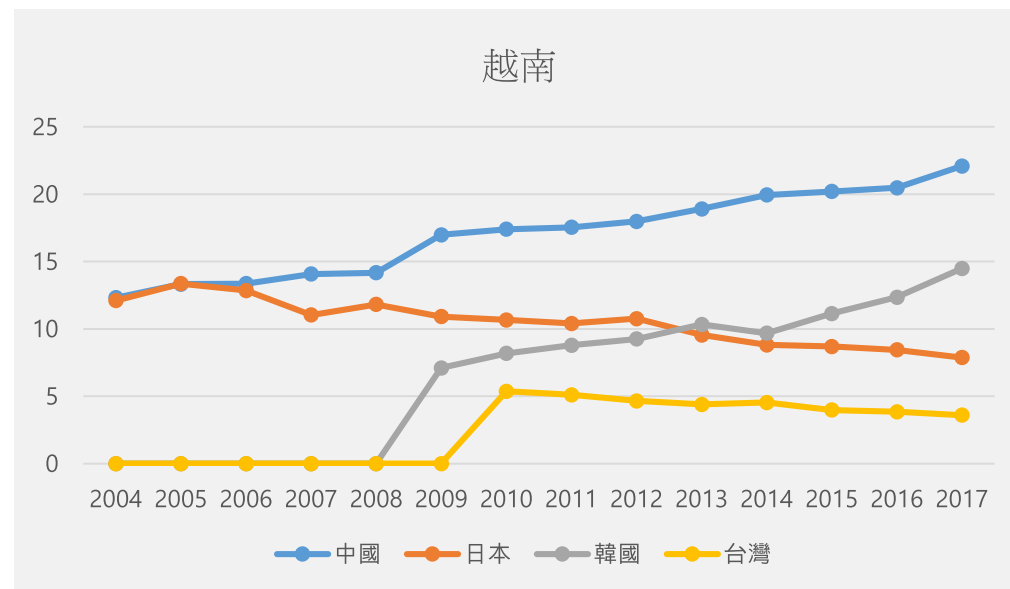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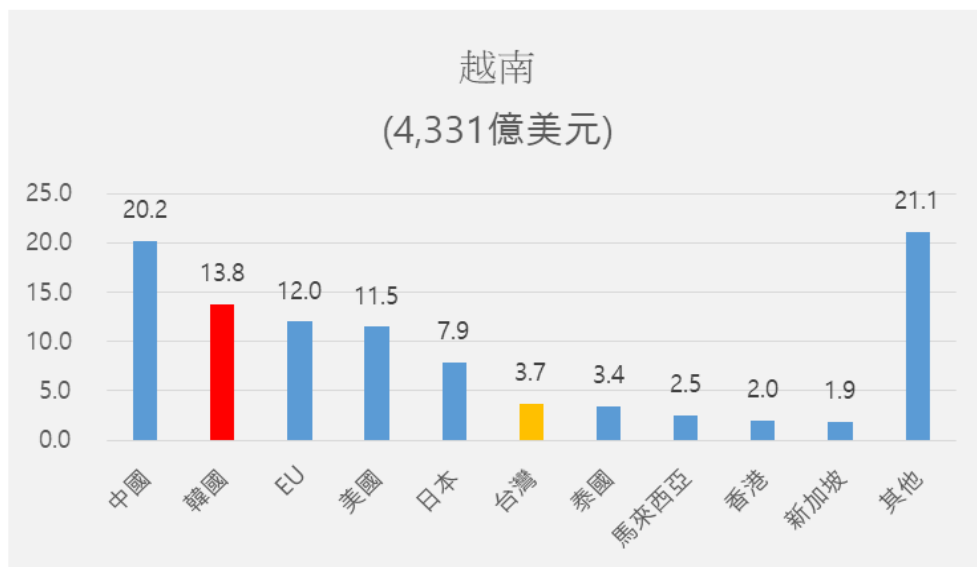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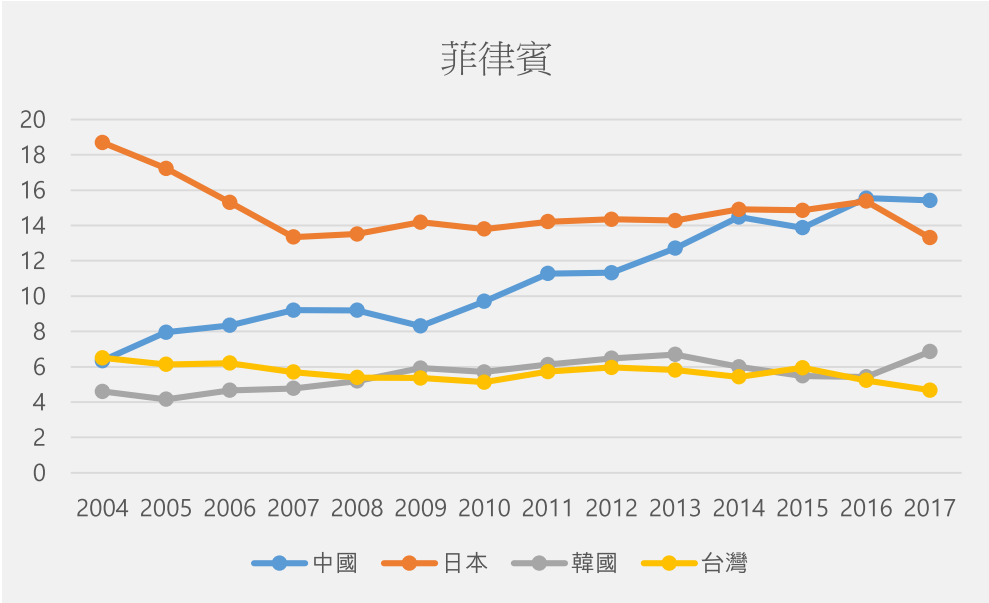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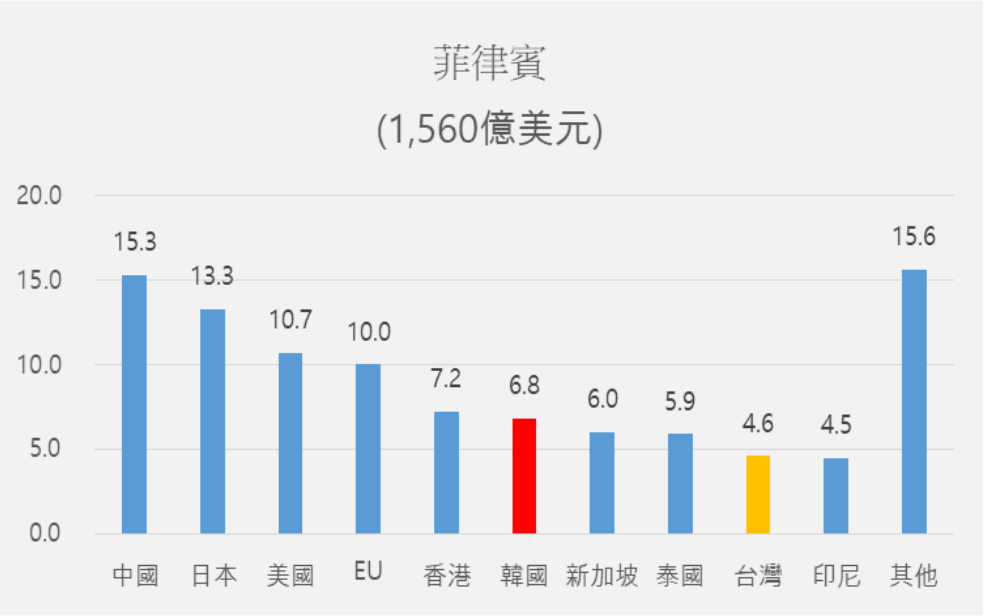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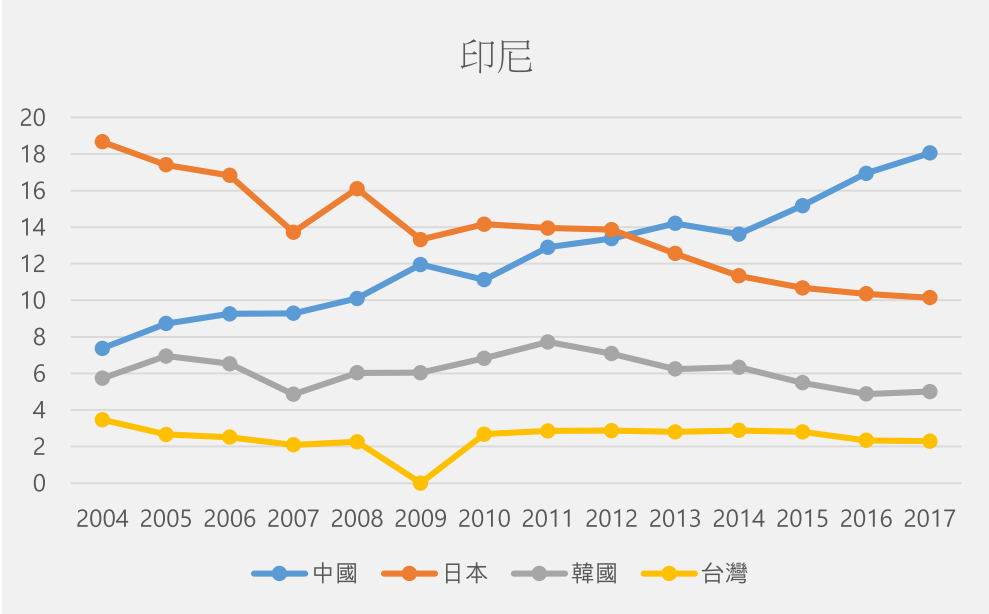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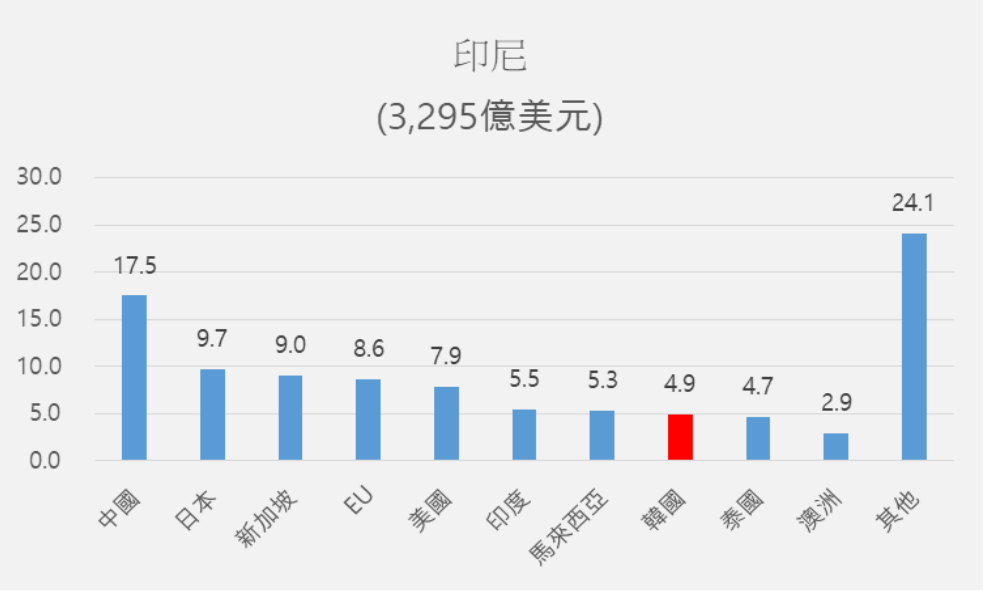
ASEAN進口對象國比重(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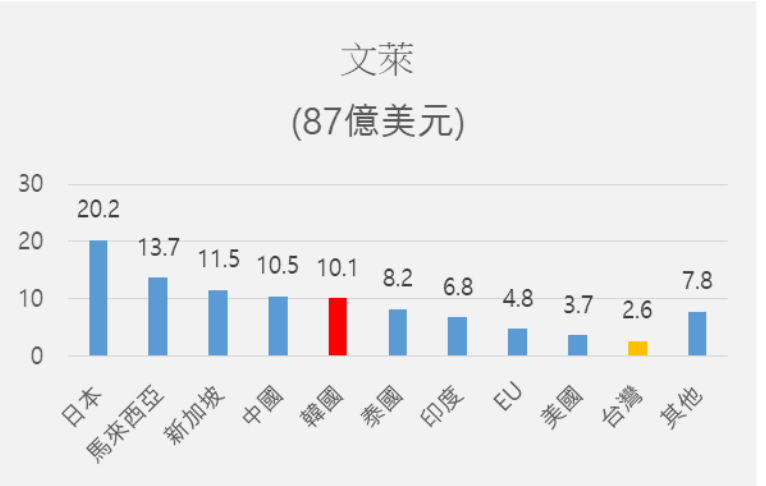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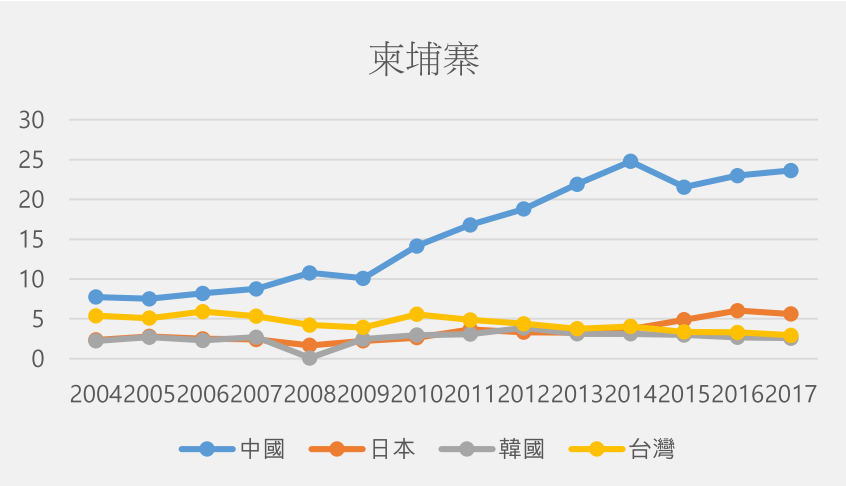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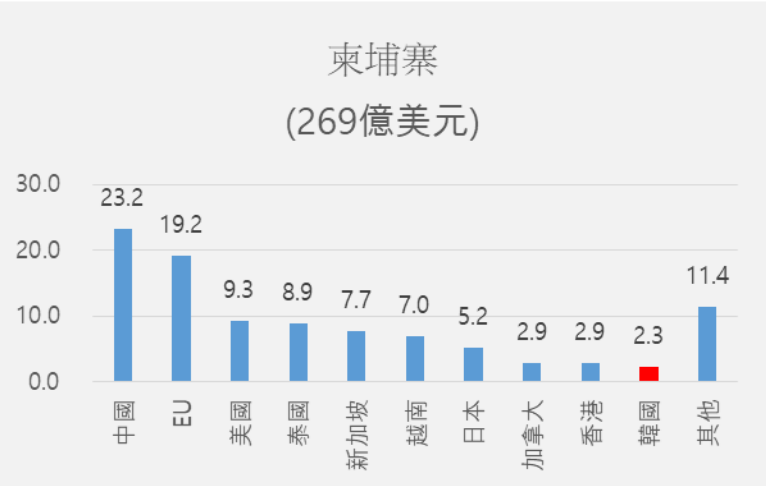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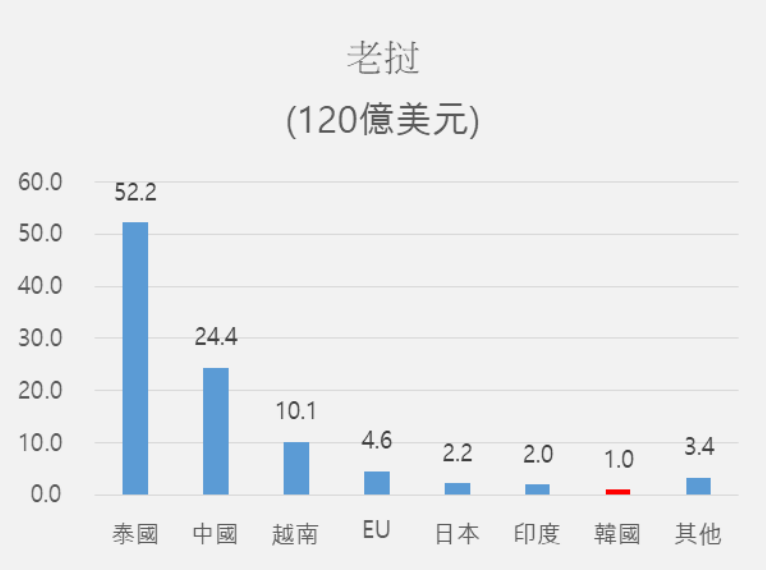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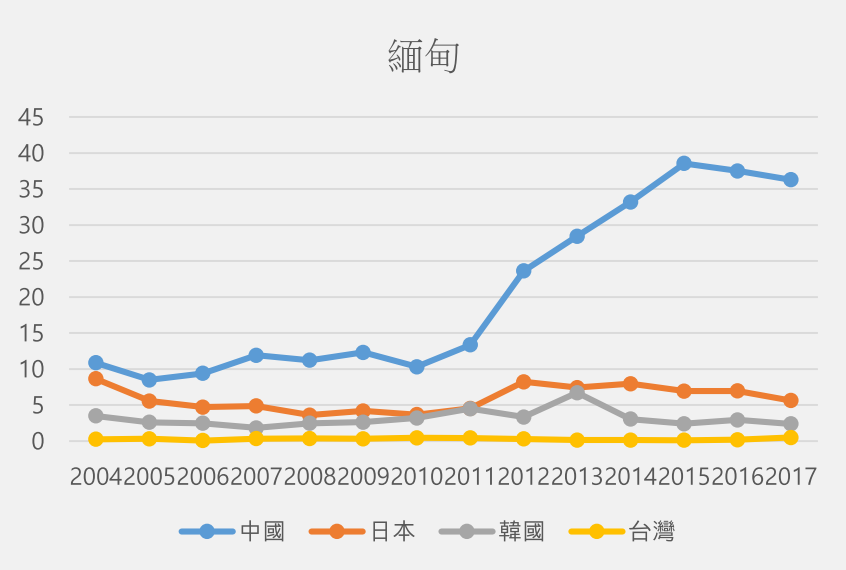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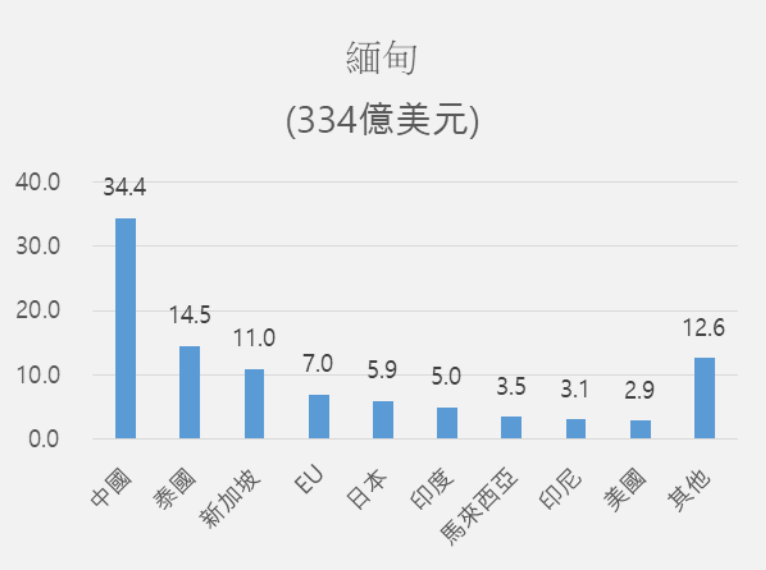
➤ 因個別國家條件不同, 合作重點對象國不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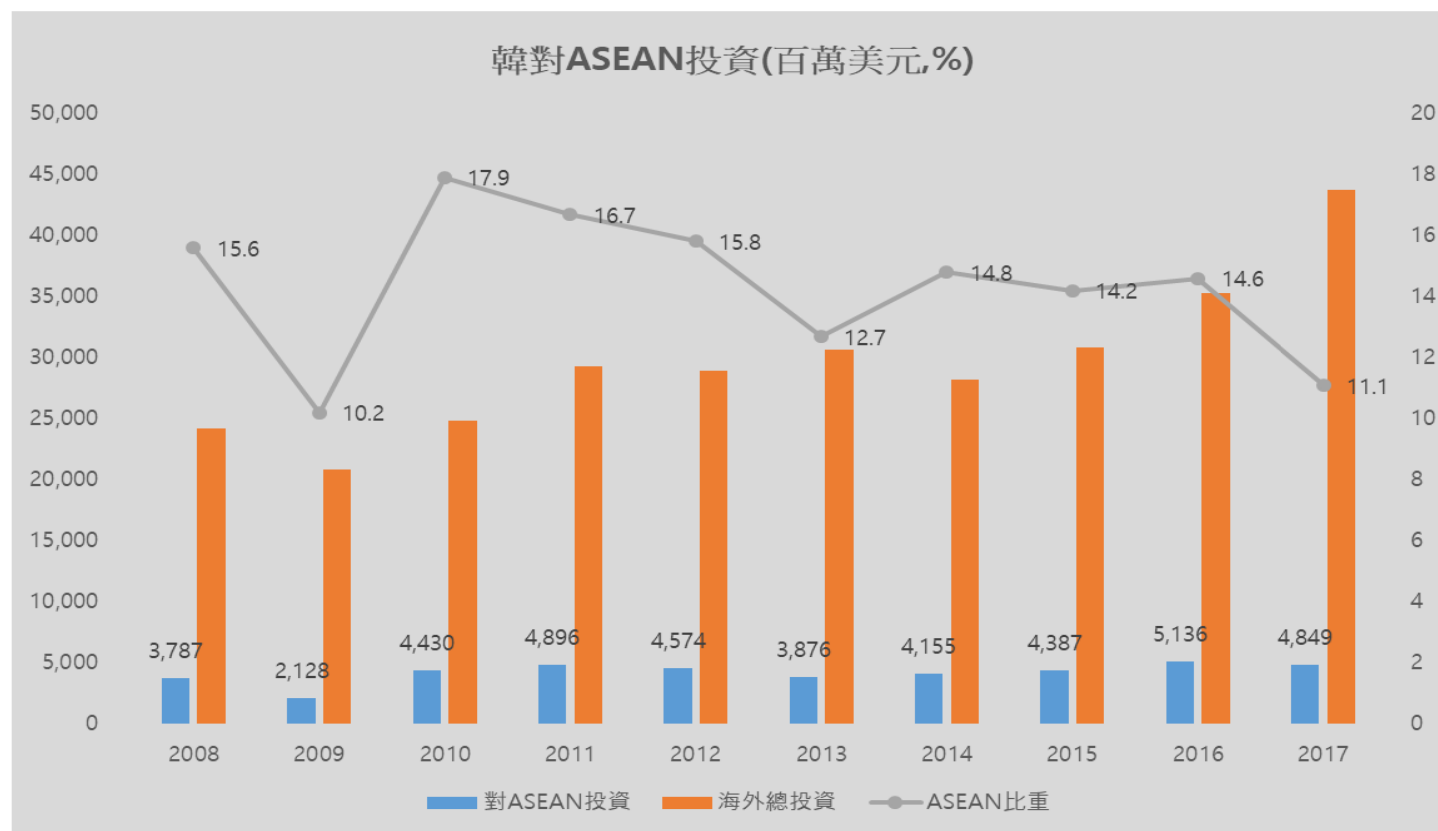
Source: ASEAN Secretariat



Source: ASEAN Secretariat

III 韓中-ASEAN經貿關係

- 韓對ASEAN投資小幅增長(2008年37.9億美元->2017年48.4億美元)
- 2017年, 韓對ASEAN投資約49億美元(占比11.1%, 中日各103億美元, 220億美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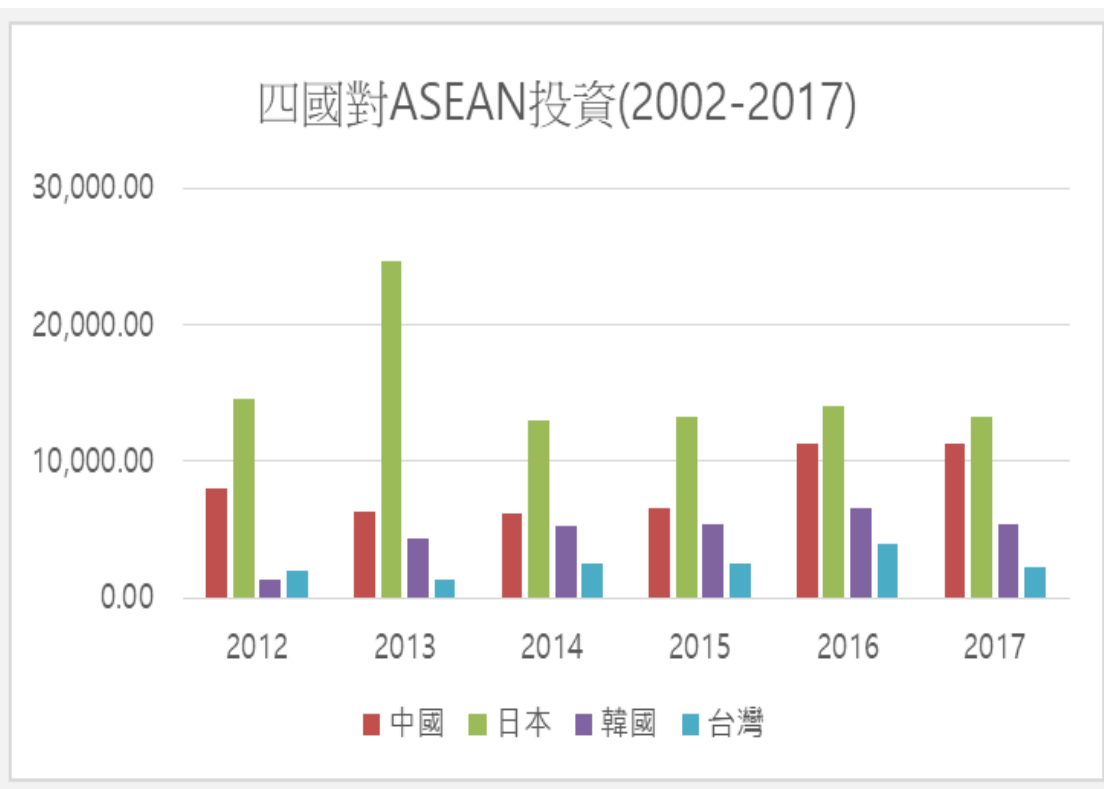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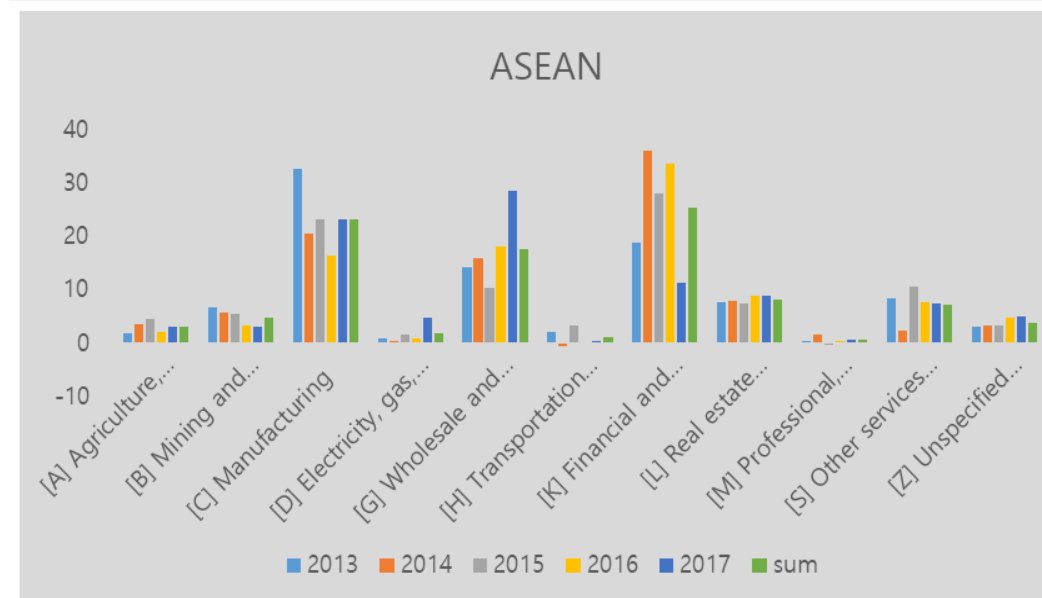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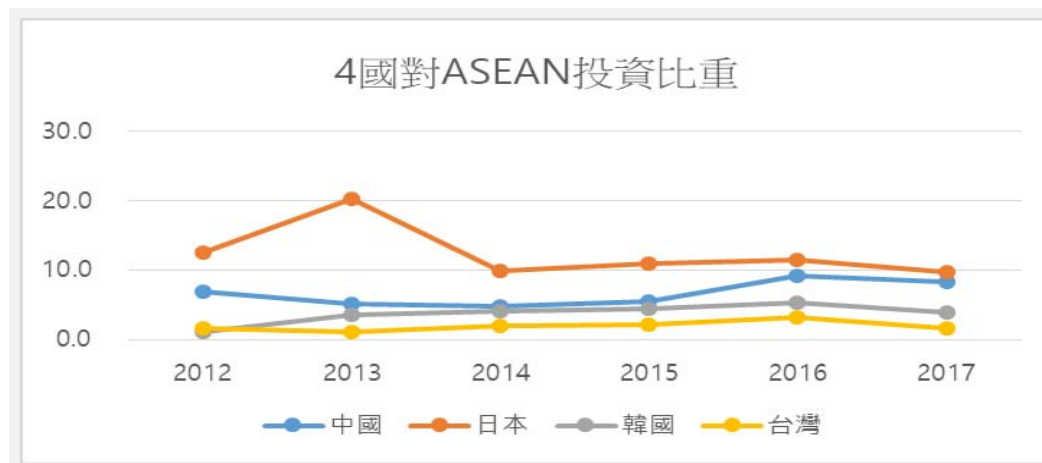
Source: ASEAN Secretariat

2017年	法人數	投資額(百萬美元)
越南	709.0	1,955.0
新加坡	100.0	1,022.0
印尼	89.0	669.0
馬來西亞	41.0	408.0
緬甸	61.0	278.0
菲律賓	48.0	217.0
柬埔寨	27.0	137.0
泰國	62.0	105.0
老撾	6.0	57.0
汶萊	2.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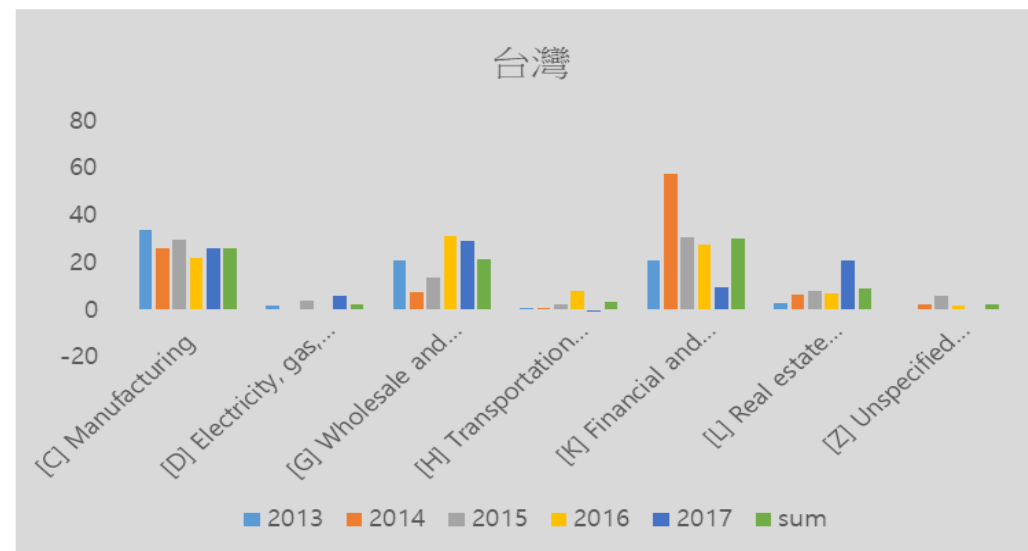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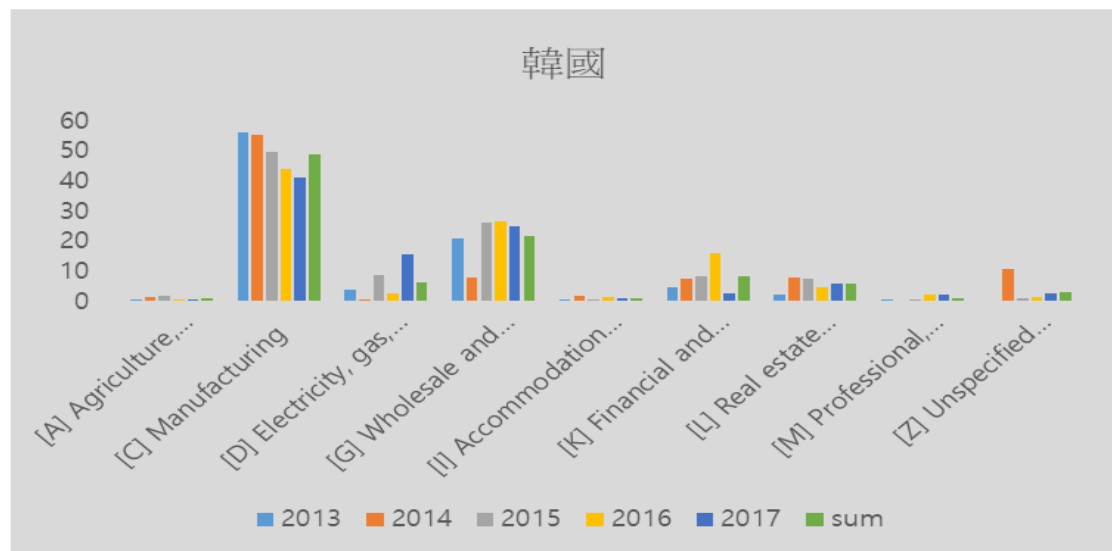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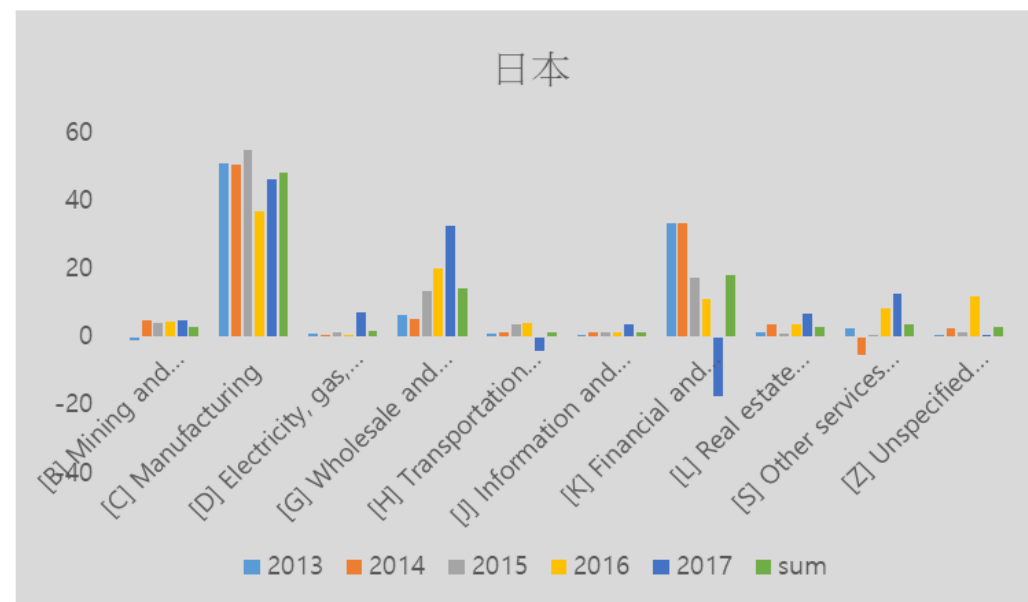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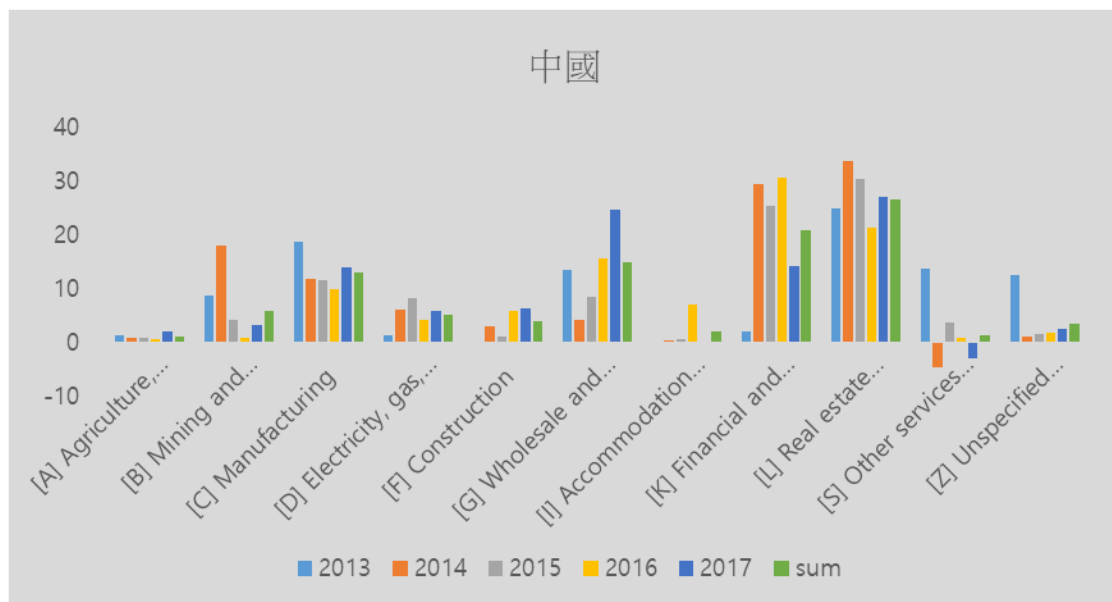
Source: 韓國進出口銀行

III 韓中-ASEAN經貿關係

- ASEAN為韓中日企業的重要投資舞台
- 垂直型FDI占主導地位，市場導向FDI逐漸擴大
- ✓ 區域內產業轉移; 13-17年服務業份額(58.8%→64.7%)



Source: ASEAN Secretariat



III 韓中-ASEAN經貿關係

➤ 20年來, 韓國對ASEAN ODA援助達39億美元(無償: 16.3億美元, 有償: 23億美元)

✓ 2016年日本對ASEAN ODA援助約35億美元

	1987-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累積總額
ASEAN	708.7	148	163.8	166.5	234.7	325.6	379.2	435.5	413.3	505.8	450.7	3,931.8
老撾	33.7	17.9	11.6	25.1	27.7	33.5	23.5	27.1	28.9	88.2	37.7	354.9
馬來西亞	4.2	0.6	1.2	1.1	1.7	1.9	0.4	0.1	0.3	0.5	0.4	12.4
緬甸	88	2.4	6.7	4	5.5	7.9	9	14.8	25.4	23.9	47.3	234.9
越南	199.6	28.4	58.6	62.2	101.2	146.4	207.6	242.5	186.8	225.9	185.4	1,644.6
印尼	200.2	31.2	23	31.7	28.2	31.7	44.5	39.2	29.6	46.6	50.5	556.4
柬埔寨	93.3	35.3	34.7	17	37.3	62.2	58.1	63.8	72.5	69.5	57.3	601
泰國	18.7	2.1	1.9	2.3	2.5	4.5	2.9	3.3	3.4	4.7	8.8	55.1
菲律賓	70.9	30	26.2	23	30.6	37.6	33.1	44.6	66.4	46.5	63.3	472.2

Source: OECD DB

IV 政策評價：新南方政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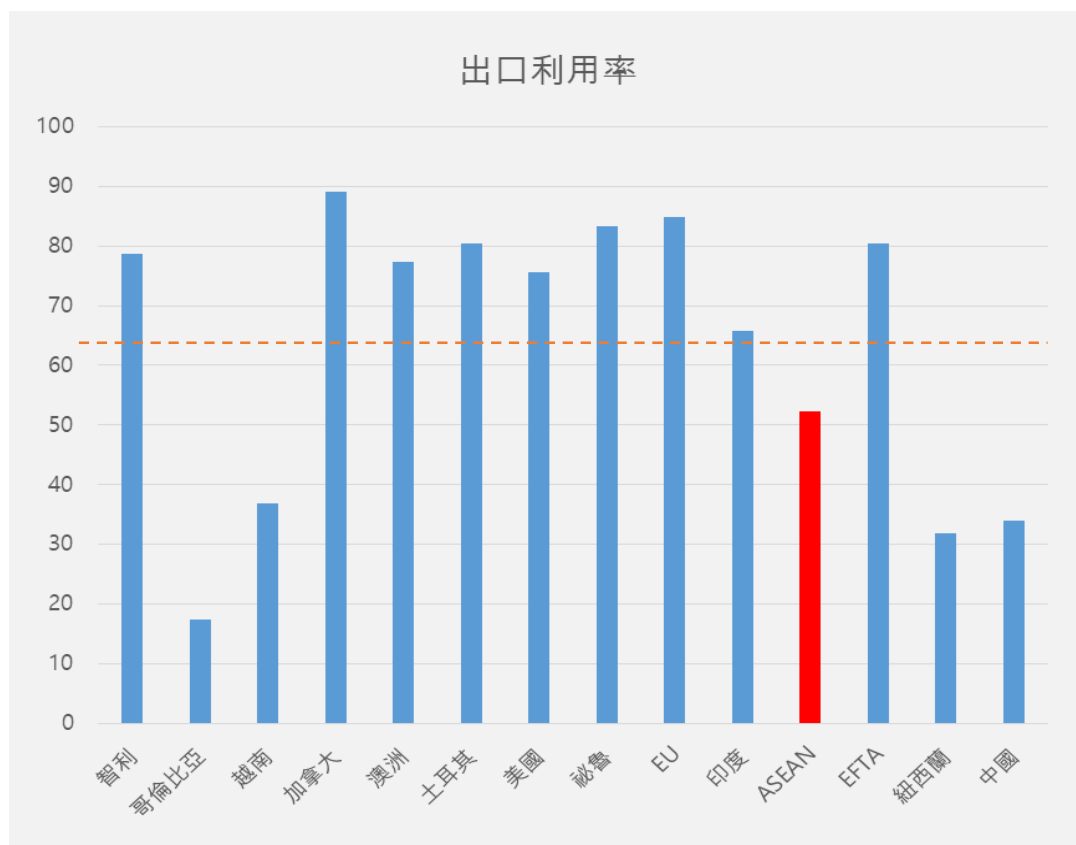
- “新南方政策” 做為 “均衡外交” 的大佈局下具有戰略性意義，將會對韓國的經濟外交方向產生較大的正面影響
- ✓ 過去對ASEAN採取暫時且零碎的做法，ASEAN政策並不是外交議程上的核心問題，很難積累長期成果，也沒有給予ASEAN對韓國的信心。
- ✓ “新南方政策” 通過加強與該地區各國的網絡，可加強韓國的外交地位增強韓國在大國中的自主和發言權
- 然而，“新南方政策” 尚未完善，需要可持續的中長期藍圖
- ✓ 已宣布的3P構成了新南方政策和對ASEAN政策的上層原則，但還處於抽象階段
- ✓ 基於外交多邊化和加強韓國的戰略槓桿，需要具體的，有系統的，可持續的中長期藍圖

IV 政策評價: 新南方政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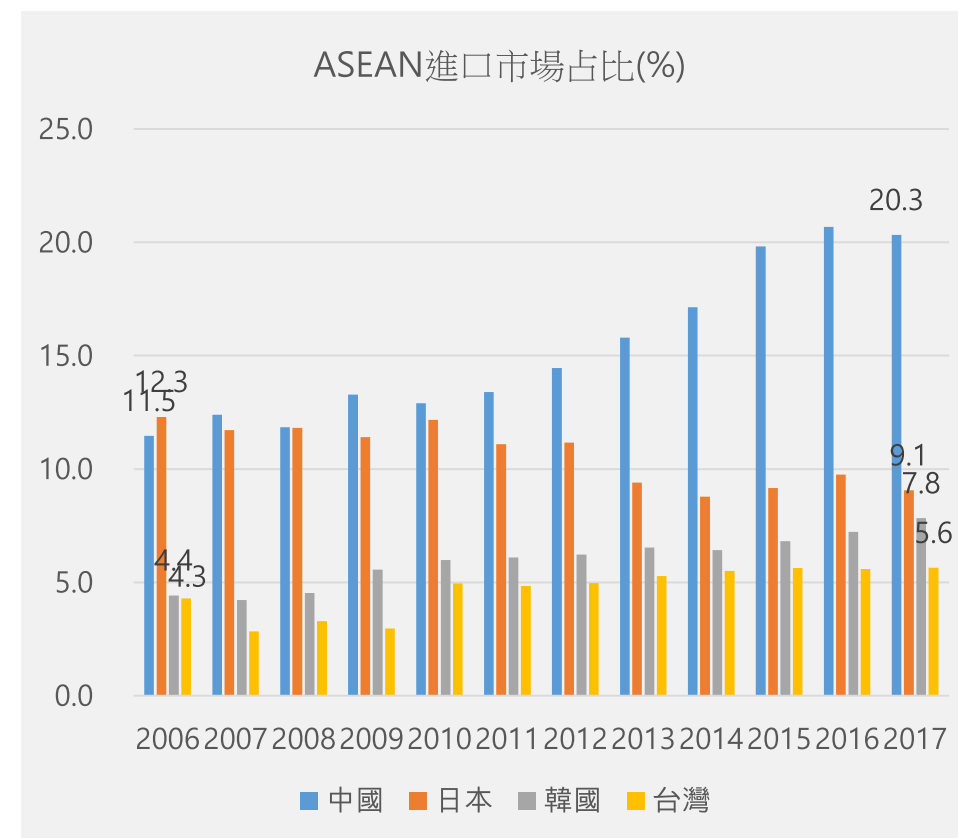
- 作為一種分散經濟風險的措施，有必要加強與ASEAN的經濟合作，以此作為確保新增長引擎
- ✓作為發展模式, 韓國的規模和發展階段適合**ASEAN**發展中國家的目標, 韓國的經濟實力, 民主化經驗, 文化軟實力也具有吸引力。
- ✓然而， “新南方政策” 方向仍局限於開拓市場框架，過於偏重越南市場
- 2017年對越南貿易金額占整體新南方政策地區之37.8%，占**ASEAN**之42.9%；投資越南之比重亦占**ASEAN**之31.4%；貿易順差，越南亦占33.2%。反之，韓國企業在印度進口市場之市占率僅為3.2%

IV 政策評價: 新南方政策

- 儘管ASEAN市場具有重要意義, 但ASEAN的競爭將加劇
- ✓ 韓-ASEAN FTA利用率較低(2016年的出口利用率為52.3%，低於平均自由貿易區出口利用率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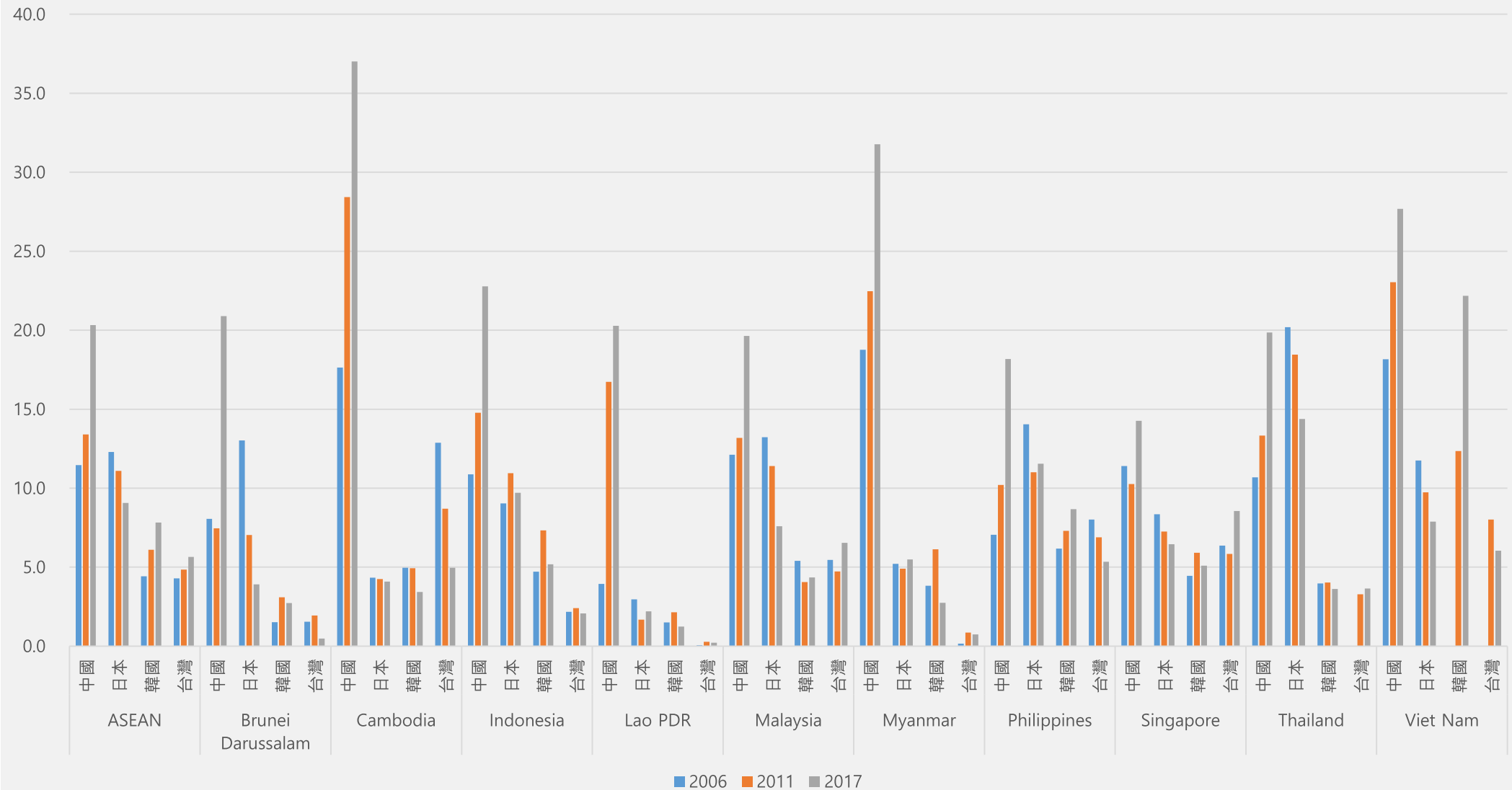


Source: KITA(2016)



Source: ASEAN Secretariat

ASEAN進口市場占比(%)



Source: ASEAN Secretariat

IV 政策評價: 中-ASEAN

- 中國—東協互利共贏的合作發展，在「一帶一路」建設中正發揮著領先和示範作用
 - ✓ 中國和沿線國家的貿易總值增長速度高於全國對外貿易增速3.6個百分點，
 - ✓ 對「一帶一路」沿線國家直接投資156億美元
 - ✓ 截止2018年底，國家開發銀行、中國進出口銀行在沿線國家貸款餘額約2500億美元
 - ✓ 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在沿線國家累計實現保額6000多億美元
 - ✓ 中國—東協共同舉辦的中國—東協博覽會和中國—東協商務與投資峰會，每年都將「一帶一路」作為其主題，為共建海上絲綢之路搭建了重要平台
 - ✓ 中國實施的海南自由貿易港建設、粵港澳大灣區建設等都給「一帶一路」中的中國與東協合作注入了新的活力

IV 政策評價: 中-ASEAN

- 然而,中國與“一帶一路”沿線國家之間缺乏政治信任，以及其他國家的不穩定和安全威脅，是相當大的障礙
- ✓“一帶一路”沿線國家中有近三分之二的主權信用等級低於可投資等級
- ✓2017年底由於中國強硬的融資條件，讓巴基斯坦、尼泊爾和緬甸3國確定取消或擱置與中國企業合作的3大水力發電工程
- ✓截至2017年底，與中國取消工程的國家包含巴基斯坦、尼泊爾、緬甸、斯里蘭卡、孟加拉、印度、寮國和泰國
- ✓中國近年來在對外關係上採取積極與強勢作為，引起周邊國家之反彈

V 啟示點

➤ 需要擺脫零和遊戲視角

- ✓ 隨著中美的韓國戰略發生巨大變化, ASEAN被認為是實現經濟合作目標多邊化的最有可能的候選人
- ✓ ASEAN不是一個獨立完成的經濟區域，它似乎與韓中日一起形成的東亞經濟體系
- ✓ 因此，近期中國和ASEAN的貿易和投資集約化可以看作是東亞分工的深化和ASEAN市場的成熟, 在這種情況下，韓國應該考慮如何以互利的方式與東南亞合作

V 啟示點

➤ 韓中藉互補關係尋找加強經貿合作途徑

- ✓ 韓國在ASEAN市場被中國的價格競爭力和融資能力以及日本的技術實力和品質之間萎縮
- ✓ 在ASEAN掀起反中國情緒的擴大表明，韓國政府和企業在當地投資和基礎設施項目中遵守勞工和環境標準將更為重要，在ASEAN競爭“聲譽”將格外重要
- ✓ 韓中尋找共識支持參與東盟市場，並在經貿、產能與建設上合作，藉此實質強化與東盟的產業與經貿關係
- ✓ 基於與中日合作經驗，需要加快共同開拓包括ASEAN在內的第三方市場：產業園區；基礎建設；金融；高新技術領域尋找合作模型

謝謝

중국의 새로운 대북한 전략: 소프트파워 전략(?)

목차

1.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관련 연구 흐름
2.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강화 과정 회고
3. 중국 대북 전략의 새로운 단계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홍원표 (충남연구원)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관련 연구 흐름

- 01. 북중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
- 02. 학문적 거리 유지의 곤란
- 03.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에 대한 시각

■ 지경학적 접근: 중국의 변경 인프라 중시

동북진흥계획, 창지투계획, 일대일로, 경제 특구 등
중국의 개발계획과 북한의 연계에 초점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우려와 북한 개방 촉진 양면성 강조

■ 국제정치학적 접근: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일·중·러의 각축

핵실험, 미국의 중국 압박, 중국의 북한 영향력, 한반도비핵화
중국의 대북 핵개발 영향력 중심
북한 핵을 둘러싼 UN제재와 중국의 이중적 태도 중심

■ 체제전환론적 접근: 중국, 베트남, 북한의 비교

북한 체제개혁에 대한 관심 위주
체제전환 경제와 북한과의 비교 연구 중심
중국의 북한 영향력에 관한 북한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중심

■ 국내 정치와 밀접한 상호작용

국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남북경협 중요성 증대
남북경협은 대선, 총선 등에 영향
대북 노선 둘러싼 정당 간 극명한 이데올로기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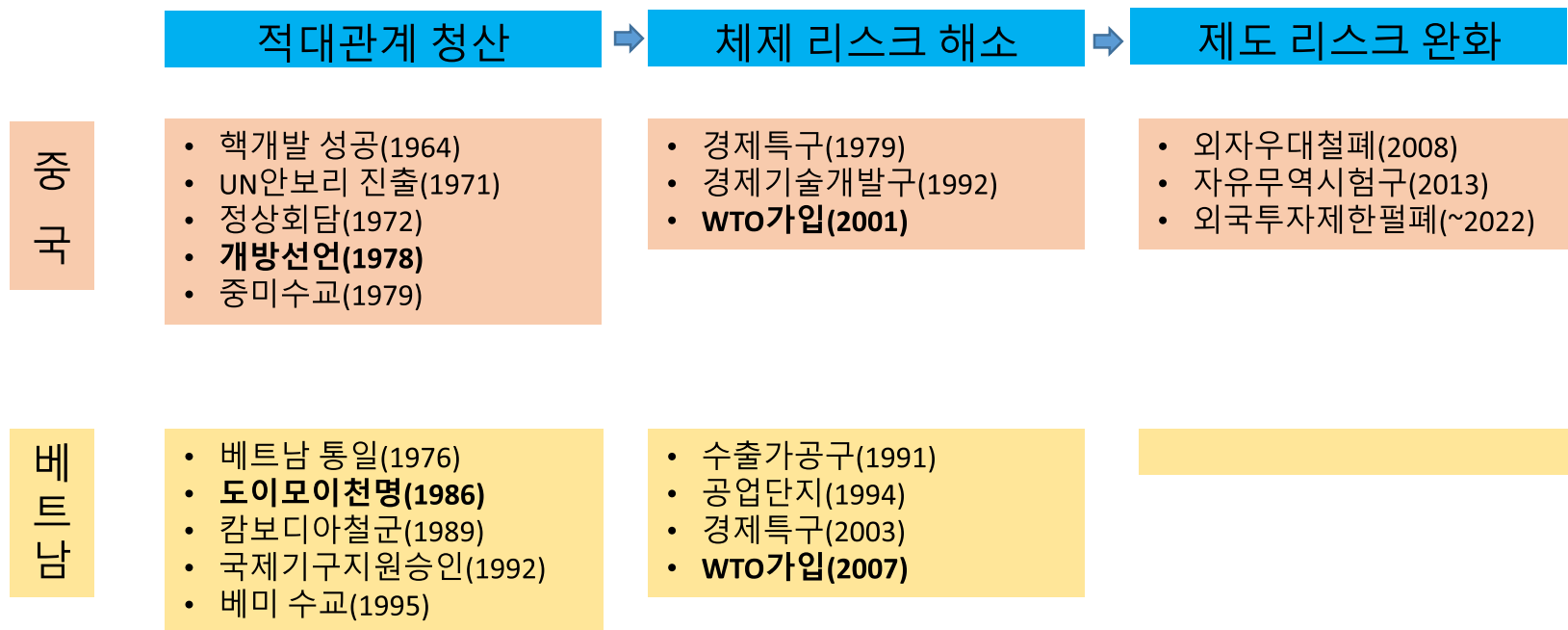
■ 급변하는 국제 정세

전쟁 불사론(2017) → 남북/북미정상회담(2018) → 북미실무회담 결렬, 북한의 강경 선회(2019)
변화를 좇는데 급급: 학문적 분석보다 시사 해설 접근

■ 북한 노선의 유례 없는 특이성

동구 사회주의국가들, 중국, 베트남과는 또다른 길
선행 사례의 준거 가치 약화

- 북한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중국의 1960년대 (1964~1971)
 - 베트남의 1980년대 (1986~1992)



[그림]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방 과정

■ 북한의 전략적 선택 시각

일본 중시 → 한국 중시 → 중국 중시 →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 위해 다각도로 협상대상 저울질

북한의 주도성 강조

■ 중국의 전략적 선택 시각

중국의 대외전략, 동아시아전략, 한반도 전략 등 각도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강화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중시

■ 국제 패권 시스템 시각

한미일 동맹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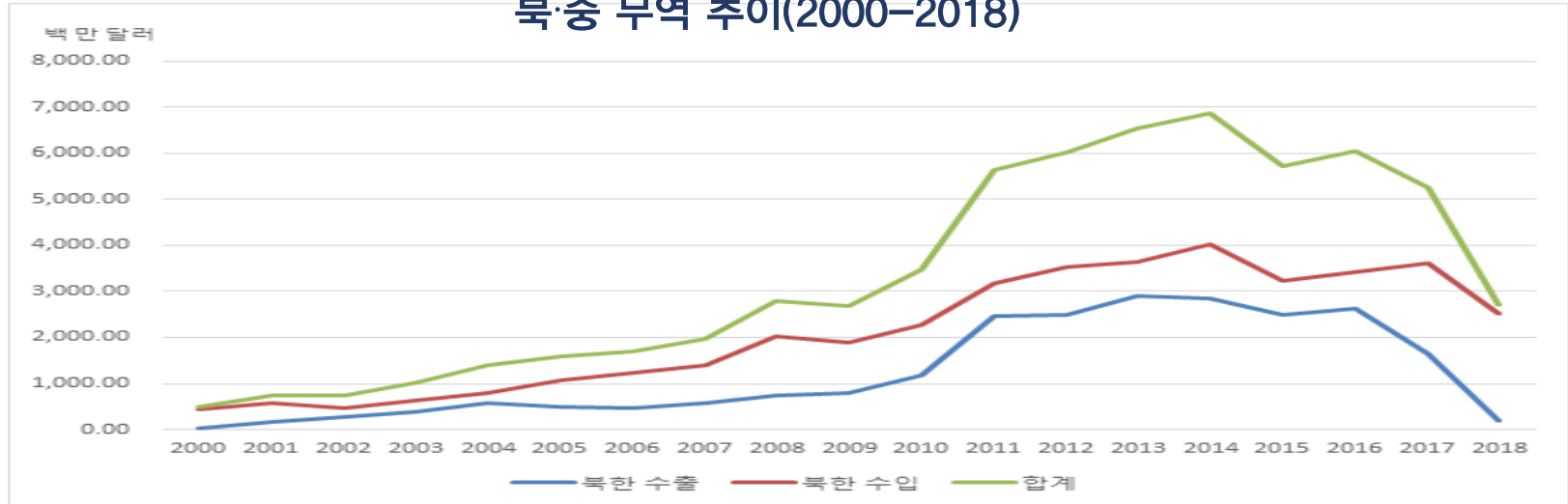
중국의 자체 결정보다는 상황에 따른 결과로 이해

국제 패권 시스템에 대한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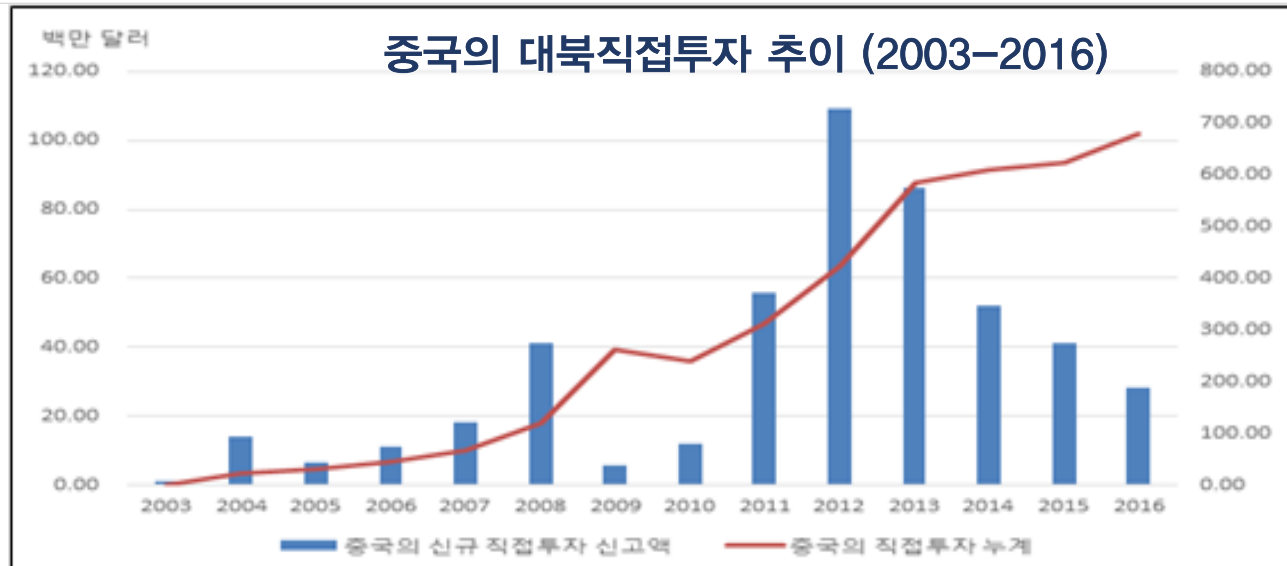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강화 과정 회고

- 01. 전 과정(2002-2016)의 리뷰
- 02. 중국의 대북 영향 강화의 결과
- 03. 시기 구분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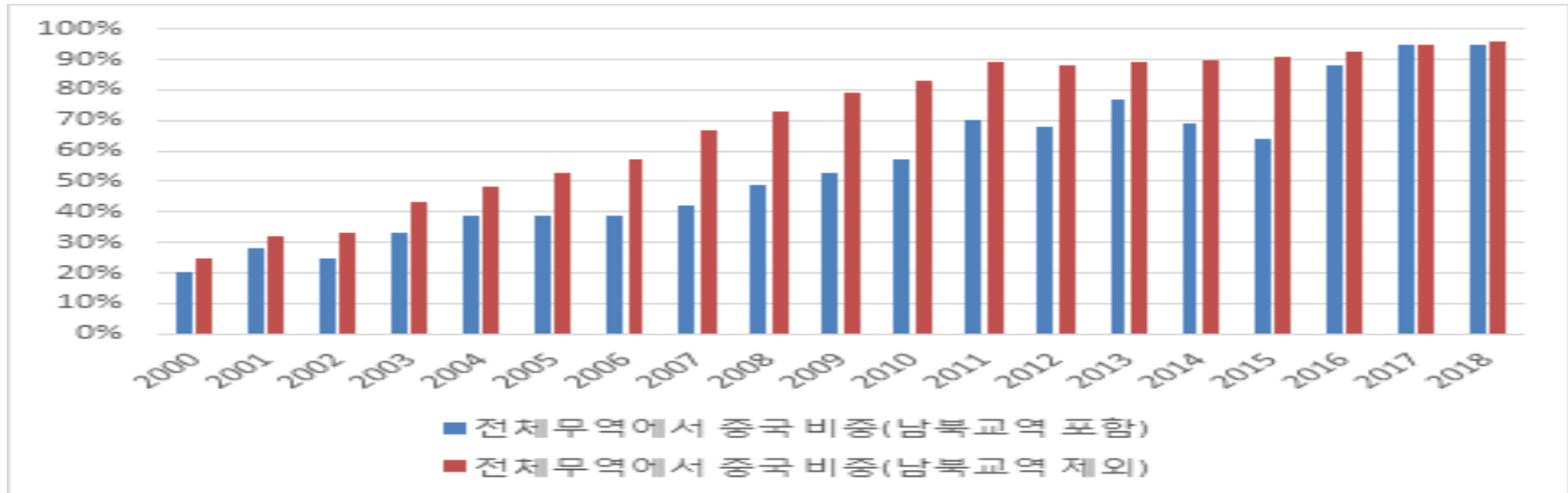
북·중 무역 추이(2000-2018)



중국의 대북직접투자 추이 (2003-2016)



■ 중국에 대한 극단적 무역 의존: 95%



■ 북한경제의 인민폐化

구분	화폐개혁 이전(2006-2009) 탈북		화폐개혁 이후(2010-2014) 탈북	
	국경지역	非국경지역	국경지역	非국경지역
북한화폐	76.7	71.8	42.1	61.3
위안화	22.1	5.7	57.4	8.6
달러화	1.1	22.5	0.5	30.1

- **북한의 전략 변화에 대응한 중국의 전략 변화를 시기 구분 기준으로 삼아야 함**
 - 북한의 전략 변화가 중국의 대북 전략 변화를 추동
 - 북한의 (정치적) 자주성에 대한 인정
 - 중국과 북한 역량의 비대칭성에 대한 인정
- **북한의 전략 변화**
 - 7.1조치(2002): 선군정치下 북한 개혁개방의 본격화 신호
 - 경제·핵 병진 노선(2013): 핵보유 의지 공식화
 - 경제건설 총력집중(2018): 핵보유 완성, 경제건설에 집중

구분	강화 단계	소강 단계		새로운 단계(?)
		정체 단계(1)	정체 단계(2)	
시기	2002	2013-2016	2016-2018	2018~
북한 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 조치 신의주 특구 지정 개성공단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핵 병진 노선 북한 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6, 7차 핵실험 SLBM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건설 총력 집중
중국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급증 투자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정체 투자 급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급감 투자 정지 	
국제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북핵위기(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북핵위기(2016~현재) 	

중국 대북 전략의 새로운 단계

- 01.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전략
- 02. 중국 대북 전략 관련 3가지 매개 변수
- 03. 중국의 신 대북 전략: 소프트파워 전략
- 04. 최근의 진전상황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채택(2018.4.2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 경제 · 핵 병진 노선(2013.3)의 역사적 과업 마무리 선언
 -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제시
 -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대내외 인정 요구
 - 북한정권 수립 이래 군사 우선 정책의 최초 폐기
- 북한의 전략 변화
 -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경제사업 우선시
 - 비핵화 참여 선언
 - 인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풍요’ 비전 제시

- 일대일로로 진화
 - 초기 초국경 인프라개발 전략에서 중국의 대외전략으로 진화
 - 신형외교관계(동맹), 운명공동체의 강조
 - 동북3성의 경제발전의 요구 수용
- UN대북 제재
 - 중국의 UN대북 제재 참여
 - 3차 북핵위기에서 중국의 역할 모호: 1차위기는 북미직접협상, 2차위기는 6자회담
 -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기여 압박
- 북한 개혁개방 모델 이슈
 - 김정은의 베트남 모델 추진 언급 → 서방세계에 대한 경도 우려
 - 한국의 중개자 역할에 대한 견제
 -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 성과: 무역,투자,인프라 및 경제의 인민폐化

-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전방위 강화
 - 무역, 투자, 개발 등 하드파워의 공세적 추진
 - 이데올로기, 정책, 문화 등 소프트파워 강화 추진
- 북한의 핵 위협의 거세
 -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과 경제건설 지원 약속
 - 북핵 동결 내지 축소 유도 → 동북아 영향력 확대
- 북한의 중국화, 흡수 전략 준비
 - 북한사회의 중국화 겨냥
 - 일대일로 '운명공동체'의 적용

- 중국인 대북 관광 확대
 - UN대북 제재 예외조항 이용, 무역, 투자를 대신한 외화 공급
 -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별 관광 추진
 - 제2차 북중 정상회담(2018.5) 이후 중국 관광객 폭증
 - 2018년 북한 외국 관광객 20만 돌파, 중국인 90% 차지
 -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 훈춘 샤튀즈(沙陀子) 통상구 국가급 승격(2018.10-11월)
 - 김정은, 평남 양덕군 온천지구 시찰시 남측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2019.10.25)
- 일대일로의 공세적 추진
 - 나진선봉, 신의주 특구 공동개발 추진 준비
 - 김정은 3차북중회담 후 최초 행선지 신의주 신도군(황금평) (2018.7)
 - 삼지연군, 자강도 등 북중접경지역 집중 시찰
 - 단종-신의주-서울-부산 한반도 종단 고속철 추진(2018.10, 랴오닝 일대일로종합시험구 계획)

- 항공, 해운 노선 다변화
 - 북중 항공 노선 증편 및 확대
 - 베이징-평양 증편, 선양~평양 증편(2019.4)
 - 따렌~평양 신설(2019.7)
 - 산둥 옌타이-남포 노선 MOU 체결(2019.3)
 - 따렌~남포, 옌타이~남포 독점운영권 중국 해운사에 부여
- 문화, 정책 등 협력 강화
 - 전국 최초 평양 공자학당 설립 MOU(2019.9), HSK센터 평양 개소(2019.5)
 - 평양예술단 베이징 공연 재개(2019.10)
 - 라오닝-평안북도 협의(2019.11)
 - 인적·무역 왕래 지속, 농업 교류협력, 민생영역 교류, 적극적 관광협력 협의
 - 전염병 예방 통제 교류협력 메커니즘 합의서 체결(단둥시-신의주시)
 - 정부 차원 대북 개혁개방 모델 프로그램 전수 예상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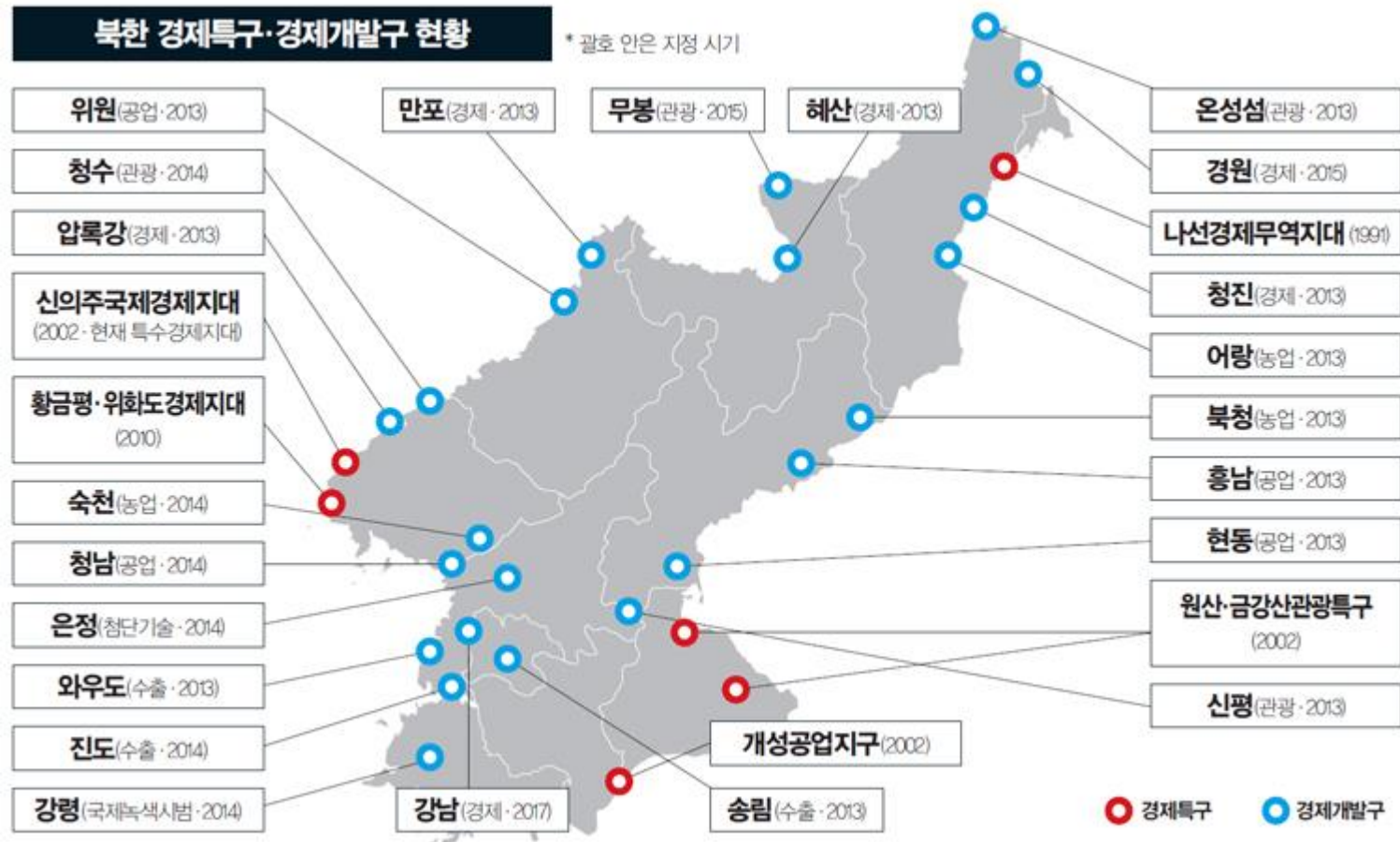
- 01. 북한의 신 단계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 02. 대북교류협력 주체의 다원화
- 03. 대북교류협력의 접경지역 편중 탈피

- 북한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2018년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은 북한의 ‘개혁개방’ 선언
 -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 베트남의 1986년 도이모이에 비견
-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개혁개방에 갖는 의미
 - 미국은 북한의 핵 카드를 받을 가능성: 핵 위협 제거 vs. 중국 견제
 - 중국의 전면적인 북한 흡착 준비: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을까
- 한국의 새로운 대북 전략 수립 필요
 - 남북경협 차원이 아니라 연방제 논의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한반도 전략 제시 필요
 - 한반도신경제구상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구체화
 - UN제재하 남북경협 전략의 돌파구 방법 마련

- 중국의 중앙-지방-민간의 입체적 대응
 - 중앙은 UN제재에 대한 호응
 - 지방은 UN제재 회피: 랴오닝-평북 협력, 개별 관광 허용
 - 민간은 적극 활용: 변경 무역 활성화
- 우리나라의 교류협력의 정부 일변도 탈피
 - 정경분리 원칙의 관철
 -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무대 등장
 - 한상네트워크, 북한 연고기업 남북교류 지원 등

- 중국의 대북 전면 흡착 전략은 경제협력지점의 남하를 의미
 - 북중 접경 지역 위주에서 남쪽으로 진출할 가능성 농후
 - 동북3성의 경제활력 한계도 내부 요인
- 북한의 경제개발구 분포에 유의해야 함
 - 북중접경 1/3, 서해안 1/3, 동해안 1/3
 - 서해안 핵심경제지역인 남포, 평양이 중국의 집중 타깃: 3개 수출가공구 집중
 - 경제개발구는 지방정부의 남북경협 참여의 고리
- 한국의 남북경협의 북진 필요
 - 개성공단, 금강산 편중 타파 필요
 - 해로를 이용한 뽕뽕기식 진출 전략 필요

북한 경제특구·경제 개발구 현황



출처: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http://webzine.nuac.go.kr/>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이후 경제활동의 산업입지 연구를 위한 제언

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신경제지리학적 분석(New Economic Geography Approach)을 비판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하 구상)’과 남북한 경제통합과 평화경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임
 - o 그동안 ‘구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제시는 미흡한 수준인바, 향후 남북 사이의 신뢰회복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o 따라서 본 연구는 신경제지리학적 관점(New Economic Geography Approach)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구상’을 통한 포용 성장과 남북 경제통합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지자체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o 신경제지리학 분석(New Economic Geography Approach)은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이 ‘공간에서의 생산입지’, 즉 공간문제를 새롭게 조명한 경제학의 한 분야로 이해될 수 있음(폴 크루그만 저, 이윤 역해, 2017)
 - o 정준호(2008)는 신경제지리학이 미시적 토대에 의거한 일반균형모형의 불완전경쟁하에서 수확체증과 금전적 외부효과의 개념을 통해 경제 활동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을 시도하였다고 평가되며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
-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7월 7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쾰른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른바 ‘신(新)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힌 이후 구체화된 대선 공약중 하나임
 - o ‘구상’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나아가 동북아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동북아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비전을 담고 있음(이현주 외, 2018)

-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제간 융복합 연구와 복수의 기관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o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의 학문분야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역할을 담당할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 남북한과 해외사례의 비교

(1) 공간에서의 산업입지로 이해하는 남북한의 경제구조 변화

-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신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산업입지를 포함한 남북한 경제구조를 비교함으로써 2년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
- o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의 경제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는 김정은시대의 시장화 개혁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신경제지리학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활동에 대한 공간적 분포, 즉 ‘공간에서의 생산입지’에 집중하는 것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임
-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북한 산업의 실태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의 산업구조와 유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업데이트할 것임

(2) 동서독 통일과 경제통합이후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통합의 효과를 신경제지리학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함
- 선행연구들은 동·서독의 급진적인 경제통합은 정치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동서독의 급진적인 화폐·경제 통합은 결과적으로 통일 초기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서독의 경제가 오히려 구동독 지역의 경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많은 편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동서독 통일의 거시경제 통합과정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경제협력과 산업입지의 재편 과정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남북한의 합리적인 산업

입지 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되며, 2차년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3) 경제통합과 산업입지의 변화: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제통합의 제반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산업입지의 국제적 변화가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는바, 경제통합과 산업입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이런 연구는 Krugman(1991) 등이 주장한 신경제지리학 이론에서 출발함
 - o 기존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의 지리적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하나, 경제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요소와 경제활동의 국제적 이동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신경제지리학이론에서 강조되는 경제통합으로 인한 산업의 지리적 집중에 대해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o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남북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이 더욱 빠르게 진척된다면,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이 산업을 점차 일부 지역에 집중시키는 결과와 유사해질 수 있음

□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남북한 경제통합: 중심-주변 모형의 재해석

- 폴 크루그만은 국가 사이의 경제활동을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간을 무시하는 전통 국제경제학을 비판, 또한 공간에서의 경제활동의 집중과 이에 따른 중심과 주변의 현상을 보편적이라고 주장(폴 크루그만 저, 이윤 역해, 2017)
 - o 크루그만(1991)은 집중이 발생하는 보다 큰 지역 규모로서 미국의 제조업 벨트의 사례를 소개하고 집중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수요’, ‘공급’ 및 이를 연계하는 ‘교통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 그리고 집중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역사와 우연의 역할에 대해 설명

(1)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입지의 재편

-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입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이후 북한의 산업입지 결정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임
 - o 신경제지리학 모형은 어떠한 경우 경제활동의 집중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다소 논란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집중이 발생하면 경로 의존성에 의하여 지속되는 현상도 설명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신경제지리학 접근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 한국 산업입지의 폐

해를 극복하고 북한의 산업단지 조성에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임

- o 북한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한국 산업 및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신경경제지리학 분석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임

(2) 남북한 경제통합과 교통비용(transportation cost)

- 남북한은 경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통망 체계 건설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신경경제지리학 이론은 교통망 체계 확보에 따른 교통비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이해상충을 조절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o 예를 들어 ‘구상’에서 제시하는 3대 경제벨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 교통망 건설이 전체 한반도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의 집중이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기존의 경제학 모형들은 국가 및 지역간 거리나 교통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재화 및 생산요소의 이동이 교통수단의 이용 등의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비현실적임
- o 그러나 크루그만 등이 주장하는 신경경제지리학 이론은 경제활동에서 교통비용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어 현실 경제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음
- o 경제활동이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교통비용이 중요한 경제적 고려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신경경제지리학 이론은 교통비용에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가 비용 하락을 통해 경제활동의 집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3) 남북한 경제통합과 경로의존성의 비판적 수용: 역사 vs. 기대

- 크루그만은 1991년 그의 저서에서 생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그로 인해 생산은 제한된 수의 입지에 집중하며 교통비용으로 인해 수요가 크거나 요소 공급이 편리한 곳에 입지를 선택하는데, 일단 자리 잡은 산업의 집중은 스스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 o 이런 역사적 우연 혹은 경로의존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함
- o 이런 현상은 핸드폰 구매시 소비자가 기존의 제품을 고수하는 경향과 한국에서 생산활동이 집중된 영남과 그렇지 않은 호남의 경제적 격차에서도 발견됨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크루그만의 주장은 역사적 우연에 의해 미국의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으며 스스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어 상

당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o 이에 대해 크루그만은 ‘자기완결적 예언’의 가능성을 도입하여 초기의 우위를 넘어서 수 있는 요인 3가지를 제시하고 현실적인 경제학 모형 분석을 시도함
- o 요인들은 첫째,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이주할 수 있는 속도가 미래 임금 격차 할인 비율에 비하여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한 지역의 미래 우위가 다른 지역의 현재 우위보다 더욱 중요해야 하고, 둘째, 인구 분포의 미래 변동이 실질임금 격차를 재빨리 변화시킬 만큼 수확체증이 충분히 강해야 하고, 셋째, 시발점이 지나치게 불균등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3가지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공간적 확장성: 남북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교류를 중심으로

(1)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경제가 작용하는 적절한 단위는?: 국가 vs. 지역

- 신경제지리학 이론은 국가 또는 국가 내 행정구역이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경제가 작용하는 적절한 단위는 아니라고 주장함
 - o 왜냐하면 지역화는 한 도시 정도의 작은 규모에서도 가능하며, 중심-주변 모형에서 생산활동의 집종을 유발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 역시 사실상 한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Krugman, 1991)
 - o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 최대의 중심은 독일 전체가 아니라 독일 서쪽의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 주, 벨기에, 네덜란드의 남부지방이 포함됨. 이런 중심지역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도시들 주변에서도 형성되어 있음
- 따라서 크루그만은 외부경제가 국가적 규모에 적용된다며 국가를 경제적 단위로 간주하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함
 - o 왜냐하면 외부경제가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가능해지는 것이지 해당 국가의 지역으로서의 고유한 경제적 중요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나아가서 작은 국가나 일부 지역도 생산의 지리적 구조에 따라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구상’의 3대 경제벨트 혹은 ‘하나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o 따라서 본 연구는 ‘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경제벨트도 경제활동의 지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국가나 행정구역 단위를 뛰어넘어 생산과 경제의 중심지역이 될 수도 있음을 규명할 예정

(2) 산업의 지역화 원천과 사례: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 산업의 지역화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이미 1920년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 주장에서 시작되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화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o 첫째, 한 산업내 여러 기업들을 동일한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산업의 중심은 Specialized Skills를 갖는 노동자에 대한 통합시장(pooled market)을 가능하게 하며, 이런 통합시장은 노동자와 기업에게 모두 이익임
 - o 둘째, 하나의 산업 중심지는 한 산업에 특수한 비교역 투입재(non-traded inputs)를 보다 다양하고 저렴하게 제공함
 - o 셋째, 정보는 먼 거리보다는 지역에 보다 쉽게 흐르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 중심은 Technological Spillover를 초래함
- 신경제지리학 이론은 지역화 원천 3가지를 노동시장 pooling, 중간 투입물, Technological Spillover로 정의하면서 미국 등 일부 지역의 경험적 사례들을 분석, 특히 첨단기술 클러스터, 서비스업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음
 - o 본 연구는 신경제지리학 이론에서 제기하는 지역화의 3가지 원천을 활용하여 한반도 및 남북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구상’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3)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충남의 환황해 이니셔티브’의 공간적 확장성

- ‘구상’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의 공간적 확장성을 신경제지리학의 관점에서 분석
 - o 특히 충남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환황해 이니셔티브’가 공간적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전략을 제시함
- 실제로 충남도의 ‘환황해 이니셔티브’ 전략은 국가 단위를 뛰어 넘는 경제, 산업적 공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신경제지리학 분석 대상으로 적합함
 - o 그동안 충남은 지위의 모호함, 대외교역 거점의 미비, 남북 경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구상’의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았음(홍원표, 2018)

3. 결과 활용방안

-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구상’에 대한 신경경제지리학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o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등재지(후보) 및 세계 유명 학술지 게재도 가능할 것임

- 본 연구는 ‘구상’의 실현에 따른 지역,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임.
 - o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신경경제지리학 관점에서 제시하는 중심-주변 모형 등은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경제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학술적인 가치 이외에도 국가 차원의 비전 제시와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o 본 연구는 ‘구상’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경제통합과 한반도 중심의 경제활동의 공간적 변화과정을 추적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동 분야에 있어서의 전략 및 대안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주제의 포괄적 이해와 차세대 사회과학 연구자 육성에 기여
 - o 본 연구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리경제학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간 융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o 따라서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포럼과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본 연구는 동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o 본 연구의 결과는 신경경제지리학과 관련된 경제학과 지리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한다면 후속 연구자들 육성에 활용될 수 있음
 - o 특히 이를 통해 동 교과목의 강의 교재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학원 및 대학 교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 지급(地級) 도시를 중심으로 -

김상욱*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1. 행복지수의 구조
2.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
3. 자료

IV. 도시행복지수의 비교

1. 행복지수의 추계 결과
2.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I. 서론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행복경제학(happiness economics)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행복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은 인간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사회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하고 있으며 양적인 성장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에게 행복한가 또는 타인에게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하거나 받게 되면 순간 당황하게 된다. 경제

*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jinxiangyu@pcu.ac.kr

발전은 필연적으로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많은 사람들은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며 이는 도시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경제학에서도 역시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적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동안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에서 GDP는 발전의 성과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 한 국가나 지역 또는 도시의 경제규모를 양적으로 표현하기에 GDP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들은 GDP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매년 GDP 성장률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한 국가나 도시의 경제가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발전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GDP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통해 GDP 성장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이미 GDP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GDP가 아닌 다른 지표로서 경제발전이나 도시발전의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들은 여러 측면에서 시도 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행복지수(happiness index)이다. 행복지수는 행복을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지표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즉 GDP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욱 높은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보게 되면 이전의 논리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행복과 소득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실증분석이 진행되었는데 Easterlin(1974)의 연구는 소득수준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아무리 소득이 증가하여도 오히려 행복의 수준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Easterlin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인간의 행복 수준도 당연히 높아진다. 그러나 소득이 무한정으로 높아진다고 해서 인간의 행복 수준도 무한대로 높아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발전의 성과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도시발전은 도시의 1인당 GDP에 의해서 평가되고 비교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행복의 관점에서 도시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지수(happiness index)를 이용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주관적인 행복을 객관적인 비교를 위한 지표로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해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추계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중국화된 시장경제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역시 도시화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들 도시문제 중에서 이론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는 바로 최적도시규모(optimal urban scale)이다.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대도시병

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시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중국의 최적도시규모에 대해서 이미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최적도시규모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최적도시규모이론의 발전에 또 다른 이론적인 발전을 도모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도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대 도시의 출현에 대해 적절한 도시규모를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정책적인 시사점도 도출 할 수 있다.

II. 선행 연구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는 경제발전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GDP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 특히 GDP는 양적인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유용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의 추구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용되어 온 경제지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³⁾. Osberg & Sharpe(2002)는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만으로는 경제적 행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분배나 경제안정 등의 질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Osberg & Sharpe(2002)는 경제행복지수를 제시하였으며 경제행복지수는 소비부문, 부(wealth)부문, 평등부문 그리고 안정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국가 간 행복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OECD(2006, 2011)의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과 BLI(Better Life Index)가 있다. NIW는 2006년 OECD가 유럽연합회 집행위원회 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와 함께 개최한 삶의 질과 사회진보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에서 제안한 것이다. NIW는 캐나다의 복지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를 기초로 하는 지표로서 화폐지표와 비화폐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화폐지표에는 경제적 자원 및 연관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화폐지표에는 사회적 요인(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및 환경, 주관적 생활만족도(행복)를 포함하고 있다. OECD는 NIW를 기반으로 더욱 향상된 지표를

3)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간개발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비교하고 있음. 인간개발지수는 각국의 수명, 문자 해독률, 취학률, 1인당 GNP 등을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수화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HDI는 GDP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던 한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사회적 발전 수준(지식) 및 행복 관련 지표(평균수명)들로 보정하여 측정한 지표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개발하기 위해 GDP보다 사회적 후생(social well-being)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 위해 스티글리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OECD(2011)는 Stiglitz, Sen, and Fitoussi(2009)를 바탕으로 11개 범주, 2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BLI(Better Life Index)를 공개하였다. BLI는 물질적 생활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과 삶의 질(Quality of lif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국민들의 소비 가능성과 소유 재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반면, 후자는 국민들의 금전 이외의 속성의 집합으로 삶의 기회를 형성하고 있다. 물질적 생활 조건에는 소득과 부, 직업 및 주거가 포함되며 삶의 질에는 건강, 일과 개인 생활 간 균형, 교육, 커뮤니티, 정부의 운영 방식, 환경, 치안 및 전반적 인생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포함되어 있다. BLI의 특징은 거시 지표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나타내는 미시 지표, 평균치 외에 분포 또는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물론 주관적 측면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은 OECD(2006, 2011)의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과 BLI(Better Life Index)에 기반하여 행복지수의 추계를 시도 하고 있다⁴⁾.

국내의 연구기관들도 행복지수에 대한 추계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OECD(2006, 2011)의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경제행복지수는 소비부문, 소득부문, 분배부문 그리고 안정부문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득부문에는 근로 소득 이외에도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2011)의 경제적 행복지수(Economic Happiness Index)는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그리고 전반적 행복감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내찬(2012)의 연구에서는 OECD의 BLI 지표 중 12개를 선별하고 경제적 안정, 정부에 대한 신뢰, 외부인에 대한 관용과 성차별 등 사회자본 관련 지표와 지니계수, 빈곤율 등,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추가되었으며,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지속가능성을 포함 시키고 있다. 남주하·김상봉(2012)은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경제행복지수를 기반으로 소비부문, 미래성장 및 부의 스톡 부문, 소득부문 그리고 경제적 안정 부문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제행복지수를 설계하였으며, 하위 지표도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9개에서 24개로 확장하고 있다. 그 중 경제적 안정 부문이 13개의 하위 지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남주하·김상봉(2012)의 경제행복지수에서는 경제적 안정

4) 영국의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는 객관적인 삶의 질 측정을 보완하고자 주관적인 삶의 질(well-being)을 측정하고 있음. 독일은 Commission of Inquiry(2013)에서 삶의 질에 대한 통합 지수를 개발하고 있음. 이탈리아는 BES(Benessere Equo e Sostenibile, 2012)를 중심으로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측정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2010년 미국은 Key National Indicators Act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미국시민들에게 미국과 그들의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KNIS)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KNIS는 National Academy of Sciences(NAS)에서 주도함. 일본의 행복도 지표(2011)는 경제사회 상황, 심신의 건강, 관계 세 가지 측면에서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국가미래연구원, 2013).

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2013)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지수(National Happiness Index)를 설계하고 있다. 국민행복지수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의 3개 대항목,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된다⁵⁾. 국가미래연구원(201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행복지수와 GDP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는 0.113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이전 시기에는 질적 발전 보다는 양적 성장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 서면서 점차적으로 단순한 양적인 성장이 아닌 국민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李剛·王斌·刘筱慧(2015)는 중국을 대상으로 국가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李剛·王斌·刘筱慧(2015)의 국가행복지수는 생활의 질 지수, 사회공평 지수, 사회진보 지수, 사회만족도 지수, 환경만족도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 공평, 환경, 만족도 등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진보가 하위 지수로 설계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Kim & Li(2018)는 중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를 설계하고 있다. Kim & Li(2018)는 OECD(2011)의 BLI에서 중국의 지역에 적합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환경위생 네 가지 지표를 선별해서 행복지수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복지는 소득, 취업 기회, 사회보장률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건강은 병상 수, 의사 수, 지방재정 중 의료 위생지출 비중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기회는 대학교 입학 기회, 도서관 소장 도서 수, 지방재정 중 교육지출을 포함하고 있고 환경위생은 녹지 정도, 쓰레기 처리율과 오수 처리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OECD(2011)의 BLI에서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율과 독해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Kim & Li(2018)에서는 대학교 입학 기회, 도서관 소장 도서 수, 지방재정 중 교육지출을 이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Kim & Li(2018)의 행복지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기회와 교육지출은 지역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 비교에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관 소장 도서 수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하위 지표이다. OECD(2011)의 BLI에서의 환경 지표는 공기오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Kim & Li(2018)의 행복지수에서의 환경위생 지표는 녹지, 쓰레기, 오수 세 가지 측면에서 환경과 위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 역시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보다도 수질 오염이 더욱 심각하기 때

5)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에는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1인당 정부부채, 1인당 자본소득,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1인당 가계부채가 포함된다. 삶의 질에는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 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이 포함된다.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정에는 중산층 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 및 재해 안전, 식품안전, 노후 안정이 포함된다(국가미래연구원, 2013).

문이다. 특히 대기오염은 지역별로 구분이 힘들지만 녹지, 쓰레기, 오수는 지역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는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로 응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되며 이는 지표의 구성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자료는 지역의 자료보다 더욱 이용 가능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행복이 가지는 정책적인 의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陈志霞(2012)는 중국의 도시별 행복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행복지수를 구축하였다. 陈志霞(2012)의 행복지수는 도시발전지수, 도시 관리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 사회적 행복감의 다섯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발전지수는 도시 GDP, 취업률, 도시 주민 평균 거주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시 주민의 평균 거주 면적은 중국의 도시 주민의 현실적인 행복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하위 지표가 된다. OECD(2011)의 BLI에서는 주거를 1인당 방의 개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도시 가구 당 평균 가족 수가 3-4인 경우에는 방의 개수보다는 평균 거주 면적이 더욱 현실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陈志霞(2012)의 행복지수는 객관적 지수와 주관적 행복감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행복감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중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행복지수의 추계 결과는 제시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罗建文·赵嫦娥(2012)는 陈志霞(2012)에서 제시되지 못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객관적 지표에 6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주관적 지표에 4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罗建文·赵嫦娥(2012)가 陈志霞(2012)보다는 가중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분석결과는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熊彩云·孟荣钊·史亚峰(2014)와 赵静·靳共元·张晓林(2014)은 중국의 농촌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연구하고 있다. 熊彩云·孟荣钊·史亚峰(2014)은 행복지수의 만점을 1.0으로 하고 0.2를 하나의 구간으로 5개 구간을 구분하여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주관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赵静·靳共元·张晓林(2014)의 행복지수의 1급 지표는 경제와 사회 두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영역의 2급 지표는 농촌주민소득지수, 농촌주민소비지수, 농촌경제구조조정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 영역의 2급 지표는 농촌인문환경지수, 농촌자연환경지수, 정부신용수준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수들은 모두 직접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자료를 이용한다.

김상욱(2019)은 Kim & Li(2018)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를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로 수정하여 중국의 34개 도시의 행복지수를 추계하고 비교하고 있다. 특히 김상욱(2019)은 罗建文·赵嫦娥(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 지표의 60% 가중치와 주관적 지표의 40% 가중치를 이용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결합하는 도

시행복지수를 구축하고 있다. 김상욱(2019)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의 도시별 행복지수를 추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34개 도시의 행복지수만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별 행복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구축하고 지급(地級) 도시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최적도시규모(optimal urban scale)를 통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⁶⁾. 최적도시규모는 도시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실적으로는 1천 만 명 이상의 도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의 성장이 과연 지속적인 팽창이 가능한지 아니면 도시규모의 관리가 필요한지는 중요한 도시정책의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최적도시규모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여러 측면에서 시도 되어 왔고 지금도 시도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주민의 행복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최적도시규모의 문제를 고민해 본다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Ⅲ. 연구 방법

1. 행복지수의 구조

행복지수의 기본적인 구조는 Kim & Li(2018)와 김상욱(2019)의 행복지수(happiness index)를 이용한다. 그러나 Kim & Li(2018)의 행복지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이기 때문에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에서의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상욱(2019)의 행복지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역시 자료의 일치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 Kim & Li(2018)의 행복지수에서는 행복지수의 하위 지표로 경제복지(economic welfare), 생활건강(health life), 교육기회(education opportunity) 그리고 환경위생(environment sanitation)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4개의 하위 지표를 이용한다. 그러나 2급 하위 지표에서는 도시별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

6) 최근 최적도시규모를 행복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더욱 행복한가 아니면 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더욱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Gerdtham, U. & Johannesson, M.(2001), Graham, C. & Felton, A.(2006), John, H.(2006)의 연구에서는 소도시 주민의 행복 정도가 대도시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Berry, B. J. L. & Okulicz-Kozaryn, A.(2009)는 대도시 주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활건강 영역에서의 의료비 지출 항목을 의료 기관으로 대체한다. 왜냐하면 Kim & Li(2018)의 연구는 지역을 분석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2급 지표의 분석단위를 도시로 전환하게 되면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급 지표에서는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환경위생 네 지표를 그대로 활용 가능하지만 이들 1급 지표를 구성하는 2급 지표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동일한 문제가 도시나 지역에서 국가 단위로 상향 조정될 때 역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계점은 연구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표 1> 과 같은 행복지수의 지표가 가능해진다. 각각의 1급 하위 지표 아래에는 3개의 2급 하위 지표를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제복지에는 소득, 취업기회 그리고 사회보장률이 포함된다. 이들 2급 지표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세부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1> 행복지수의 지표 구조

1급 하위 지표	2급 하위 지표	세부 내용
경제복지 economic welfare B1	C1 소득	도시 직공(職工) 평균임금
	C2 취업기회	도시취업자수/도시인구
	C3 사회보장률	(양로보험가입자수+의료보험가입자수+실업보험가입자수)/도시인구
생활건강 health life B2	C4 의료기관 수	도시 인구 1만 명 당 의료기관 수
	C5 병상 수	도시 인구 1만 명 당 병상 수
	C6 의사 수	도시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
교육기회 education opportunity B3	C7 대학재학생 수	도시 인구 1만 명 당 대학재학생 수
	C8 공공도서관 장서 수	도시 인구 1만 명 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C9 교육재정지출	지방재정 중 교육재정지출
환경위생 environment sanitation B4	C10 녹지율	녹지율
	C11 쓰레기무공해처리율	쓰레기무공해처리율
	C12 생활오수처리율	생활오수처리율

자료: 김상욱(2019)

<표1>은 OECD(2011)의 BLI와 Kim & Li(2018)를 기반으로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를 설계하고 있다. 본 연구는 Kim & Li(2018)과 김상욱(2019)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에 적합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환경위생 네 가지 지표를 선별해서 행복지수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복지에는 소득, 취업기회, 사회보장률을 포함하고 있으나 생활건강은 병상 수, 의사 수, 지방재정 중 의료위생지출 비중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기회는 대학교 입학 기회, 도서관 소장 도서 수, 지방재정 중 교육지출을 포함하고 있고 환경위생은 녹지 정도, 쓰레기 처리율과 오수처리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OECD(2011)의 BLI에서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율과 독해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Kim & Li(2018)에서는 대학교 입학 기회, 도서관 소장 도서 수, 지방재정 중 교육지출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입학 기회를 도시 인구 1만 명 당 대학재학생 수로 대체한다. 왜냐하면 Kim & Li(2018)의 행복지수와 달리 본 연구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인구 1만 명 당 대학재학생 수와 지방재정 중 교육지출이 도시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 비교에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관 소장 도서 수는 학생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하위 지표이다. OECD(2011)의 BLI에서의 환경 지표는 공기오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Kim & Li(2018)와 김상욱(2019)과 마찬가지로 행복지수에서의 환경위생 지표는 녹지, 쓰레기, 오수 세 가지 측면에서 환경과 위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 역시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보다도 수질 오염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오염은 도시별로 구분이 힘들지만 녹지, 쓰레기, 오수는 도시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2.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행복지수의 측정에는 반드시 하위 지표에 대한 가중치의 설정과 일치성의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가중치의 설정은 Kim & Li(2018)과 김상욱(2019)에서 사용하고 있는 AHP방법을 이용한다. Kim & Li(2018)과 김상욱(2019)은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의 일치성을 검증한다. 이는 지표의 설계가 가지는 주관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도시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설계에 더욱 도움이 된다. B1을 경제복지, B2를 생활건강, B3을 교육기회, B4를 환경위생으로 설정한 후 우선 A 행렬을 이용하여 각 열의 합을 구한다. 그리고 열의 합을 이용하여 A 행렬의 모든 요소를 나누어 주면 A_{norm} 행렬을 얻게 된다. A_{norm} 행렬의 매 행의 평균값을 구하면 1급 지표 각각의 가중치 W_{1-4} 를 구할 수 있다. 1급 지표 각각의 가중치 W_{1-4} 를 구한 다음 단계는 이러한 가중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일치성 검증이다. 일치성 검증은 우선 λ_{max} 를 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구하고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한다. 계산된 CR의 값이 0.1보다 작으면 행렬 A는 일치성 검증을 통과하게 되며, 만약 CR의 값이 0.1보다 크게 되면 일치성 검증을 통과할 수 없으며 적절한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송근원·이영, 2013). <표 2>의 A matrix와 A_{norm} matrix를 기초로 1급 지표의 가중치를 계산하면 B1(경제복지)은 0.544, B2(생활건강)는 0.244, B3(교육기회)은 0.136, B4(환경위생)는 0.076이다. 즉 경제복지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며 두 번째는 생활건강 세 번째는 교육기회 그리고 환

경위생은 가장 낮은 가중치를 가진다. 1급 하위 지표 가중치의 일치성 검증을 위한 λ_{\max} 는 2.391이다. 무작위지수(Random Index) RI는 4×4행렬인 경우에 0.890이다(丁以中, 2003). RI와 CI를 이용하여 CR을 계산하면 -0.603로 0.1보다 작은 값이다. 따라서 1급 하위 지표의 가중치는 일치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표 2〉 A matrix and A_{norm} matrix

	경제 복지 B1	생활 건강 B2	교육 기회 B3	환경 위생 B4		경제 복지 B1	생활 건강 B2	교육 기회 B3	환경 위생 B4
경제복지 B1	1.00	3.00	5.00	5.00	경제복지 B1	0.58	0.64	0.54	0.42
생활건강 B2	0.33	1.00	3.00	3.00	생활건강 B2	0.19	0.21	0.32	0.25
교육기회 B3	0.20	0.33	1.00	3.00	교육기회 B3	0.12	0.07	0.11	0.25
환경위생 B4	0.20	0.33	0.33	1.00	환경위생 B4	0.12	0.07	0.04	0.08

(a) A matrix

(b) A_{norm} matrix

〈표 3〉 2급 하위 지표의 일치성 검증 결과

1급 하위지표 가중치		2급 하위지표 가중치		A weight	λ_{\max}	CI	RI	CR
B1	0.544	C1	0.634	0.345	3.033	0.017	0.520	0.032
		C2	0.260	0.141				
		C3	0.106	0.058				
B2	0.244	C4	0.260	0.063	3.033	0.017	0.520	0.032
		C5	0.634	0.155				
		C6	0.106	0.026				
B3	0.136	C7	0.714	0.097	3.000	0.000	0.520	0.000
		C8	0.143	0.019				
		C9	0.143	0.019				
B4	0.076	C10	0.106	0.008	3.033	0.017	0.520	0.032
		C11	0.206	0.020				
		C12	0.634	0.048				

주: ① $CI = \frac{\lambda_{\max} - n}{n - 1}$, $CR = \frac{CI}{RI}$, $\lambda_{\max} = \sum_{i=1}^n \frac{1}{n} \left(\frac{T_i}{W_i} \right)$, $T_i = \sum_{j=1}^n a_{ij} W_j$

② A weight 는 1급 하위지표의 가중치와 2급 하위지표의 가중치를 곱한 값임.

1급 하위 지표의 일치성 검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2급 하위 지표의 일치성 검증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일치성 검증 결과에 의하면 B1(C1, C2, C3), B2(C4, C5, C6), B3(C7, C8, C9), B4(C10, C11, C12)의 하위지표의 CR 값이 모두 0.1보다 작기 때문에 일치성 검증을 통과하였다. 일치성 검증을 통과하였다는 의미는 2급 지표를 1급 지표의 하위 지표로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3〉에서 주의할 점은 A weight이다. 이는 1급 하위지표의 가중치와 2급 하위지표의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즉 C1의 A weight는

B1의 가중치 0.544에 C1의 가중치 0.634를 곱한 값으로 0.345가 된다. 그리고 C1-C12의 A weight를 합하면 1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행복지수를 계산할 때는 A weight를 이용하게 된다.

<표 1>의 지표와 <표 3>의 A weight의 가중치를 이용한 표준화는 Kim & Li(2018)과 김상욱(2019)의 방법을 이용한다. 식(1)은 표준화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c_{i,j} = \frac{x_{i,j} - x_{i,\min}}{x_{i,\max} - x_{i,\min}} \quad \text{식(1)}$$

식(2)에서 i 는 C1-C12를 나타내고 j 는 개별 도시를 나타낸다. 그리고 $c_{i,j}$ 는 개별 도시의 C1-C12의 표준화된 값을 의미하며, $x_{i,j}$ 는 C1-C12의 기초 자료이고, $x_{i,\max}$ 는 C1-C12 자료의 최댓값을 나타내며 $x_{i,\min}$ 는 C1-C12 자료의 최솟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c_{i,j}$ 는 C1-C12의 표준화된 값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3. 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도시별 행복지수를 추계하여 비교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별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할구(市轄區, district under city)이고 또 하나는 전시(全市, total city)이다. 시할구는 행정구역으로 보게 되면 구(區)를 포함하며 전시는 구 이외에 현(縣)을 포함한다. 즉 구와 현을 합하여 전시가 되는 것이다. 엄격하게 보면 도시는 구 만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구와 현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도시로 보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의미가 있으며 특히 중국의 현실을 반영할 때 구와 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더욱 도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시(全市)의 자료를 이용한다.

중국의 도시를 구분할 때 또 하나의 기준은 지급(地級) 도시와 현급(縣級) 도시가 있다. 지급 도시는 특정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이며, 현급 도시는 농촌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도시는 지급 도시가 더욱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통계연감에서도 지급 도시를 기준으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급 도시가 분석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에는 모두 279개의 지급 도시가 있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C1-C12 12개의 2급 하위 지표의 자료가 모든 도시에서 제공되는 양하다는 것이다. 특히 녹지율(C10), 쓰레기무공해처리율(C11)과 생활오수처리율(C12) 세 가지 지표에서 기초 자료가 부재한 도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228개의 도시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기초 자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상욱(2019)

에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결합하여 2012년과 2016년의 도시별 행복지수를 추계하고 있지만 34개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28개 도시의 행복지수를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규모별 행복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도시규모는 도시인구를 이용한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호적(戶籍)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적은 도시 호적과 농촌 호적으로 구분되며 이는 인구 통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구는 연말 호적인구(年末戶籍人口, Household Registered Population at Year-end)로 제공된다. 그러나 호적 인구는 현실적인 도시인구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호적상의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유동인구(流動人口)라 부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へ 가서 일정 기간을 거주하게 되면 이를 상주인구(常住人口)라 부른다. 따라서 도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은 연평균인구(年平均人口, Annual Average Population)가 더욱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적인구가 아닌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연평균인구를 이용하여 도시규모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경우는 연평균인구 규모가 연말호적인구보다 더욱 크다. 예를 들면 하북성(河北省)의 보정시(保定市)의 연말호적인구는 1,199만 명인데 연평균인구는 1,203만 명으로 64만 명이 더 많다. 이 차이만큼을 상주인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장춘시(長春市), 길림시(吉林省), 통화시(通化市), 청도시(青島市)는 2017년 도시 연평균인구의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연말호적인구로 대체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기초 자료는 중국도시통계연감(中國城市統計年鑑)의 자료를 이용한다. 중국도시통계연감은 연도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IV. 도시 행복지수의 비교

1 행복지수의 추계 결과

<표1>의 행복지수의 구조와 <표3>의 가중치와 식(1)의 표준화 과정을 거친 도시별 행복지수의 추계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는 지면의 제한 때문에 228개 도시의 추계 결과 중 160개 도시의 추계 결과를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행복지수의 절대 값이 가장 높은 도시는 심천시(深圳市)로 0.6872이다. 그 다음은 북경시(北京市)와 상해시(上海市)로 각각 0.6820과 0.6373이다. 이 3 도시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GDP가 매우 높은 도시들이다. 심천시의 1인당 GDP

는 184,068위안(28,318달러, 1달러=6.5위안)이고 북경시는 128,994위안(19,845달러) 그리고 상해시는 126,634위안(19,482달러)이다. 즉 도시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도시의 행복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역설(happiness paradox)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의 역설은 도시의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도시 주민의 행복 수준은 낮아 질 수 있다는 것인데 <표4>의 결과로 볼 때는 중국의 도시발전 수준은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도시의 성장 잠재력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4> 도시별 행복지수의 추계 결과(2017년)

도시 명칭	행복 지수	도시 명칭	행복 지수	도시 명칭	행복 지수	도시 명칭	행복 지수
深圳市	0.6872	湖州市	0.3104	巴彦淖尔市	0.2439	济宁市	0.2209
北京市	0.6820	镇江市	0.3060	铜陵市	0.2435	清远市	0.2195
上海市	0.6373	秦皇岛市	0.3028	大同市	0.2429	阳泉市	0.2193
南京市	0.5422	廊坊市	0.3017	乐山市	0.2426	滁州市	0.2192
乌鲁木齐市	0.5416	潍坊市	0.3006	固原市	0.2425	南平市	0.2189
杭州市	0.5332	温州市	0.2995	淮南市	0.2418	泸州市	0.2185
克拉玛依市	0.5028	石家庄市	0.2986	滨州市	0.2412	韶关市	0.2183
武汉市	0.4893	淄博市	0.2981	郴州市	0.2407	肇庆市	0.2183
苏州市	0.4832	呼伦贝尔市	0.2971	鹰潭市	0.2385	盐城市	0.2180
厦门市	0.4798	绍兴市	0.2964	临沧市	0.2375	北海市	0.2172
昆明市	0.4639	南通市	0.2955	龙岩市	0.2372	三门峡市	0.2163
济南市	0.4601	烟台市	0.2947	宣城市	0.2361	蚌埠市	0.2148
兰州市	0.4553	株洲市	0.2866	晋城市	0.2351	宁德市	0.2146
无锡市	0.4464	威海市	0.2825	沧州市	0.2343	池州市	0.2133
郑州市	0.4438	芜湖市	0.2778	泰州市	0.2323	枣庄市	0.2130
青岛市	0.4333	玉溪市	0.2727	昭通市	0.2316	咸阳市	0.2125
宁波市	0.4253	张掖市	0.2709	自贡市	0.2307	淮安市	0.2106
贵阳市	0.4186	扬州市	0.2696	柳州市	0.2305	平凉市	0.2106
银川市	0.4148	湘潭市	0.2695	宜宾市	0.2295	景德镇市	0.2082
佛山市	0.4050	台州市	0.2692	阜新市	0.2294	日照市	0.2082
大连市	0.3990	辽阳市	0.2677	泰安市	0.2291	张家界市	0.2074
西安市	0.3986	铜川市	0.2665	赤峰市	0.2277	长治市	0.2067
舟山市	0.3920	马鞍山市	0.2655	宜昌市	0.2274	临沂市	0.2065
南昌市	0.3873	丽江市	0.2636	宝鸡市	0.2273	十堰市	0.2060
常州市	0.3870	吉林市	0.2625	白银市	0.2266	焦作市	0.2058
衢州市	0.3745	石嘴山市	0.2622	新余市	0.2262	临汾市	0.2057
金华市	0.3731	金昌市	0.2617	洛阳市	0.2262	襄阳市	0.2055
嘉兴市	0.3716	本溪市	0.2614	保定市	0.2261	九江市	0.2054
合肥市	0.3707	普洱市	0.2611	连云港市	0.2259	广安市	0.2053
西宁市	0.3655	六盘水市	0.2603	萍乡市	0.2256	白山市	0.2034
乌海市	0.3649	黄山市	0.2586	宿迁市	0.2254	岳阳市	0.2033

鄂尔多斯市	0.3623	晋中市	0.2570	漳州市	0.2250	常德市	0.2033
包头市	0.3580	淮北市	0.2559	泉州市	0.2249	聊城市	0.2031
三亚市	0.3523	酒泉市	0.2532	张家口市	0.2247	乌兰察布市	0.2025
丽水市	0.3401	唐山市	0.2523	汉中市	0.2247	南充市	0.2022
长春市	0.3386	怀化市	0.2519	徐州市	0.2243	赣州市	0.2005
东营市	0.3362	雅安市	0.2513	莱芜市	0.2234	陇南市	0.2000
哈尔滨市	0.3317	广元市	0.2503	桂林市	0.2229	通化市	0.1988
福州市	0.3154	盘锦市	0.2461	朔州市	0.2227	鞍山市	0.1981
南宁市	0.3136	三明市	0.2453	承德市	0.2216	商洛市	0.1979

주의: 지면의 제한으로 228개 도시 중 160개 도시의 결과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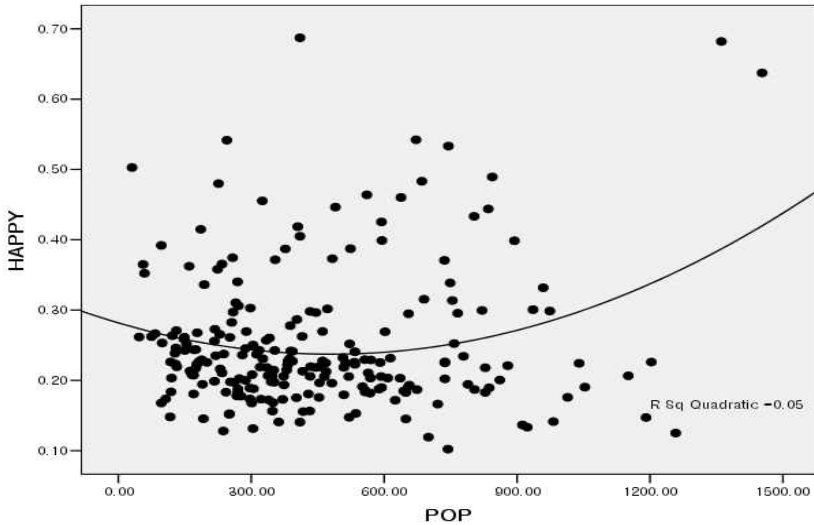
<표4>에 의하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도시는 호북성(湖北省)의 황강시(黄冈市)이다. 황강시의 2017년도 행복지수는 0.1022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와 가장 낮은 도시의 차이는 6.72배인데 이들 두 도시의 1인당 GDP의 차이는 3.23배이다. 이는 앞에서 가정하고 있는 도시경제발전 수준과 행복지수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도시경제발전의 격차보다도 행복지수의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발전을 행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추계한 행복지수를 이용하여 도시규모와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도시규모는 앞에서 밝히고 있듯이 상주인구를 포함하는 연평균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는 <그림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에서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를 추세 곡선으로 나타내면 역 U자가 아닌 U자 형태가 된다. 이는 중요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만약 역U자 형태이면 행복지수 측면에서 도시규모가 작을 때는 행복지수가 낮지만 도시규모가 성장하면서 행복지수도 함께 증가하며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서 도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때는 도시의 행복지수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역설(happiness paradox)과도 연관되는 논리이다⁷⁾. 그러나 <그림1>에서처럼 U자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도시규모가 매우 작을 때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7)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최적도시규모의 존재에 대한 비판은 Easterlin, R. A.(1974)에서 시작되고 있다. Easterlin, R. A.(1974)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반드시 증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득수준의 증가는 도시경제의 성장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최적 도시규모에 적용하게 되면 도시규모의 증대는 반드시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Easterlin의 역설이라고도 부른다. 만약 Easterlin의 역설이 존재하게 되면 도시규모와 행복 사이에는 역U자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도시규모가 증대하면서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최저점을 지나고 나면 도시규모가 성장할수록 행복지수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는 현재의 중국의 도시발전 단계로 볼 때 여전히 성장의 잠재력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가진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는 도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며 도시발전이 계속되면서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교외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전체적인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에 의하면 1960년 세계 평균 도시화율은 34%인데 2017년에는 55%로 상승하고 있다. 그 중 고소득 국가의 평균은 64%에서 82%로 증가하였고, 저소득 국가의 평균도 13%에서 32%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도시화율은 1960년의 70%에서 2017년에는 82%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16%에서 58%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이 2017년 기준으로 58%는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 잠재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표5〉는 도시의 인구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구규모가 100만 명 이하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31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인구규모가 100-2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00만 명인 도시는 0.238로 조금 상승하고 있으며, 400-600만 명인 도시는 0.250, 600-800만 명인 도시는 0.261, 800-1,0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71로 상승

하고 있다. 도시 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91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도시의 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도시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적도시규모는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더 증대하는 것이다.

〈표 5〉 도시인구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2017년 기준)

(단위: 만 명, 개)

도시인구	<100	100-200	200-400	400-600	600-800	800-1,000	> 1,000
도시 수	9	31	77	55	30	17	9
행복지수	0.314	0.236	0.238	0.250	0.261	0.271	0.291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추계하여 비교하고 있으며, 또한 행복지수와 도시규모의 관계를 통해 최적도시규모에 대해 고찰해 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도시규모 또는 최적도시규모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최적도시규모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행복지수를 추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지급(地級) 도시 228개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추계한다. 추계 결과에 의하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도시규모를 도시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규모가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도시인구는 정책적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호적인구보다는 상주인구가 더욱 현실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호적제도는 인구가동에 있어서 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에서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SOC 수요와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도시는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인 도시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최적도시규모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역U자 가설에서의 우측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되고 있는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AHP 방법에 의한 가중치 설정과 일치성 검증 문제, 그리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조합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도시인구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는 도시정책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도시성장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시의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미래연구원(2013),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 김상욱(2019), 중국의 도시별 행복지수의 비교-3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3호, pp.69-87.
- 남주하·김상봉(2012), 「한국의 경제행복지수의 측정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pp.1-28.
- 삼성경제연구소(2010), 「경제행복도지수로 본 한국경제」, CEO Information, 제750호.
- 송근원·이영(2013), 「AHP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척도 재구성」,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29집, 제2호, pp.271-288.
-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 pp.5-40.
- 현대경제연구원(2011), 「제8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 한국경제주평,
제8호.
- 赵静·靳共元·张晓林(2014), 「基于模糊综合评价模型的山东省农村居民幸福指数研究」, 山东财政学院学报, 第1期, pp.93-99.
- 罗建文·赵嫦娥(2012), 「论居民幸福指数的评价指标体系及测算」, 湖南科技大学学报
(社会科学版), 第15卷, 第1期, pp.43-51.
- 熊彩云·孟荣钊·史亚峰(2014), 「我国农民幸福指数的实证研究」, 农业经济问题, 第12
期, pp.33-40.
- 陈志霞(2012), 「城市幸福指数及其测评指标体系」, 城市问题, 第4期, pp.9-13.
- 李刚·王斌·刘筱慧(2015), 「国民幸福指数测算方法研究」, 东北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17卷, 第4期, pp.376-383.
- 丁以中(2003), 管理科学-运用spreadsheet建模和求解. 北京: 清华大学出版社.
- Berry, B. J. L. & Okulicz-Kozaryn, A.(2009), Dissatisfaction with city life: A new
look at some old questions. *Cities*, 26(3), pp.117-124.

- Easterlin, R.(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R. and Reder, 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Academic Press, New York: 89-125.
- Gerdtham, U. & Johannesson, M.(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0(6), pp.553-557.
- Graham, C. & Felton, A.(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1), pp.107-122.
- Kim, S. W. & Li, N.(2018), Comparison of Chinese Regional Happiness Index-The Case of 31 regions.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30(3), pp.91-114.
- OECD(2011). 2010 Society at a glance. Retrieved March 2012, from <http://www.oecd.org/dataoecd/37/42/42495745.pdf>.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1), National Statisticia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Debate on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Osberg, L. and Sharpe, A.(2002), An index of Economic Well-being for Selected OECD countr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8(3), pp.291-316.
- Oswald, A. J.(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445), pp.1815-1831.
- Stiglitz, J. E., Sen, A., and Fitoussi, J.(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 UNDP(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 Welsch, H.(2006), Environment and happiness: Valuation of air pollution using life satisfaction data. *Ecological Economics*, 58(4), pp.801-813.
- Yongil, Jeon & Michael P. Shields.(2005), The Easterlin hypothesis in the recent experience of higher-income OECD countries: A panel-data approach.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8(1), pp.1-13.

국문초록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 지급(地級) 도시를 중심으로 -

김상욱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그리고 환경위생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각각의 부문에는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두 12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는 행복지수를 구축하였다. AHP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을 하였다. 2017년의 22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도 증대하는 것이다. 인구규모가 100-2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00만 명인 도시는 0.238로 조금 상승하고 있으며, 400-600만 명인 도시는 0.250, 600-800만 명인 도시는 0.261, 800-1,0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71로 상승하고 있다. 도시 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91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SOC 수요와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도시는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중국, 도시, 도시규모, 최적도시규모, 행복, 행복지수

Abstract

Comparison of Urban Scale and Happiness Index in China: The Case of Prefecture Level Cities

KIM, Sangwook*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urban scale and happiness index in China prefecture level cities. The happiness index consists of four category, economic welfare, health life, education opportunity and environment sanitation. Each category includes three low grade indicators, the happiness index consists of twelve low grade indicators. This paper uses AHP method, analyzes the weight and consistency test. The 228 cities results in 2017, this paper finds that the relation between urban scale and happiness index appears U-type characteristics. The urban scale more increase, the happiness index also more increase. In urban population by 1-2 million peoples, the happiness index is lowest as 0.236, in 2-4 million peoples, the happiness index is 0.238, in 4-6 million peoples, the happiness index is 0.250, in 6-8 million peoples, is 0.261, in 8-10 million peoples, is 0.271, and in above 10 million peoples, the happiness is relatively higher as 0.291. This results suggests an important implications to the urban policy. China faced to the increasing SCO demand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but this paper suggests that China urban has more growth potential.

Keywords : China, Urban, Urban Scale, Optimal Urban Scale, Happiness, Happiness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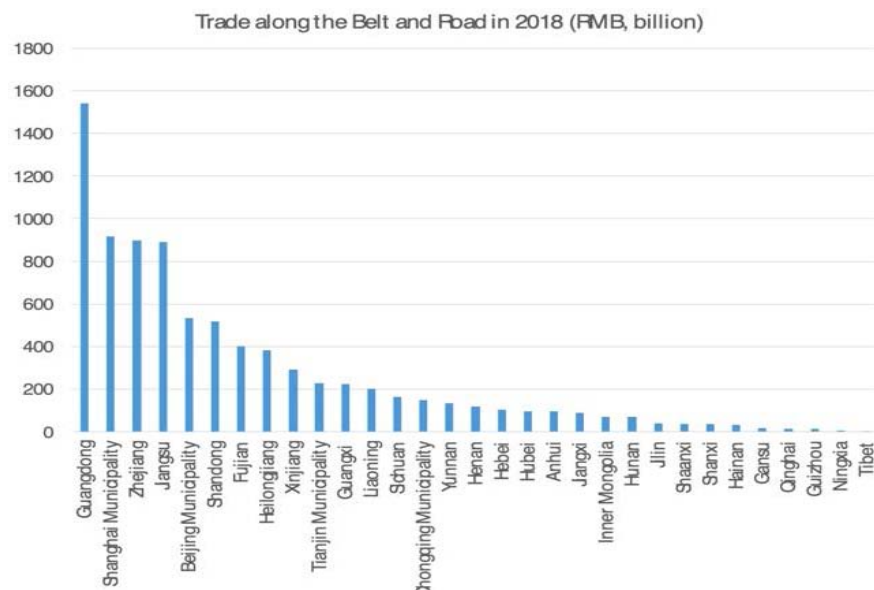
* Paichai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Professor, jinxiangyu@pcu.ac.kr

II 一帶一路倡議展望(2015-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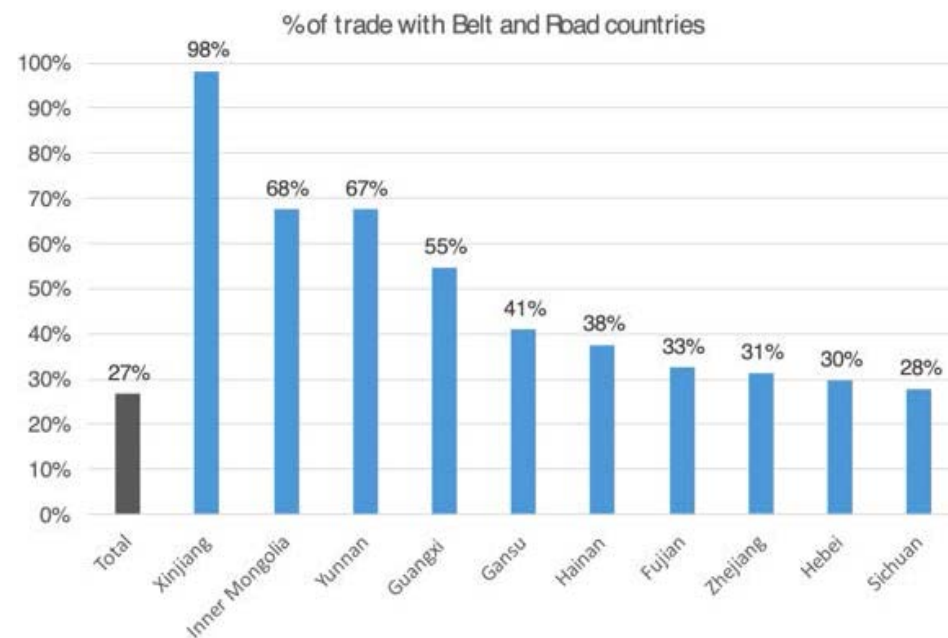
指標		2015	2017	2027
GDP	2015不變價格(億美元)	230,963	249,440	394,850
	全球比重	31.10%	31.80%	38.20%
固定資產	2015不變價格(億美元)	78,028	90,053	130,577
	全球比重	43%	46%	50%
人口	總人口(億人)	45.7	46.5	49.6
	全球比重	62.30%	62.00%	60.40%
新增就業	就業人數(億人)	21.8	22.2	23.6
	全球比重	64.50%	64.20%	62.70%

II 一帶一路與中國地方政府

- 2018年，中國與“一帶一路”沿線國家的貿易額超過8萬億元人民幣（1.3萬億美元）。與2017年相比增長了13%
- 中國貿易總額的27%是與“一帶一路”沿線國家進行



- 儘管廣東省與“一帶一路”沿線國家的貿易額最高，但這僅佔其總貿易額的20%，遠低於全國平均水平（27%）



II 海上絲綢之路: 重點合作領域

1. 政策溝通

“一帶一路”沿線國家將通過平等協商，共同製定發展計劃和措施，以促進跨國或區域合作，並通過協商解決合作中出現的問題

2. 設施連通

將努力推進港口基礎設施建設，清理陸水多式聯運通道，以期建立連接亞洲各個次區域與亞洲，歐洲和非洲其他地區的基礎設施網絡。

3. 貿易暢通

將採取步驟解決投資和貿易便利化問題，減少投資和貿易壁壘，促進區域經濟一體化。

4. 資金融通

將採取行動擴大沿線國家之間本幣結算和貨幣之間貿易與投資的交換範圍，加深多邊和雙邊金融合作，並通過區域安排提高管理金融風險的能力。

5. 民心相通

將努力促進不同文化之間的交流與對話，為促進區域合作奠定基礎。

II 廣東省海上絲綢之路: 重點合作領域

China's Greater Bay Area
GDP of cities, Hong Kong and Macau



Source: HSBC Research

BBC

- 廣東省政府已與中國銀行，中國工商銀行和交通銀行合作建立了廣東絲綢之路基金
- 與香港特別行政區的緊密聯繫使該省與東盟國家以及南太平洋和北美洲的交通聯繫更加緊密。
- 廣東省是世界上最集中的港口集群-粵港澳大灣經濟區的所在地
- 能源，先進製造，金融和物流等眾多行業的公司也在BRI國家/地區進行了海外投資

III 韓中-ASEAN經貿關係

➤ASEAN概況(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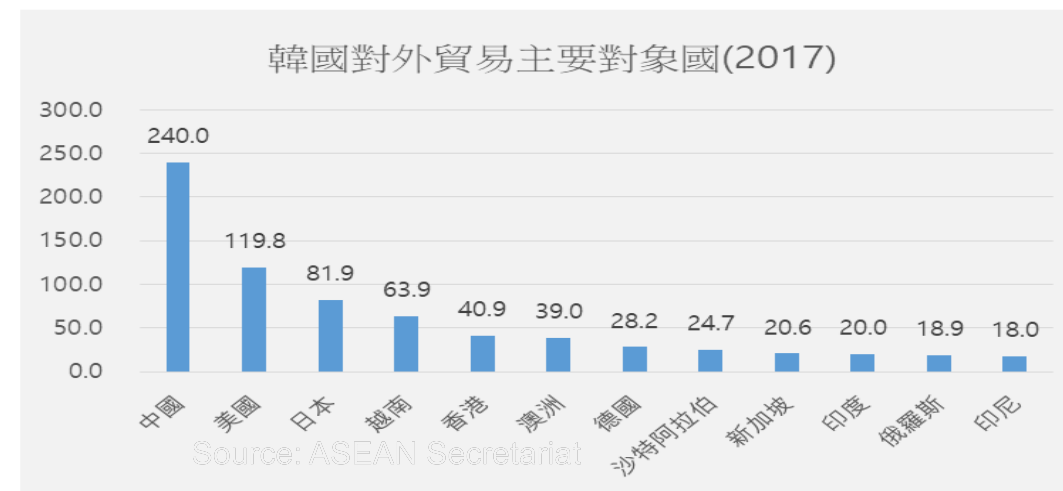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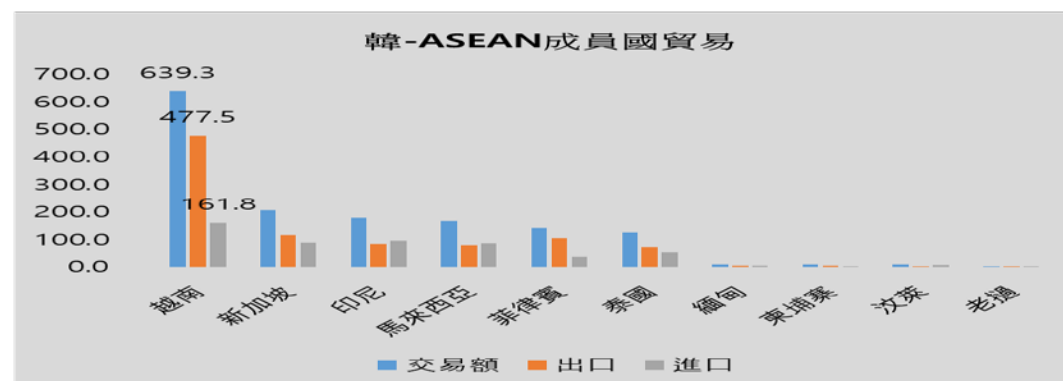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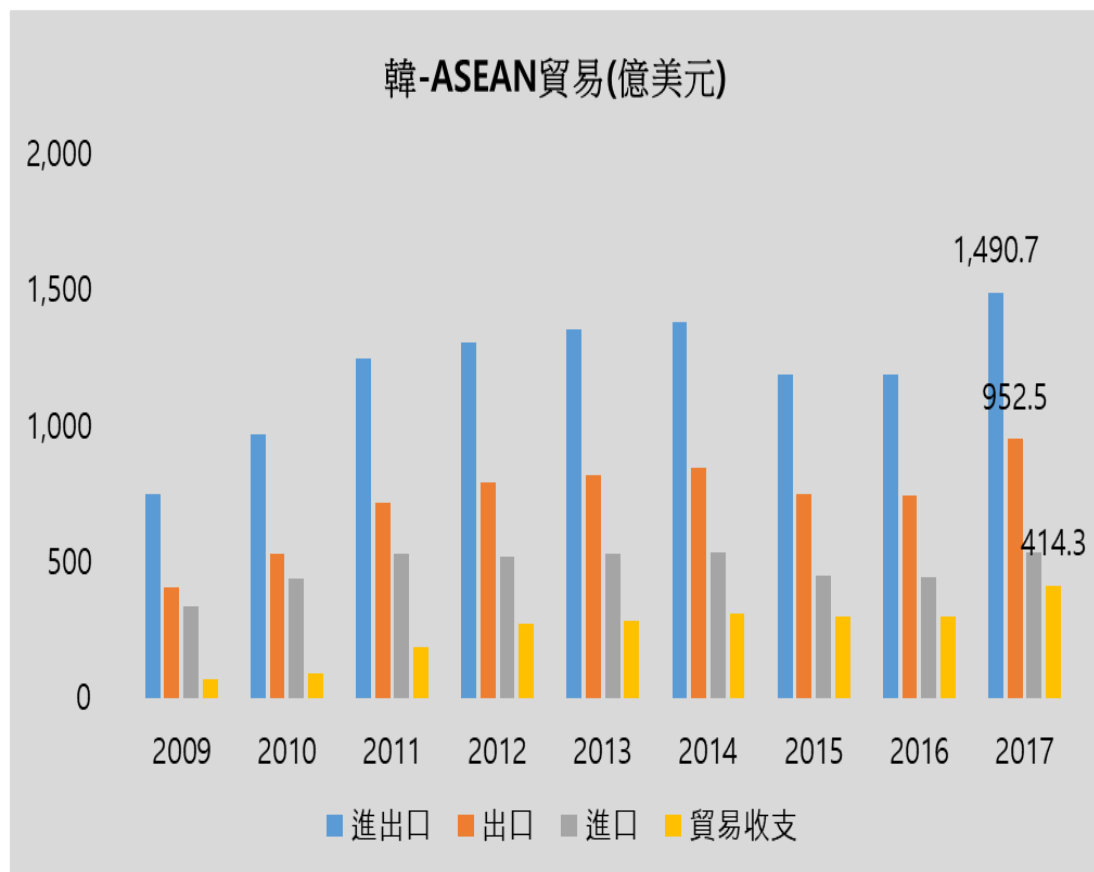


	加盟國	人口(萬)	GDP(億美元)	人均GDP(美元)	貿易(億美元)
ASEAN	10國	64,739	27,671	4,274	25,774
EU	28國	51,246	172,777	33,715	117,030
NAFTA	3國	49,159	221,936	45,146	56,188
MERCO SUR	6國	3,686	3,266	9,863	6,028

➤基於年輕穩定增長的東亞經濟整合樞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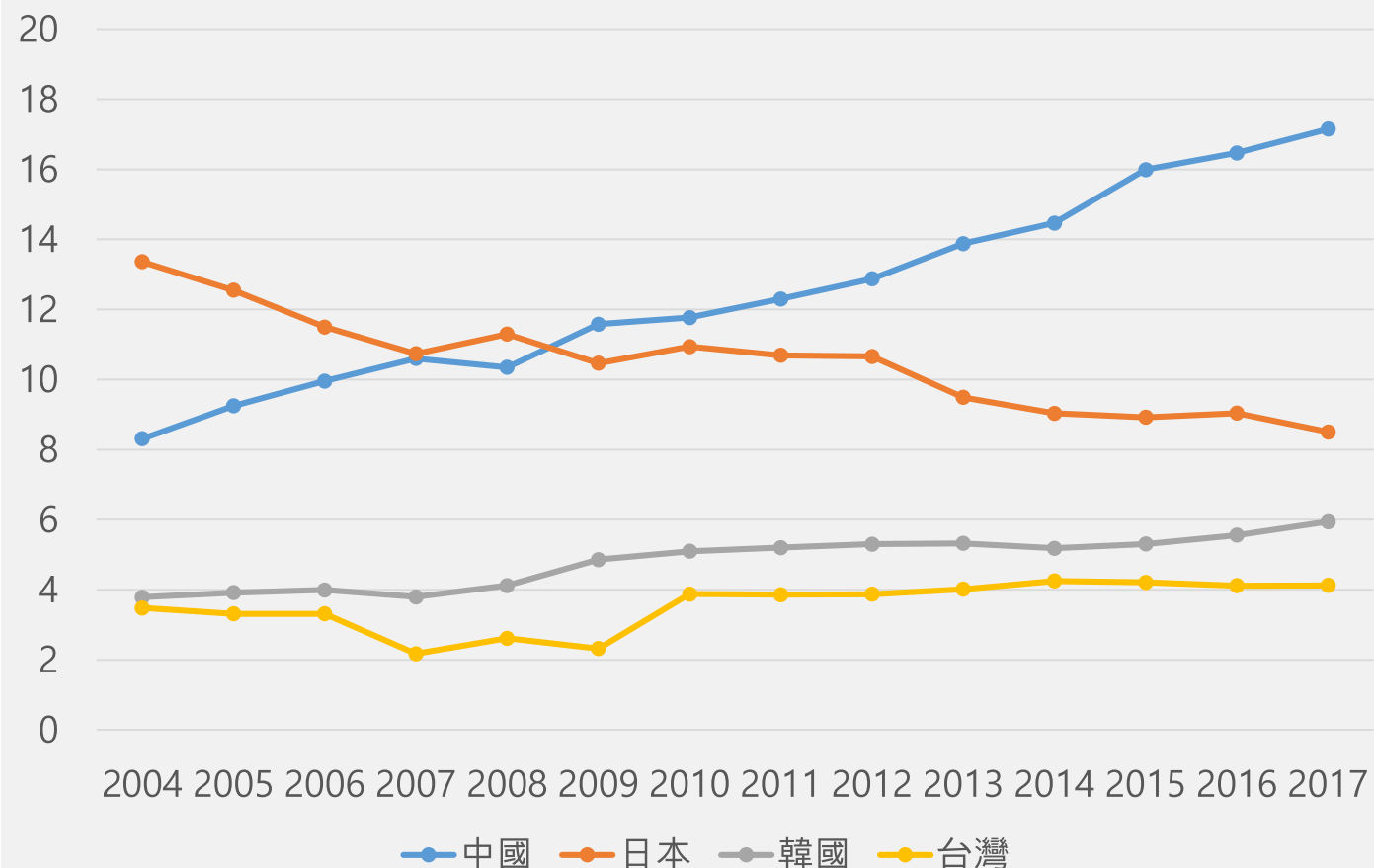
III 韓中-ASEAN經貿關係

- 截至2017年，韓國對東盟的出口額為952億美元，占出口總額的16.6%，順差超過400億美元。
- ✓ 韓-ASEAN FTA後交易規模增至2.1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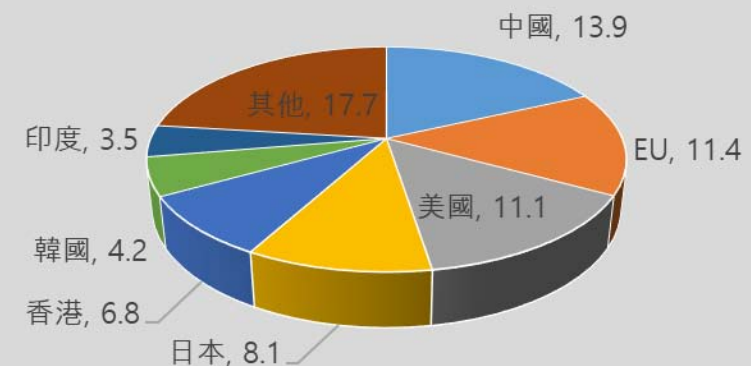
III 韓中-ASEAN經貿關係

ASEAN進出口主要交易對象國(比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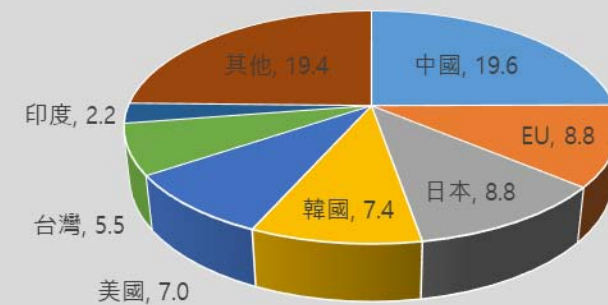


Source: ASEAN Secretari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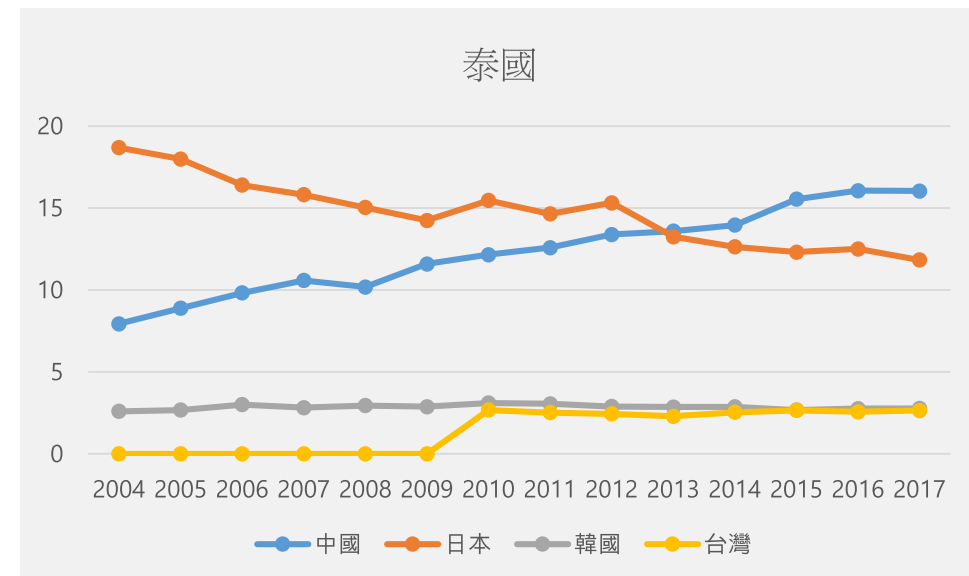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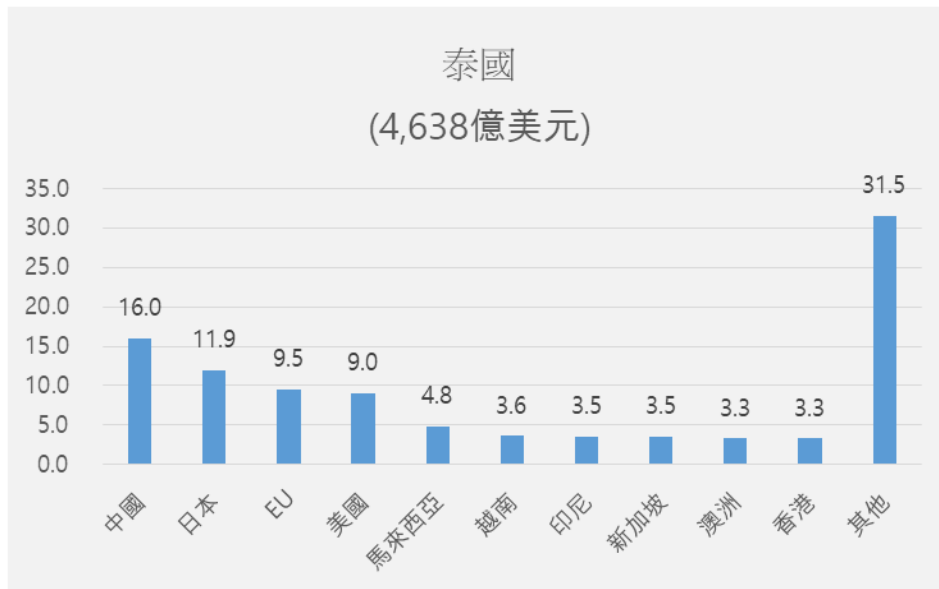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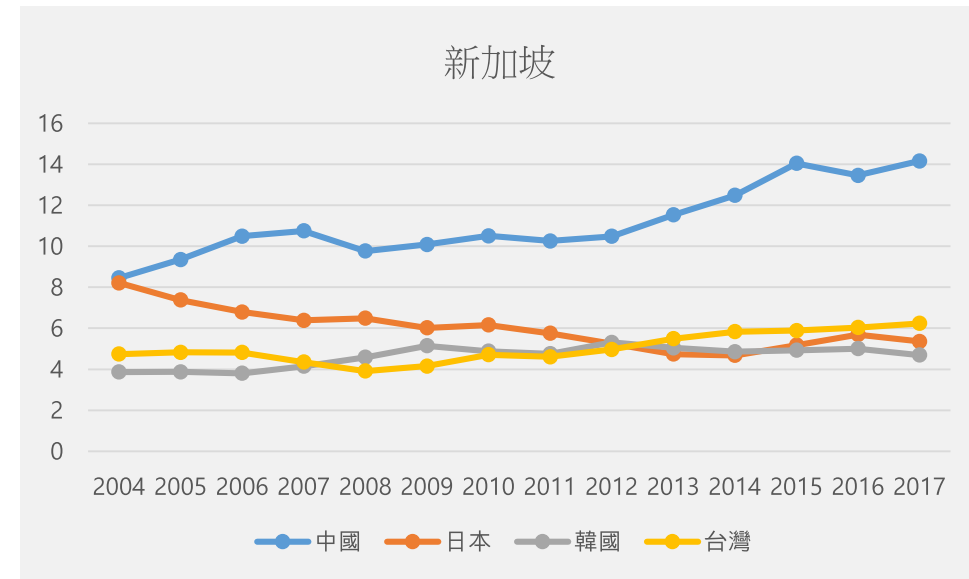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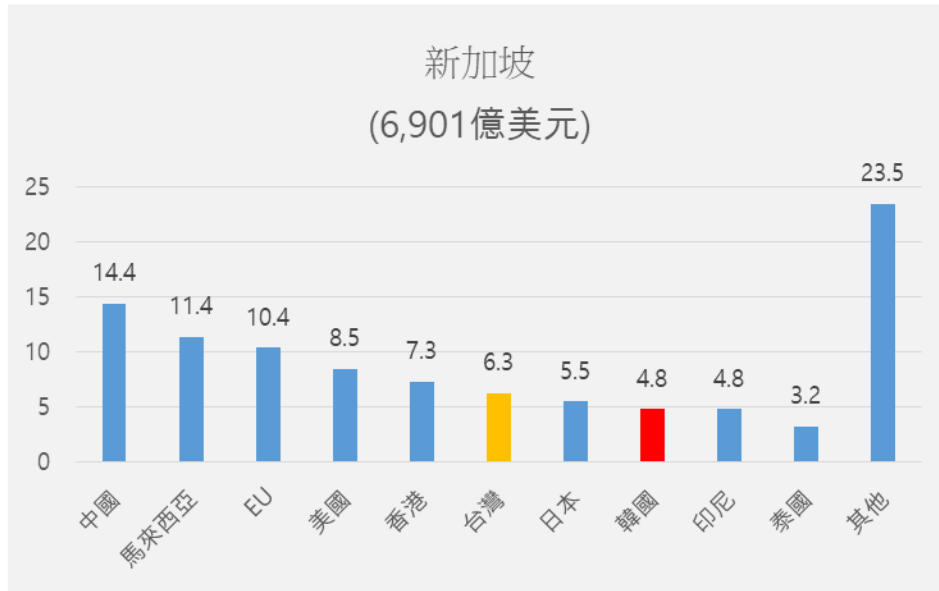
ASEAN出口對象國比重(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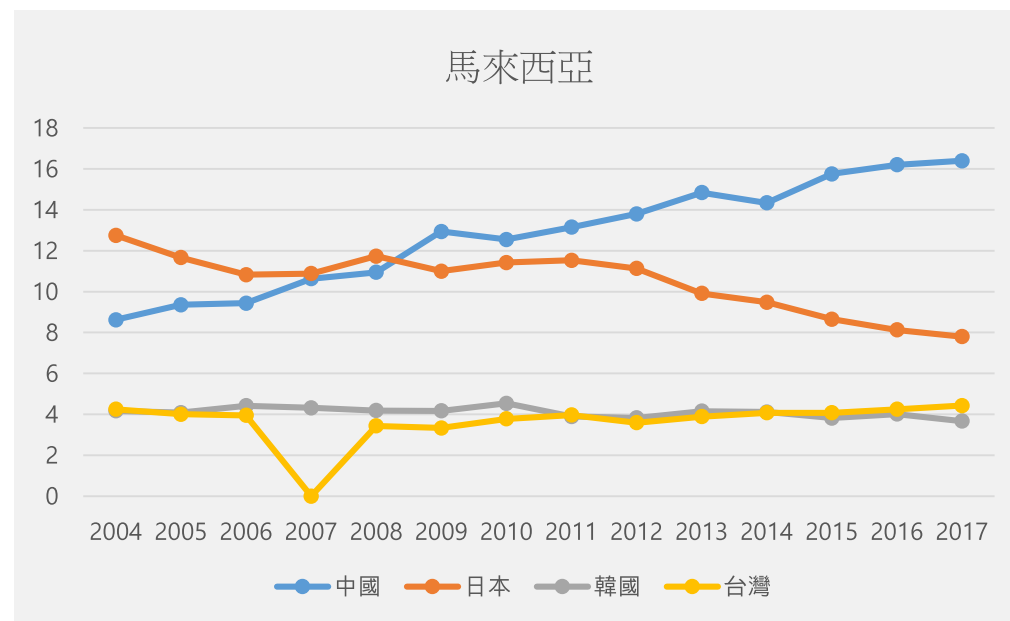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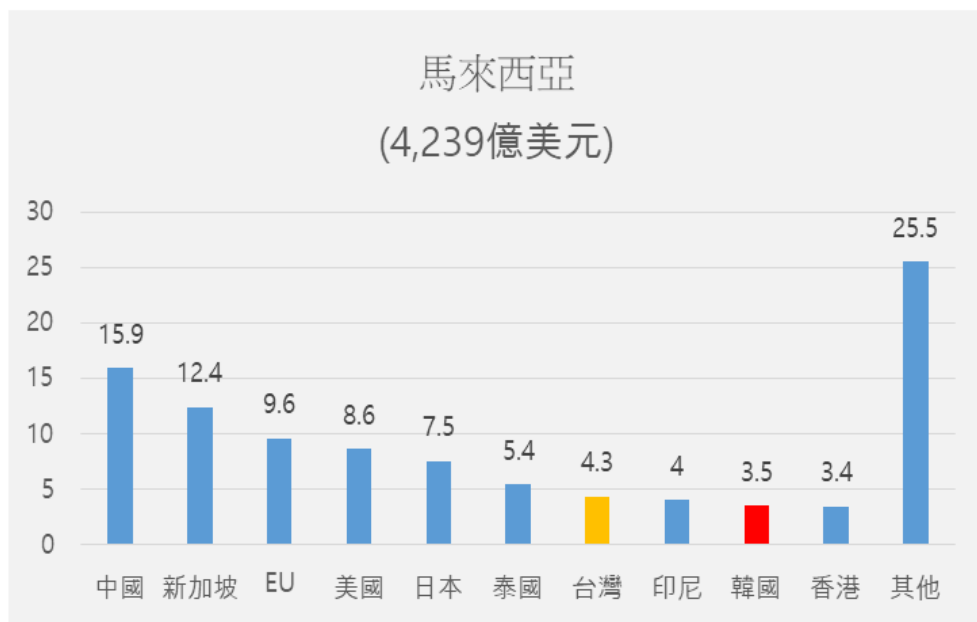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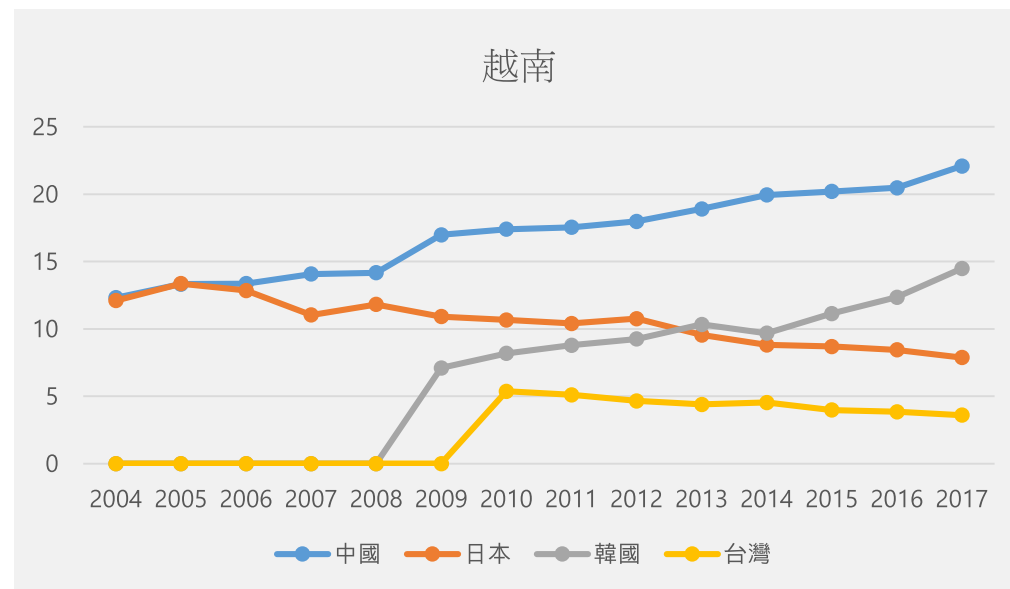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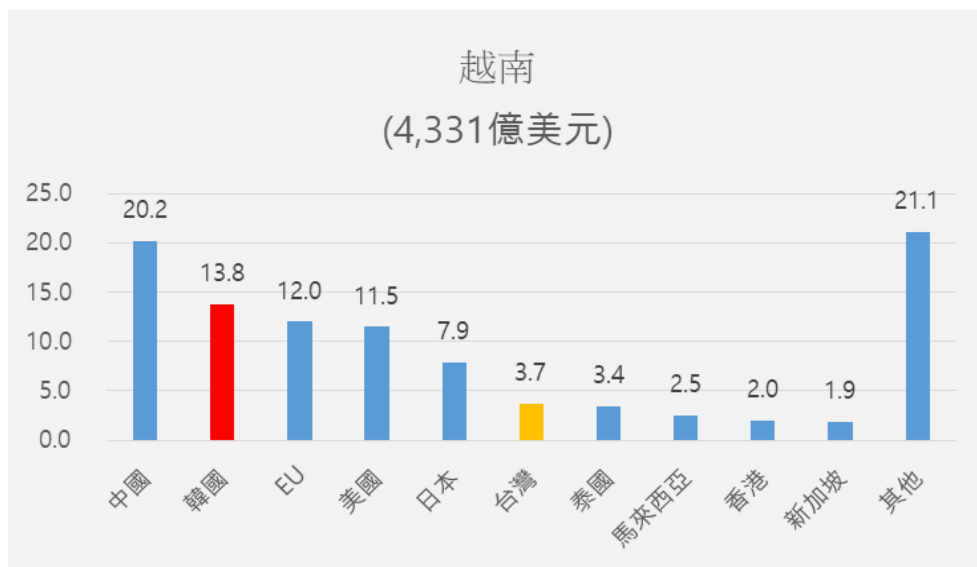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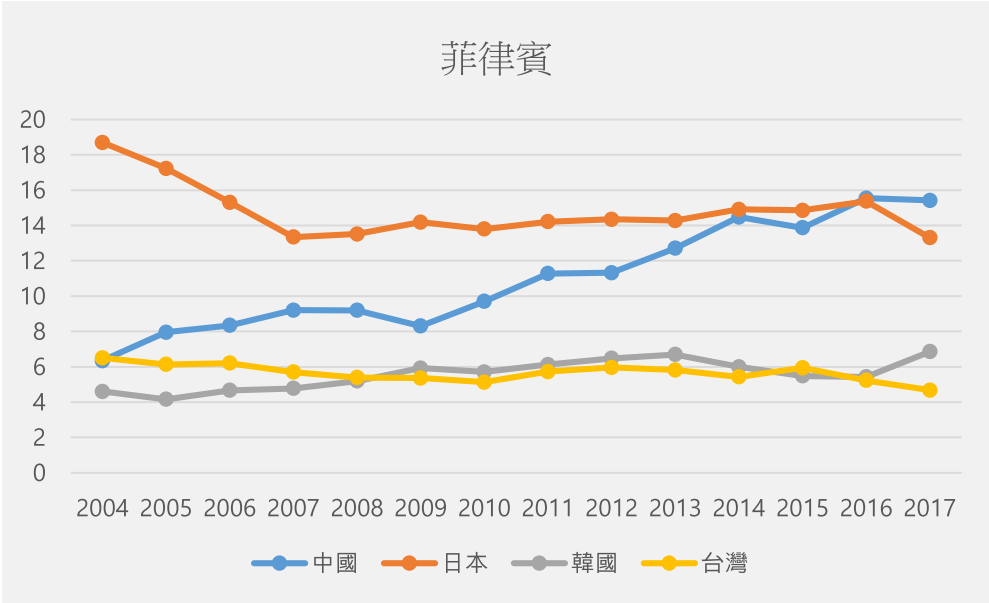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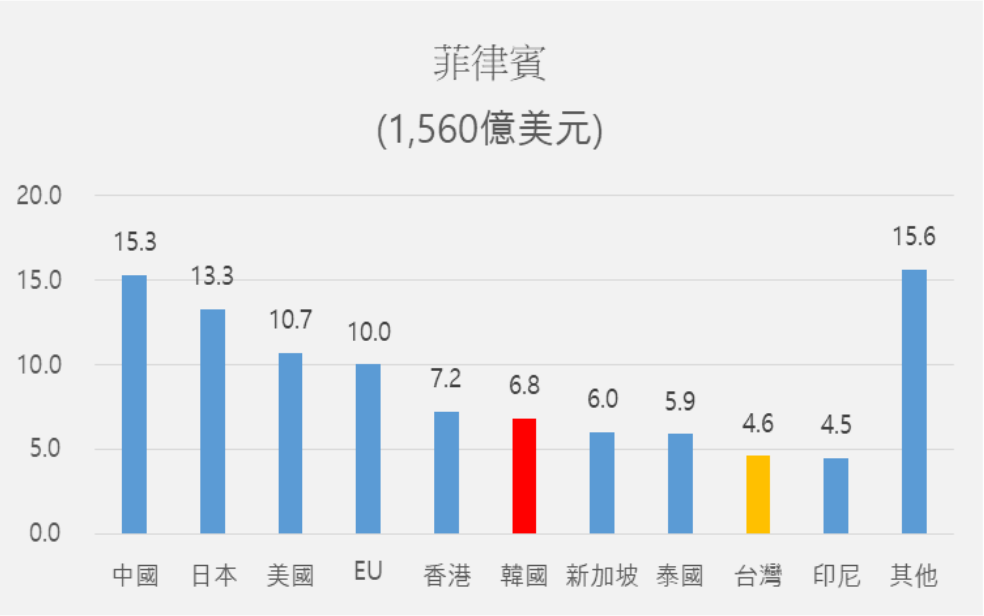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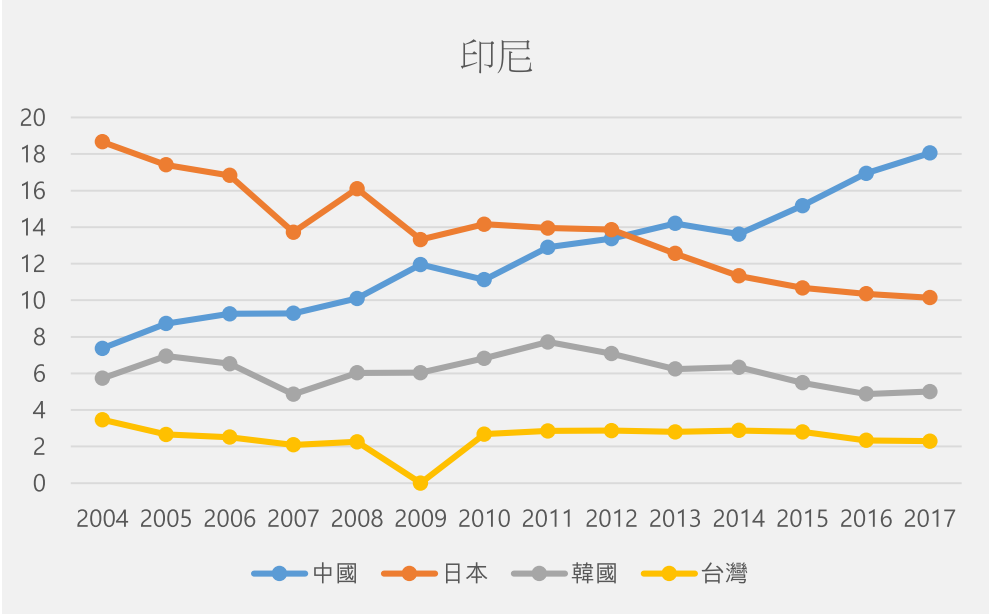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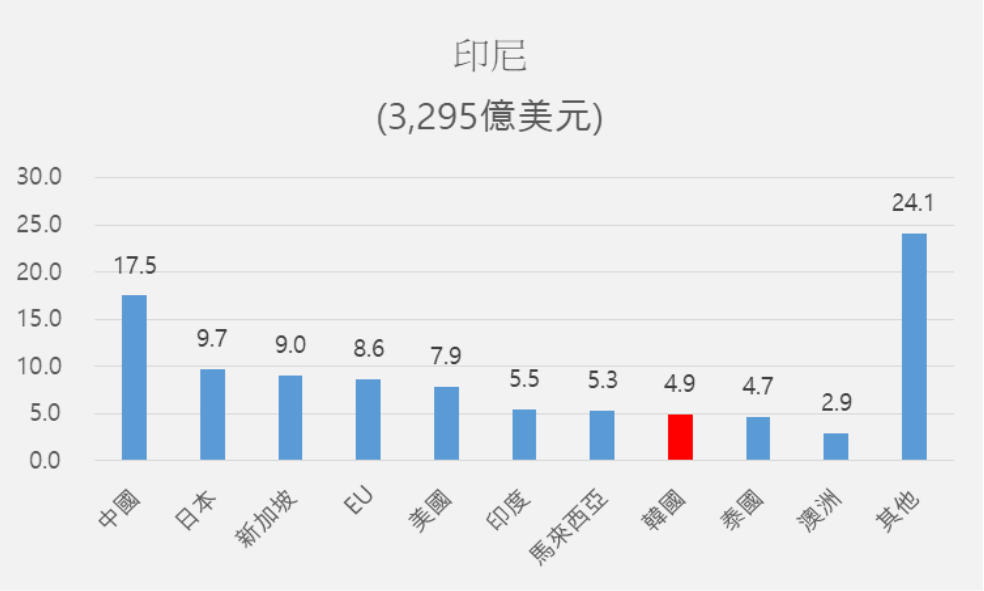
ASEAN進口對象國比重(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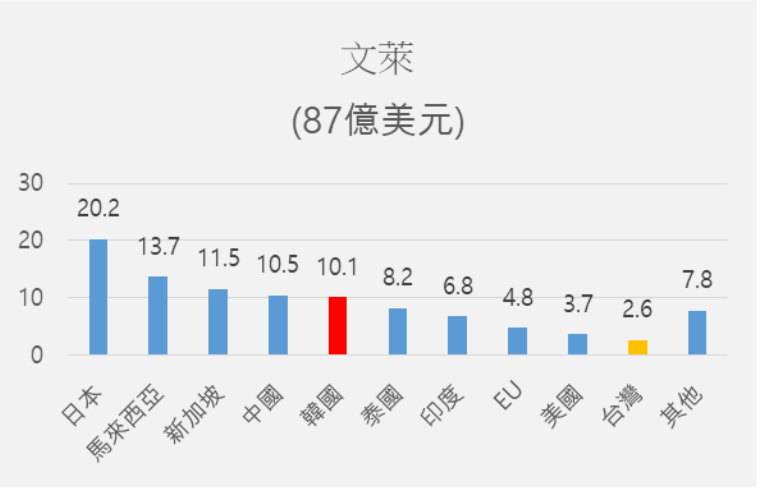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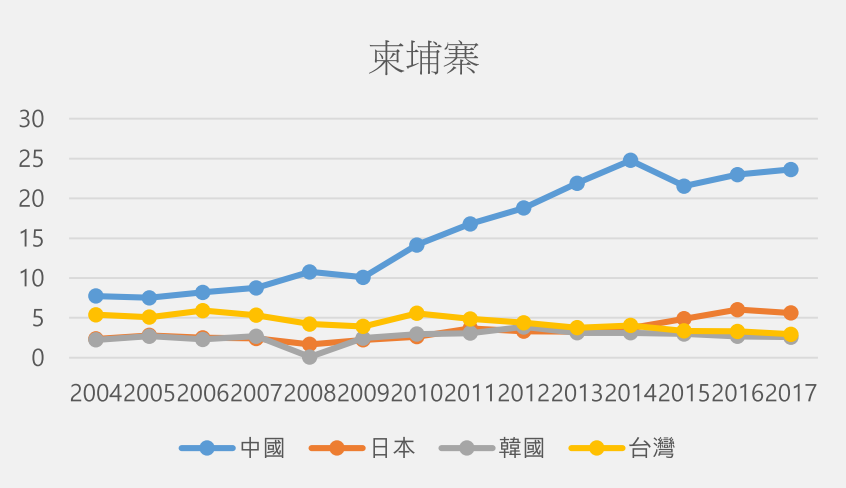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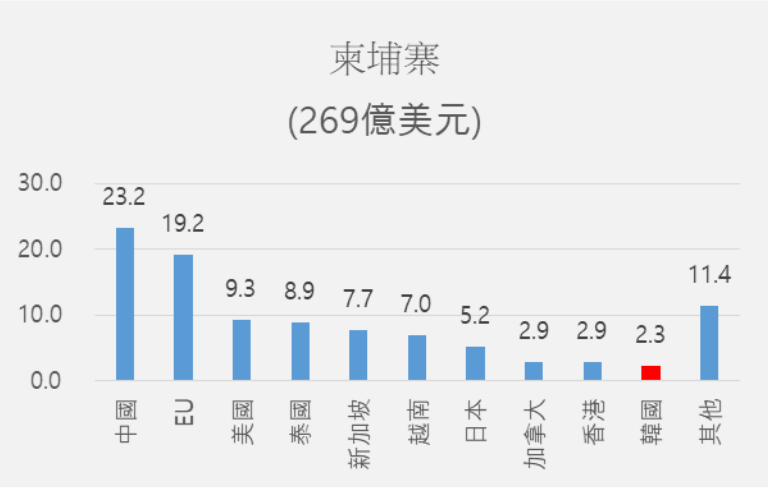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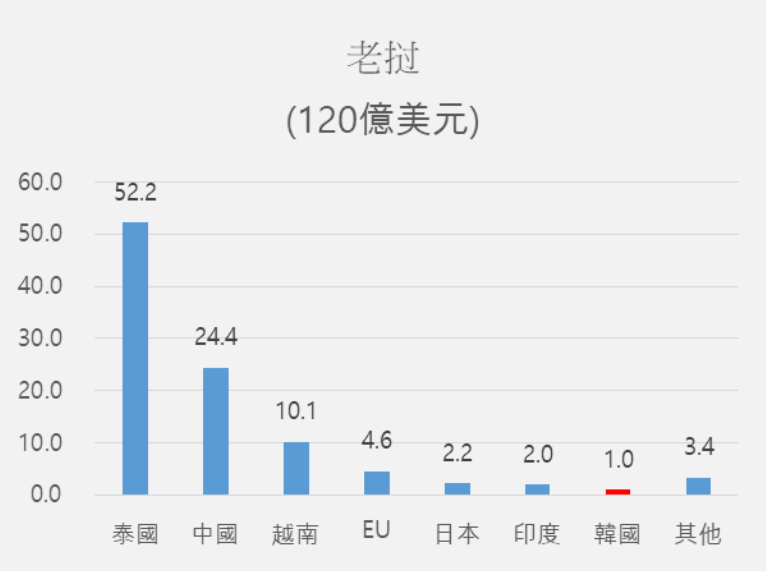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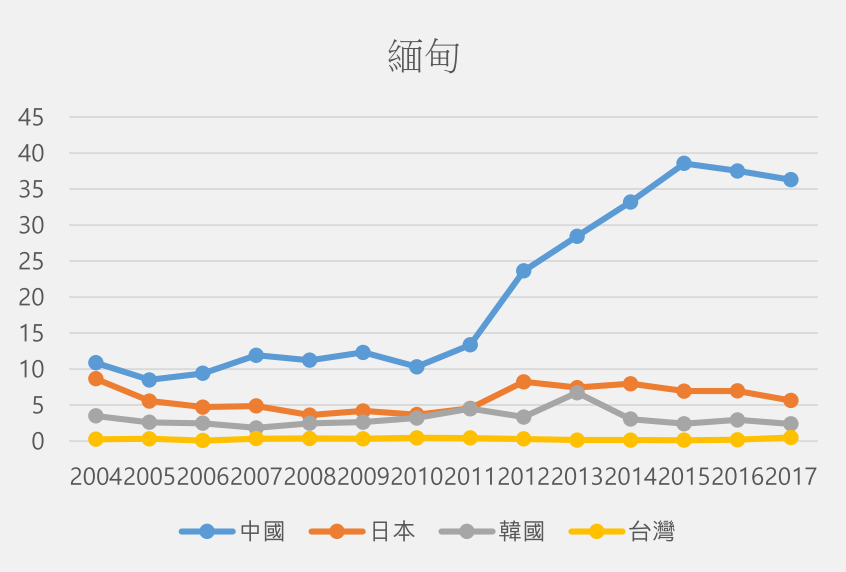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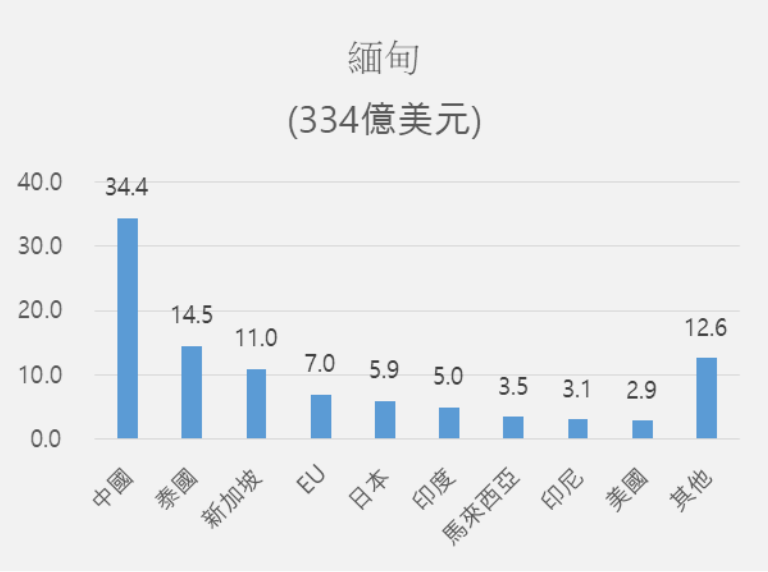
➤ 因個別國家條件不同, 合作重點對象國不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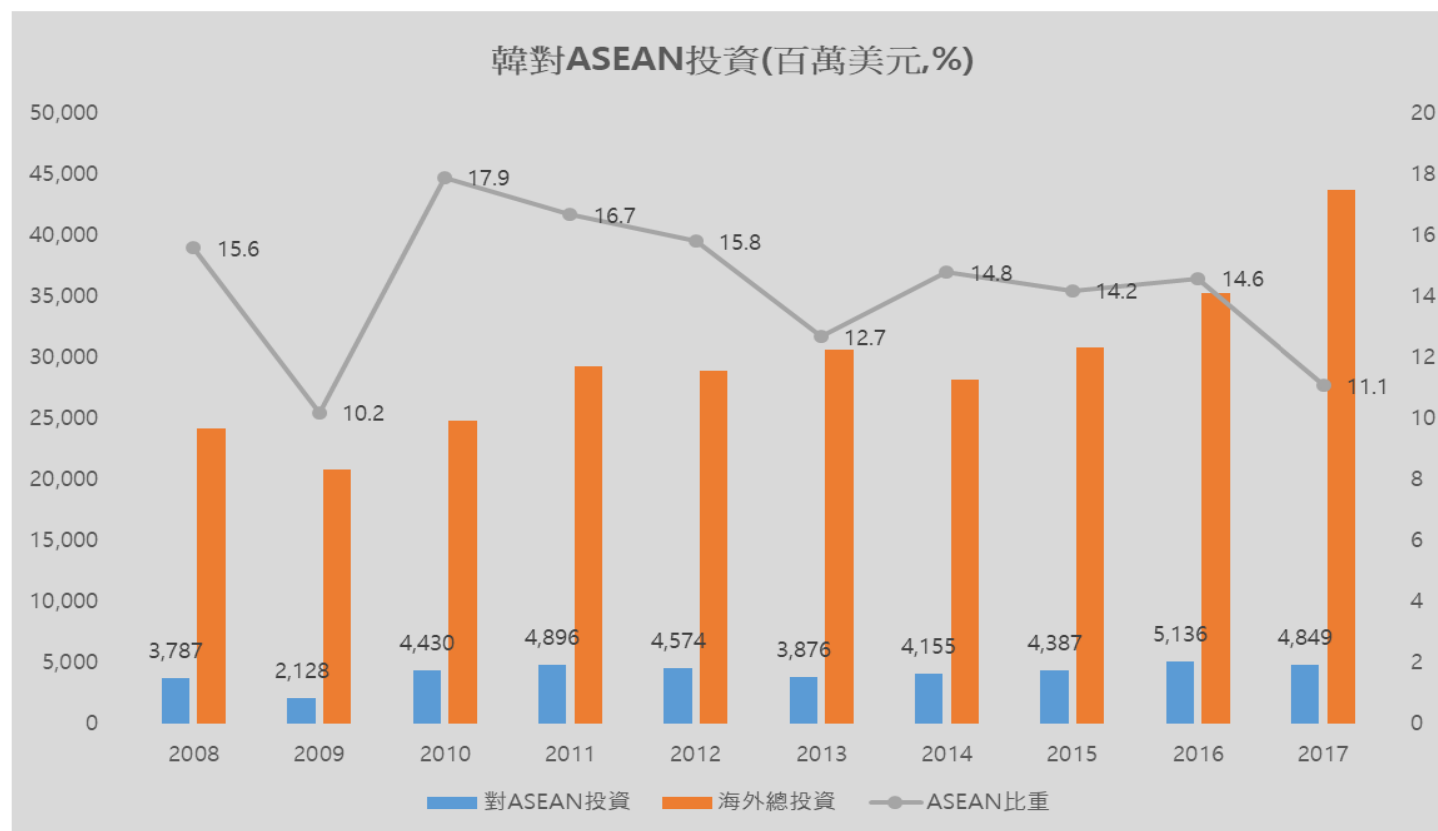
Source: ASEAN Secretariat



Source: ASEAN Secretariat

III 韓中-ASEAN經貿關係

- 韓對ASEAN投資小幅增長(2008年37.9億美元->2017年48.4億美元)
- 2017年, 韓對ASEAN投資約49億美元(占比11.1%, 中日各103億美元, 220億美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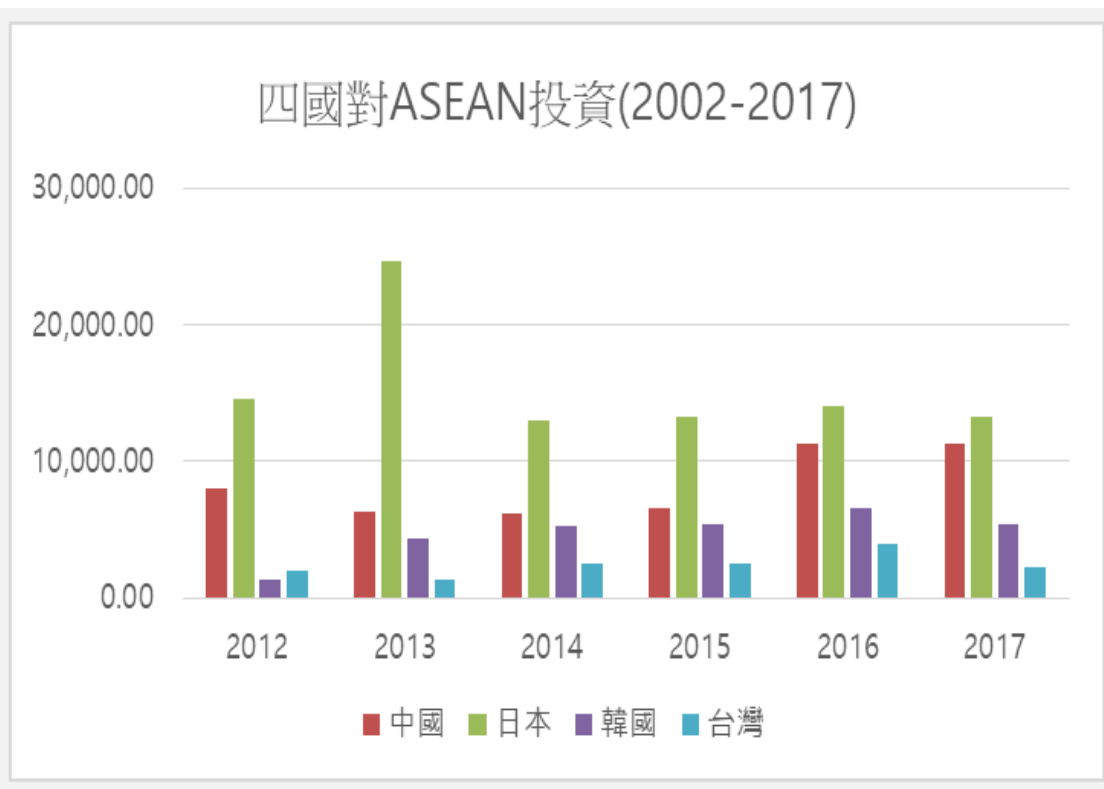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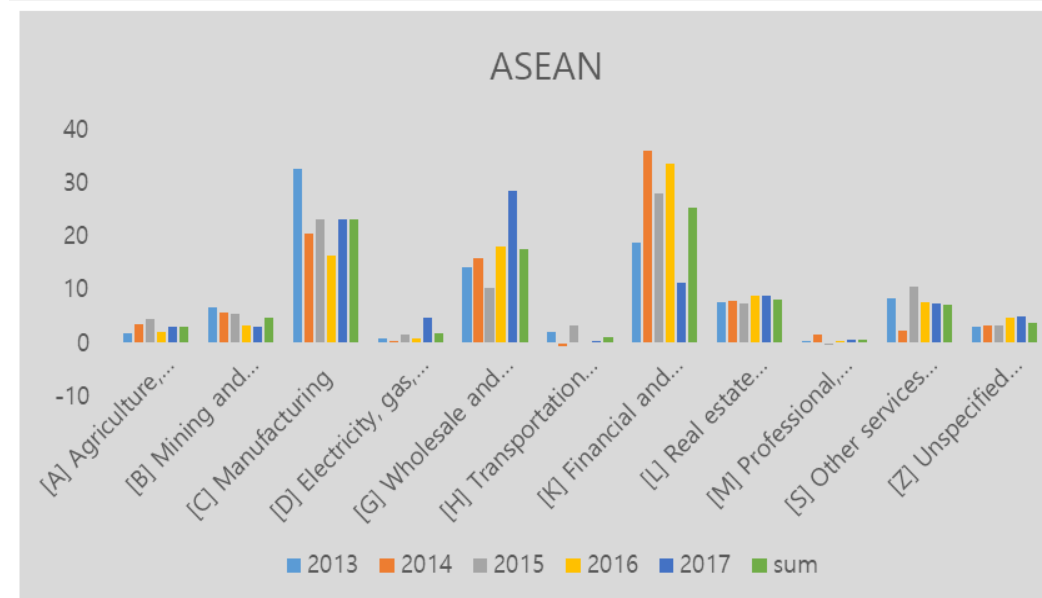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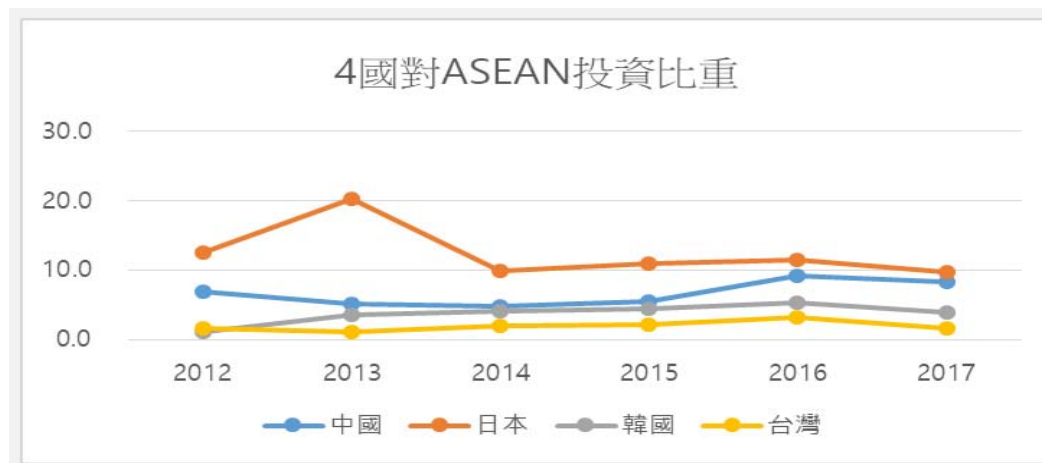
Source: ASEAN Secretariat

2017年	法人數	投資額(百萬美元)
越南	709.0	1,955.0
新加坡	100.0	1,022.0
印尼	89.0	669.0
馬來西亞	41.0	408.0
緬甸	61.0	278.0
菲律賓	48.0	217.0
柬埔寨	27.0	137.0
泰國	62.0	105.0
老撾	6.0	57.0
汶萊	2.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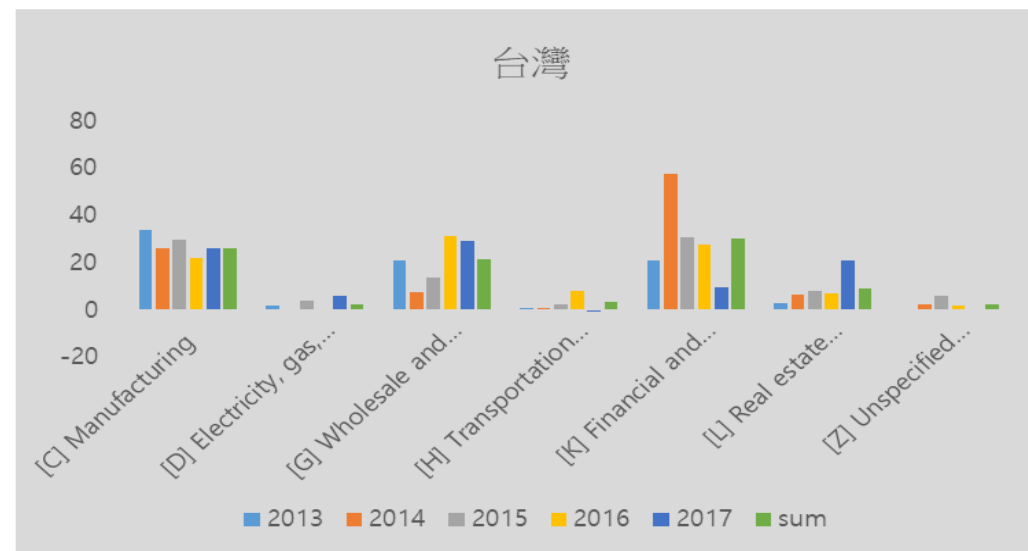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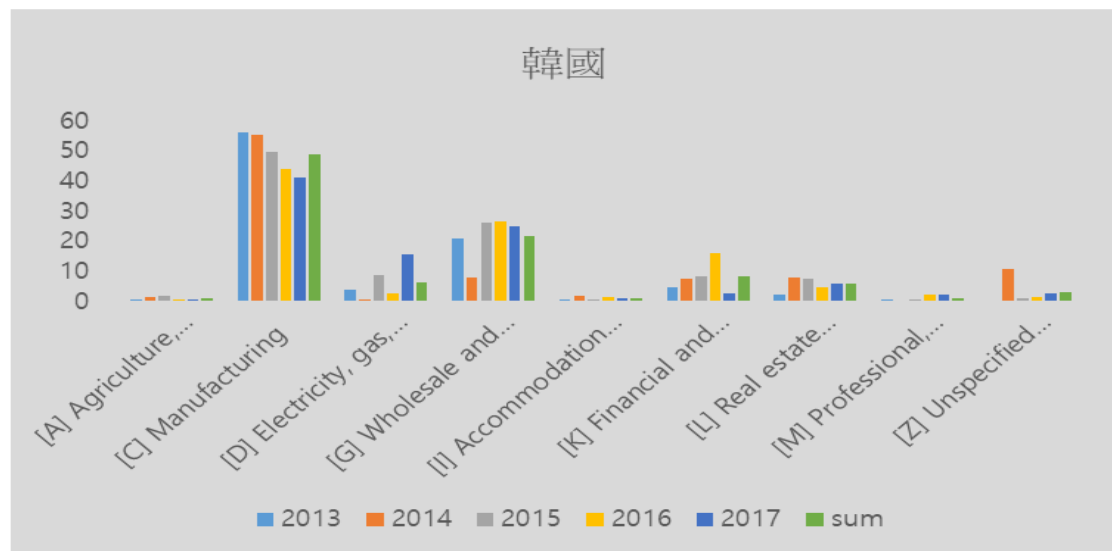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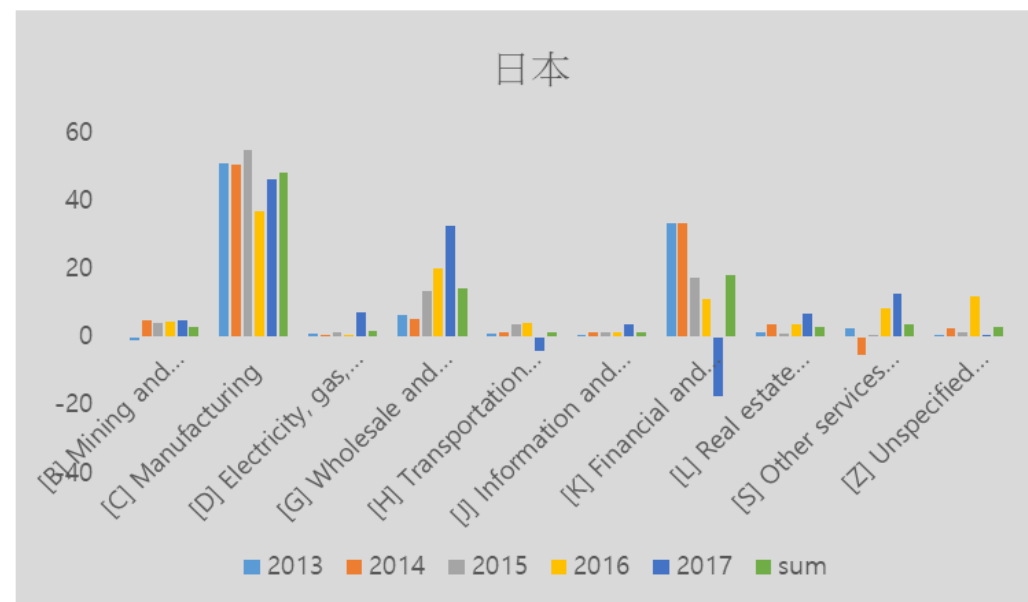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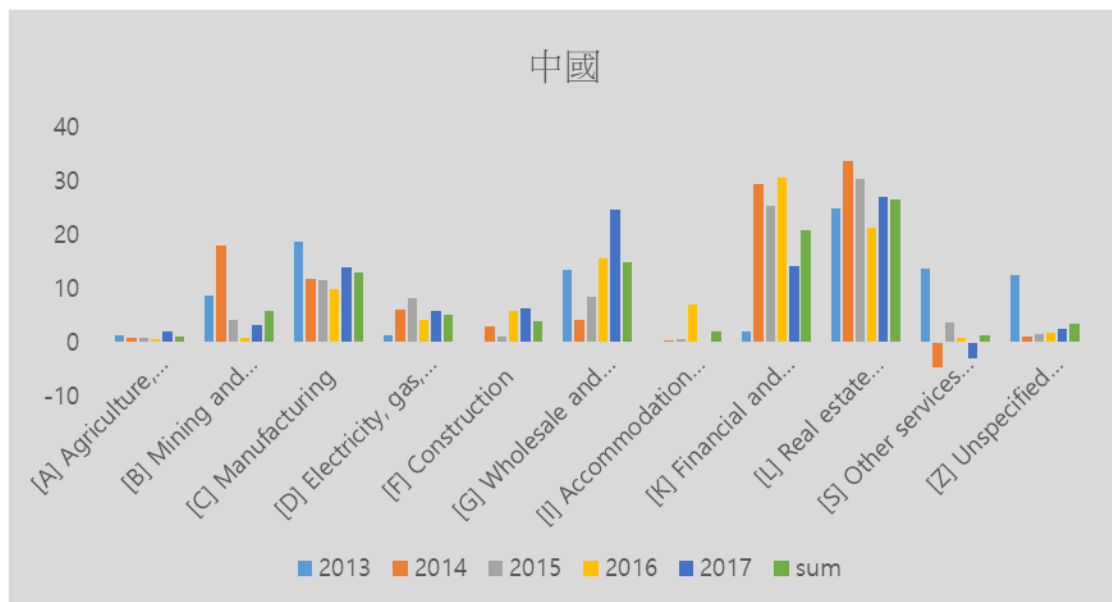
Source: 韓國進出口銀行

III 韓中-ASEAN經貿關係

- ASEAN為韓中日企業的重要投資舞台
- 垂直型FDI占主導地位，市場導向FDI逐漸擴大
- ✓ 區域內產業轉移; 13-17年服務業份額(58.8%→64.7%)



Source: ASEAN Secretariat



III 韓中-ASEAN經貿關係

➤ 20年來, 韓國對ASEAN ODA援助達39億美元(無償: 16.3億美元, 有償: 23億美元)

✓ 2016年日本對ASEAN ODA援助約35億美元

	1987-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累積總額
ASEAN	708.7	148	163.8	166.5	234.7	325.6	379.2	435.5	413.3	505.8	450.7	3,931.8
老撾	33.7	17.9	11.6	25.1	27.7	33.5	23.5	27.1	28.9	88.2	37.7	354.9
馬來西亞	4.2	0.6	1.2	1.1	1.7	1.9	0.4	0.1	0.3	0.5	0.4	12.4
緬甸	88	2.4	6.7	4	5.5	7.9	9	14.8	25.4	23.9	47.3	234.9
越南	199.6	28.4	58.6	62.2	101.2	146.4	207.6	242.5	186.8	225.9	185.4	1,644.6
印尼	200.2	31.2	23	31.7	28.2	31.7	44.5	39.2	29.6	46.6	50.5	556.4
柬埔寨	93.3	35.3	34.7	17	37.3	62.2	58.1	63.8	72.5	69.5	57.3	601
泰國	18.7	2.1	1.9	2.3	2.5	4.5	2.9	3.3	3.4	4.7	8.8	55.1
菲律賓	70.9	30	26.2	23	30.6	37.6	33.1	44.6	66.4	46.5	63.3	472.2

Source: OECD DB

IV 政策評價：新南方政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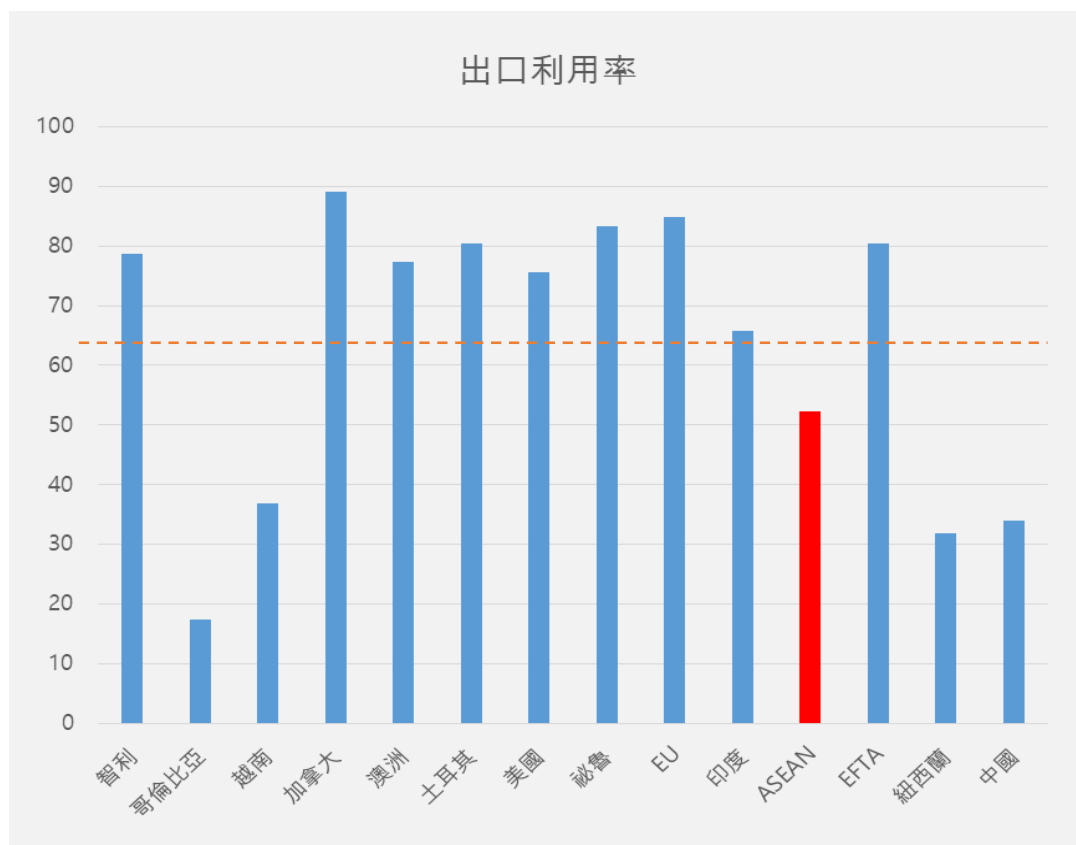
- “新南方政策” 做為 “均衡外交” 的大佈局下具有戰略性意義，將會對韓國的經濟外交方向產生較大的正面影響
- ✓ 過去對ASEAN採取暫時且零碎的做法，ASEAN政策並不是外交議程上的核心問題，很難積累長期成果，也沒有給予ASEAN對韓國的信心。
- ✓ “新南方政策” 通過加強與該地區各國的網絡，可加強韓國的外交地位增強韓國在大國中的自主和發言權
- 然而，“新南方政策” 尚未完善，需要可持續的中長期藍圖
- ✓ 已宣布的3P構成了新南方政策和對ASEAN政策的上層原則，但還處於抽象階段
- ✓ 基於外交多邊化和加強韓國的戰略槓桿，需要具體的，有系統的，可持續的中長期藍圖

IV 政策評價: 新南方政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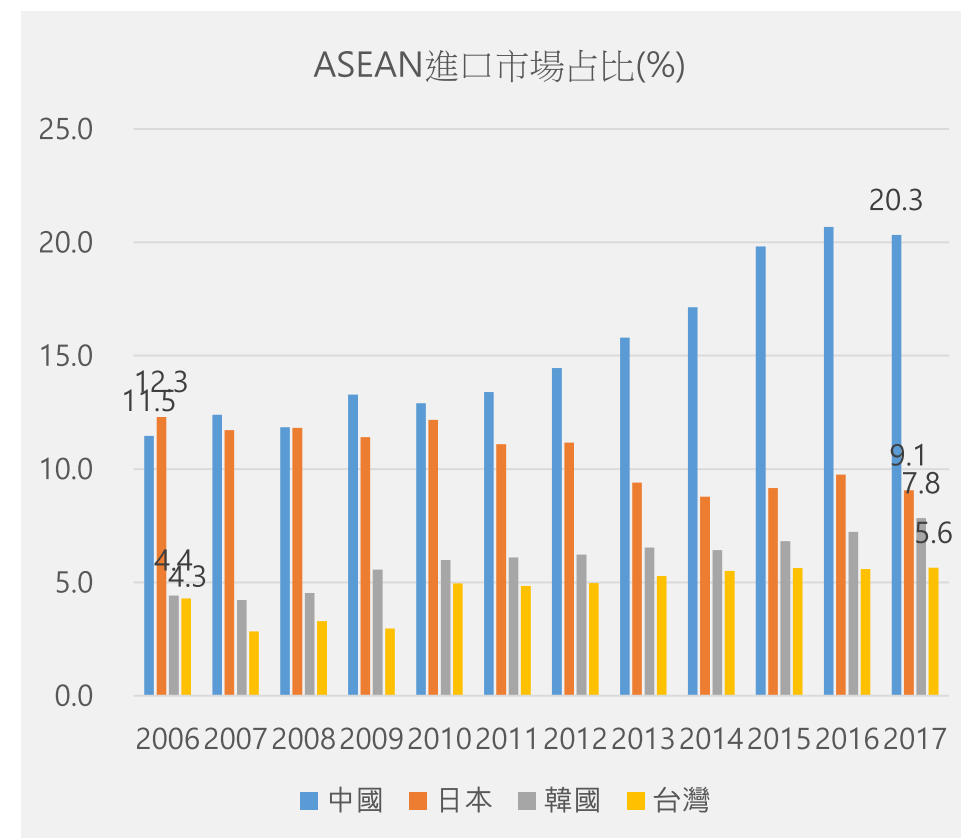
- 作為一種分散經濟風險的措施，有必要加強與ASEAN的經濟合作，以此作為確保新增長引擎
- ✓作為發展模式, 韓國的規模和發展階段適合**ASEAN**發展中國家的目標, 韓國的經濟實力, 民主化經驗, 文化軟實力也具有吸引力。
- ✓然而， “新南方政策” 方向仍局限於開拓市場框架，過於偏重越南市場
- 2017年對越南貿易金額占整體新南方政策地區之37.8%，占**ASEAN**之42.9%；投資越南之比重亦占**ASEAN**之31.4%；貿易順差，越南亦占33.2%。反之，韓國企業在印度進口市場之市占率僅為3.2%

IV 政策評價: 新南方政策

- 儘管ASEAN市場具有重要意義, 但ASEAN的競爭將加劇
- ✓ 韓-ASEAN FTA利用率較低(2016年的出口利用率為52.3%，低於平均自由貿易區出口利用率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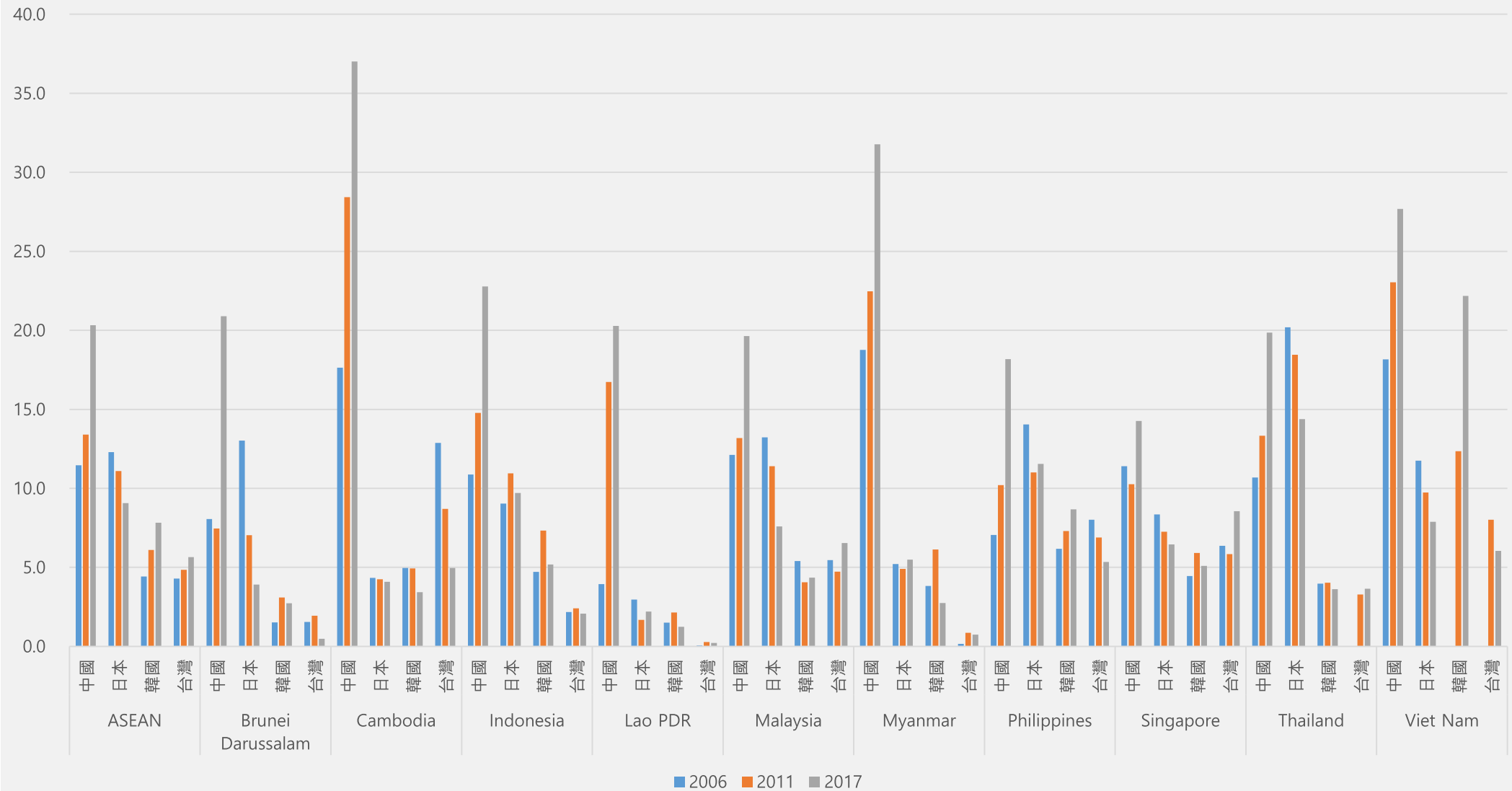


Source: KITA(2016)



Source: ASEAN Secretariat

ASEAN進口市場占比(%)



Source: ASEAN Secretariat

IV 政策評價: 中-ASEAN

- 中國—東協互利共贏的合作發展，在「一帶一路」建設中正發揮著領先和示範作用
 - ✓ 中國和沿線國家的貿易總值增長速度高於全國對外貿易增速3.6個百分點，
 - ✓ 對「一帶一路」沿線國家直接投資156億美元
 - ✓ 截止2018年底，國家開發銀行、中國進出口銀行在沿線國家貸款餘額約2500億美元
 - ✓ 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在沿線國家累計實現保額6000多億美元
 - ✓ 中國—東協共同舉辦的中國—東協博覽會和中國—東協商務與投資峰會，每年都將「一帶一路」作為其主題，為共建海上絲綢之路搭建了重要平台
 - ✓ 中國實施的海南自由貿易港建設、粵港澳大灣區建設等都給「一帶一路」中的中國與東協合作注入了新的活力

IV 政策評價: 中-ASEAN

- 然而,中國與“一帶一路”沿線國家之間缺乏政治信任，以及其他國家的不穩定和安全威脅，是相當大的障礙
- ✓“一帶一路”沿線國家中有近三分之二的主權信用等級低於可投資等級
- ✓2017年底由於中國強硬的融資條件，讓巴基斯坦、尼泊爾和緬甸3國確定取消或擱置與中國企業合作的3大水力發電工程
- ✓截至2017年底，與中國取消工程的國家包含巴基斯坦、尼泊爾、緬甸、斯里蘭卡、孟加拉、印度、寮國和泰國
- ✓中國近年來在對外關係上採取積極與強勢作為，引起周邊國家之反彈

V 啟示點

➤ 需要擺脫零和遊戲視角

- ✓ 隨著中美的韓國戰略發生巨大變化, ASEAN被認為是實現經濟合作目標多邊化的最有可能的候選人
- ✓ ASEAN不是一個獨立完成的經濟區域, 它似乎與韓中日一起形成的東亞經濟體系
- ✓ 因此, 近期中國和ASEAN的貿易和投資集約化可以看作是東亞分工的深化和ASEAN市場的成熟, 在這種情況下, 韓國應該考慮如何以互利的方式與東南亞合作

V 啟示點

➤ 韓中藉互補關係尋找加強經貿合作途徑

- ✓ 韓國在ASEAN市場被中國的價格競爭力和融資能力以及日本的技術實力和品質之間萎縮
- ✓ 在ASEAN掀起反中國情緒的擴大表明，韓國政府和企業在當地投資和基礎設施項目中遵守勞工和環境標準將更為重要，在ASEAN競爭“聲譽”將格外重要
- ✓ 韓中尋找共識支持參與東盟市場，並在經貿、產能與建設上合作，藉此實質強化與東盟的產業與經貿關係
- ✓ 基於與中日合作經驗，需要加快共同開拓包括ASEAN在內的第三方市場：產業園區；基礎建設；金融；高新技術領域尋找合作模型

謝謝

중국의 새로운 대북한 전략: 소프트파워 전략(?)

목차

1.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관련 연구 흐름
2.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강화 과정 회고
3. 중국 대북 전략의 새로운 단계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홍원표 (충남연구원)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관련 연구 흐름

- 01. 북중 관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
- 02. 학문적 거리 유지의 곤란
- 03.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에 대한 시각

■ 지경학적 접근: 중국의 변경 인프라 중시

동북진흥계획, 창지투계획, 일대일로, 경제 특구 등
중국의 개발계획과 북한의 연계에 초점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우려와 북한 개방 촉진 양면성 강조

■ 국제정치학적 접근: 북한의 핵개발을 둘러싼 미·일·중·러의 각축

핵실험, 미국의 중국 압박, 중국의 북한 영향력, 한반도비핵화
중국의 대북 핵개발 영향력 중심
북한 핵을 둘러싼 UN제재와 중국의 이중적 태도 중심

■ 체제전환론적 접근: 중국, 베트남, 북한의 비교

북한 체제개혁에 대한 관심 위주
체제전환 경제와 북한과의 비교 연구 중심
중국의 북한 영향력에 관한 북한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중심

■ 국내 정치와 밀접한 상호작용

국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남북경협 중요성 증대
남북경협은 대선, 총선 등에 영향
대북 노선 둘러싼 정당 간 극명한 이데올로기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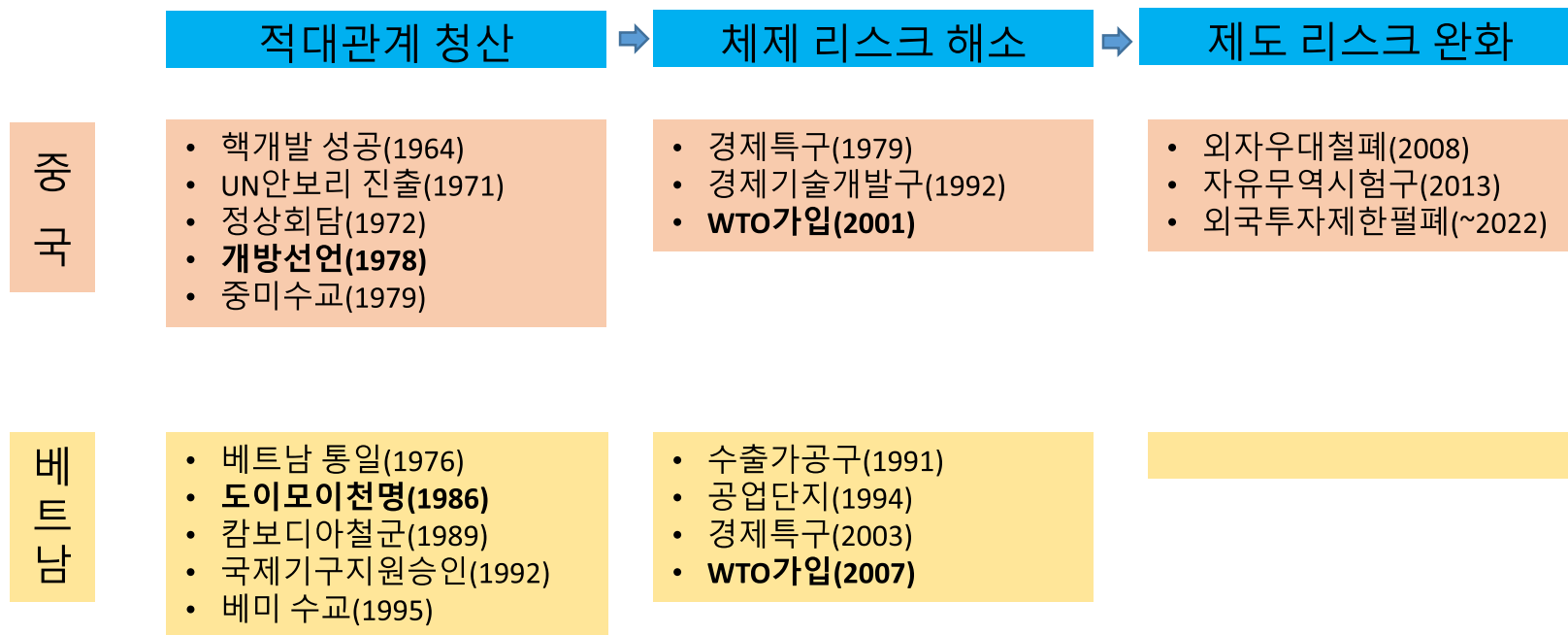
■ 급변하는 국제 정세

전쟁 불사론(2017) → 남북/북미정상회담(2018) → 북미실무회담 결렬, 북한의 강경 선회(2019)
변화를 좇는데 급급: 학문적 분석보다 시사 해설 접근

■ 북한 노선의 유례 없는 특이성

동구 사회주의국가들, 중국, 베트남과는 또다른 길
선행 사례의 준거 가치 약화

- 북한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중국의 1960년대 (1964~1971)
 - 베트남의 1980년대 (1986~1992)



[그림] 중국, 베트남의 개혁개방 과정

■ 북한의 전략적 선택 시각

일본 중시 → 한국 중시 → 중국 중시 →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 위해 다각도로 협상대상 저울질

북한의 주도성 강조

■ 중국의 전략적 선택 시각

중국의 대외전략, 동아시아전략, 한반도 전략 등 각도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강화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중시

■ 국제 패권 시스템 시각

한미일 동맹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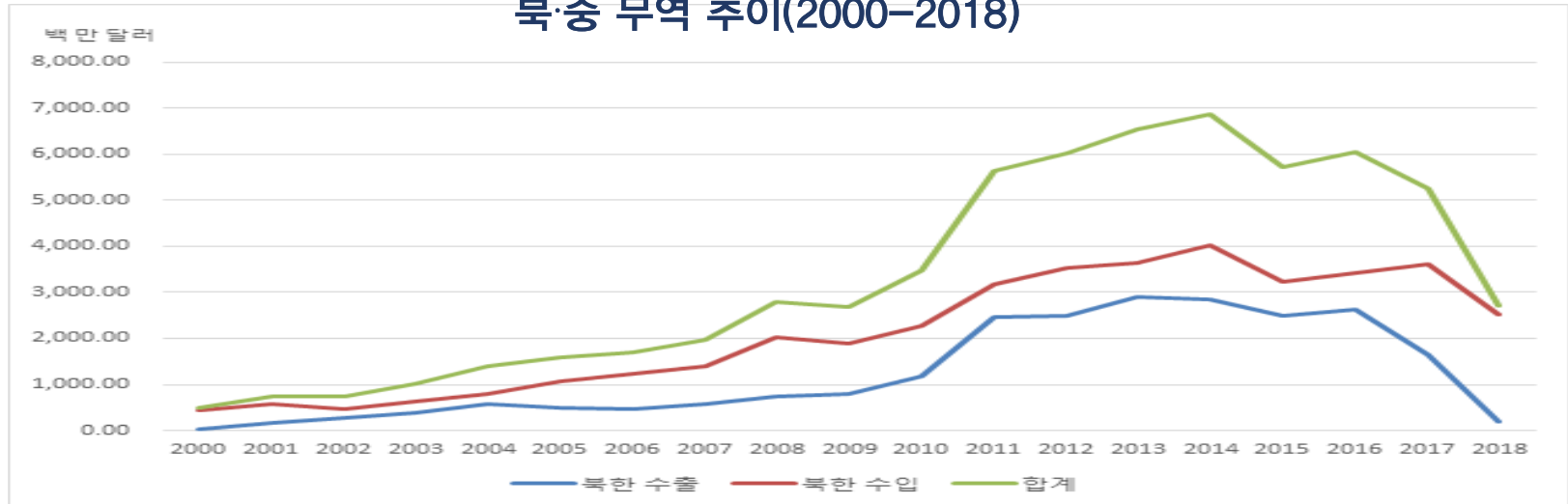
중국의 자체 결정보다는 상황에 따른 결과로 이해

국제 패권 시스템에 대한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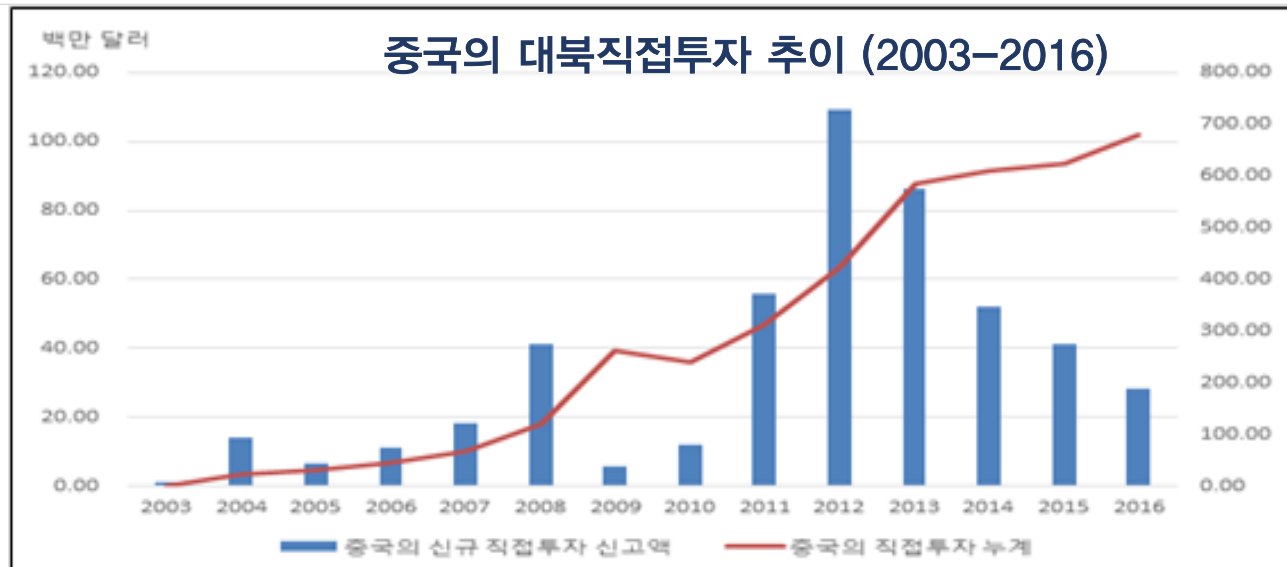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강화 과정 회고

- 01. 전 과정(2002-2016)의 리뷰
- 02. 중국의 대북 영향 강화의 결과
- 03. 시기 구분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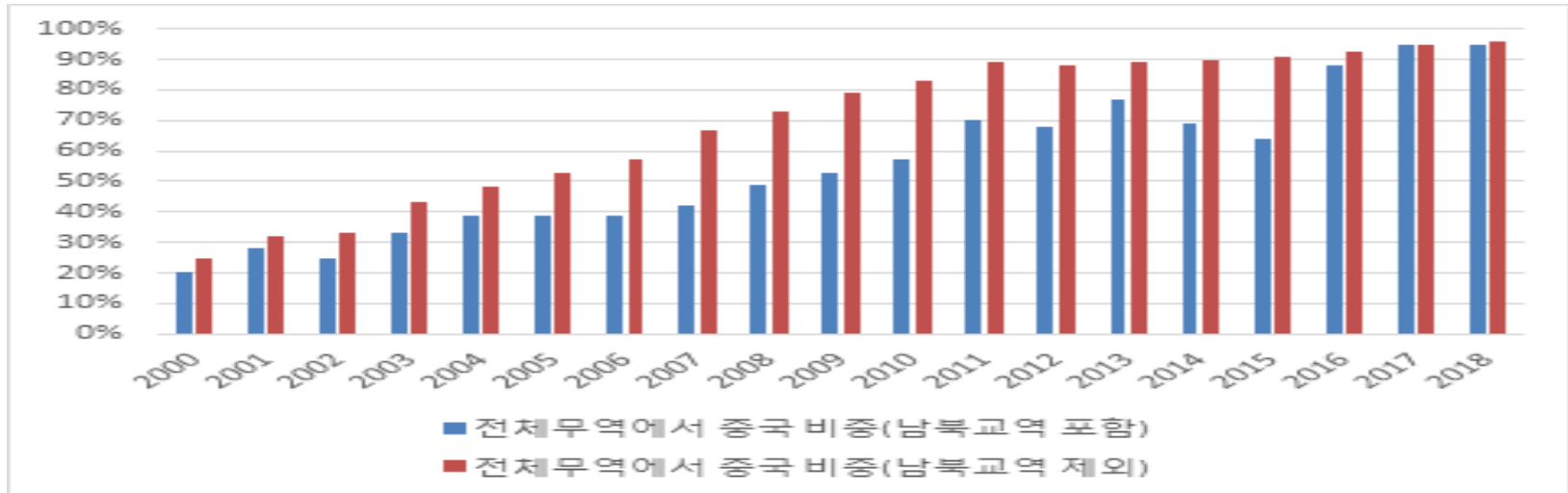
북·중 무역 추이(2000-2018)



중국의 대북직접투자 추이 (2003-2016)



■ 중국에 대한 극단적 무역 의존: 95%



■ 북한경제의 인민폐化

구분	화폐개혁 이전(2006-2009) 탈북		화폐개혁 이후(2010-2014) 탈북	
	국경지역	非국경지역	국경지역	非국경지역
북한화폐	76.7	71.8	42.1	61.3
위안화	22.1	5.7	57.4	8.6
달러화	1.1	22.5	0.5	30.1

- **북한의 전략 변화에 대응한 중국의 전략 변화를 시기 구분 기준으로 삼아야 함**
 - 북한의 전략 변화가 중국의 대북 전략 변화를 추동
 - 북한의 (정치적) 자주성에 대한 인정
 - 중국과 북한 역량의 비대칭성에 대한 인정
- **북한의 전략 변화**
 - 7.1조치(2002): 선군정치下 북한 개혁개방의 본격화 신호
 - 경제·핵 병진 노선(2013): 핵보유 의지 공식화
 - 경제건설 총력집중(2018): 핵보유 완성, 경제건설에 집중

구분	강화 단계	소강 단계		새로운 단계(?)
		정체 단계(1)	정체 단계(2)	
시기	2002	2013-2016	2016-2018	2018~
북한 전략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 조치 신의주 특구 지정 개성공단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핵 병진 노선 북한 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6, 7차 핵실험 SLBM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건설 총력 집중
중국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급증 투자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정체 투자 급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급감 투자 정지 	
국제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북핵위기(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북핵위기(2016~현재) 	

중국 대북 전략의 새로운 단계

- 01.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전략
- 02. 중국 대북 전략 관련 3가지 매개 변수
- 03. 중국의 신 대북 전략: 소프트파워 전략
- 04. 최근의 진전상황

-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채택(2018.4.2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 경제 · 핵 병진 노선(2013.3)의 역사적 과업 마무리 선언
 -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 제시
 -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대내외 인정 요구
 - 북한정권 수립 이래 군사 우선 정책의 최초 폐기
- 북한의 전략 변화
 -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에서 경제사업 우선시
 - 비핵화 참여 선언
 - 인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풍요’ 비전 제시

- 일대일로로 진화
 - 초기 초국경 인프라개발 전략에서 중국의 대외전략으로 진화
 - 신형외교관계(동맹), 운명공동체의 강조
 - 동북3성의 경제발전의 요구 수용
- UN대북 제재
 - 중국의 UN대북 제재 참여
 - 3차 북핵위기에서 중국의 역할 모호: 1차위기는 북미직접협상, 2차위기는 6자회담
 -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기여 압박
- 북한 개혁개방 모델 이슈
 - 김정은의 베트남 모델 추진 언급 → 서방세계에 대한 경도 우려
 - 한국의 중개자 역할에 대한 견제
 -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 성과: 무역,투자,인프라 및 경제의 인민폐化

- 중국의 대북 영향력의 전방위 강화
 - 무역, 투자, 개발 등 하드파워의 공세적 추진
 - 이데올로기, 정책, 문화 등 소프트파워 강화 추진
- 북한의 핵 위협의 거세
 -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과 경제건설 지원 약속
 - 북핵 동결 내지 축소 유도 → 동북아 영향력 확대
- 북한의 중국화, 흡수 전략 준비
 - 북한사회의 중국화 겨냥
 - 일대일로 '운명공동체'의 적용

- 중국인 대북 관광 확대
 - UN대북 제재 예외조항 이용, 무역, 투자를 대신한 외화 공급
 -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별 관광 추진
 - 제2차 북중 정상회담(2018.5) 이후 중국 관광객 폭증
 - 2018년 북한 외국 관광객 20만 돌파, 중국인 90% 차지
 -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 훈춘 샤튀즈(沙陀子) 통상구 국가급 승격(2018.10-11월)
 - 김정은, 평남 양덕군 온천지구 시찰시 남측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2019.10.25)
- 일대일로의 공세적 추진
 - 나진선봉, 신의주 특구 공동개발 추진 준비
 - 김정은 3차북중회담 후 최초 행선지 신의주 신도군(황금평) (2018.7)
 - 삼지연군, 자강도 등 북중접경지역 집중 시찰
 - 단종-신의주-서울-부산 한반도 종단 고속철 추진(2018.10, 랴오닝 일대일로종합시험구 계획)

- 항공, 해운 노선 다변화
 - 북중 항공 노선 증편 및 확대
 - 베이징-평양 증편, 선양~평양 증편(2019.4)
 - 따렌~평양 신설(2019.7)
 - 산둥 옌타이-남포 노선 MOU 체결(2019.3)
 - 따렌~남포, 옌타이~남포 독점운영권 중국 해운사에 부여
- 문화, 정책 등 협력 강화
 - 전국 최초 평양 공자학당 설립 MOU(2019.9), HSK센터 평양 개소(2019.5)
 - 평양예술단 베이징 공연 재개(2019.10)
 - 라오닝-평안북도 협의(2019.11)
 - 인적·무역 왕래 지속, 농업 교류협력, 민생영역 교류, 적극적 관광협력 협의
 - 전염병 예방 통제 교류협력 메커니즘 합의서 체결(단둥시-신의주시)
 - 정부 차원 대북 개혁개방 모델 프로그램 전수 예상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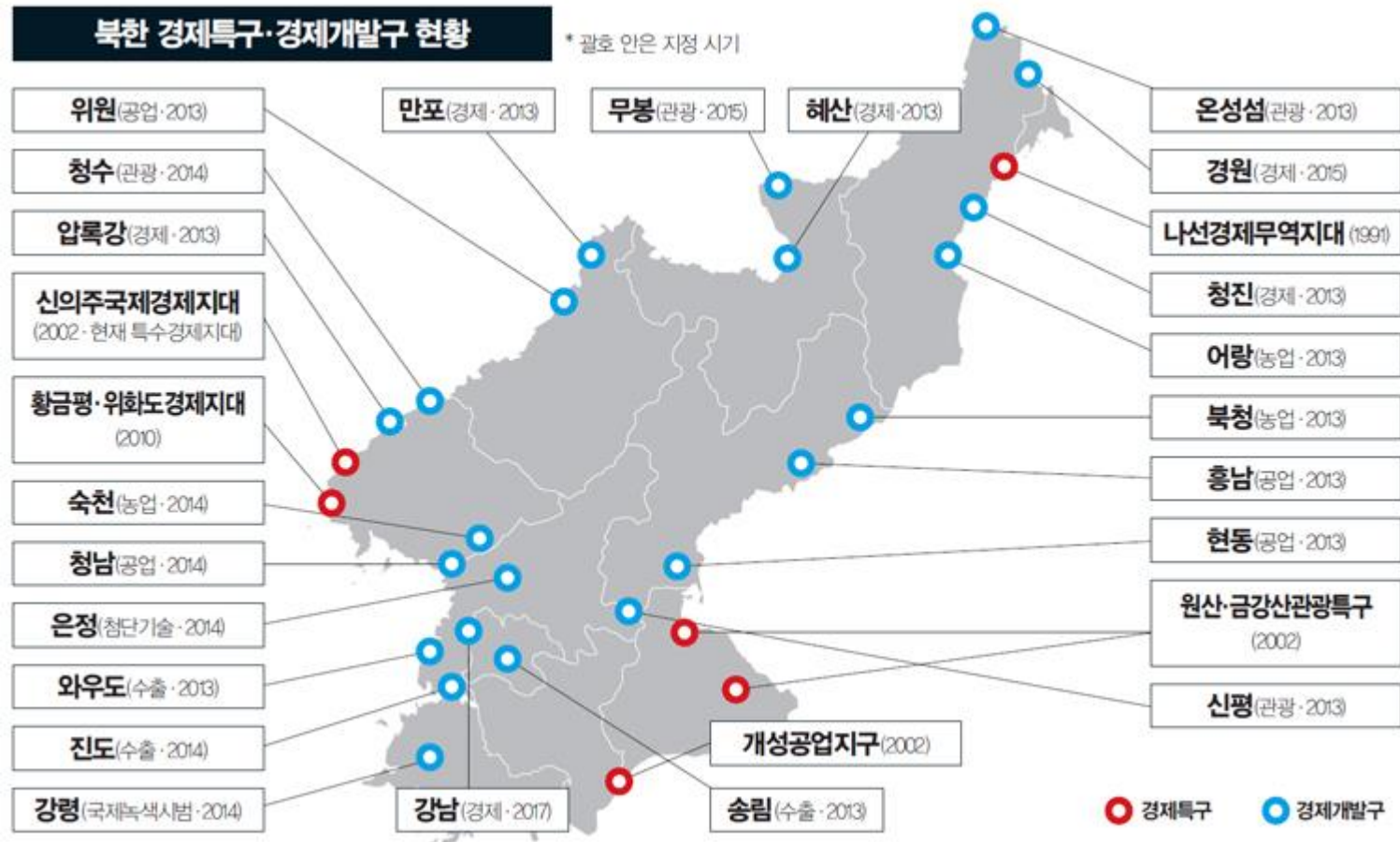
- 01. 북한의 신 단계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 02. 대북교류협력 주체의 다원화
- 03. 대북교류협력의 접경지역 편중 탈피

- 북한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2018년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은 북한의 ‘개혁개방’ 선언
 -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 베트남의 1986년 도이모이에 비견
- 북한의 핵무력 완성이 개혁개방에 갖는 의미
 - 미국은 북한의 핵 카드를 받을 가능성: 핵 위협 제거 vs. 중국 견제
 - 중국의 전면적인 북한 흡착 준비: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수 있을까
- 한국의 새로운 대북 전략 수립 필요
 - 남북경협 차원이 아니라 연방제 논의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한반도 전략 제시 필요
 - 한반도신경제구상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구체화
 - UN제재하 남북경협 전략의 돌파구 방법 마련

- 중국의 중앙-지방-민간의 입체적 대응
 - 중앙은 UN제재에 대한 호응
 - 지방은 UN제재 회피: 랴오닝-평북 협력, 개별 관광 허용
 - 민간은 적극 활용: 변경 무역 활성화
- 우리나라의 교류협력의 정부 일변도 탈피
 - 정경분리 원칙의 관철
 -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무대 등장
 - 한상네트워크, 북한 연고기업 남북교류 지원 등

- 중국의 대북 전면 흡착 전략은 경제협력지점의 남하를 의미
 - 북중 접경 지역 위주에서 남쪽으로 진출할 가능성 농후
 - 동북3성의 경제활력 한계도 내부 요인
- 북한의 경제개발구 분포에 유의해야 함
 - 북중접경 1/3, 서해안 1/3, 동해안 1/3
 - 서해안 핵심경제지역인 남포, 평양이 중국의 집중 타깃: 3개 수출가공구 집중
 - 경제개발구는 지방정부의 남북경협 참여의 고리
- 한국의 남북경협의 북진 필요
 - 개성공단, 금강산 편중 타파 필요
 - 해로를 이용한 뽕뽕기식 진출 전략 필요

북한 경제특구·경제 개발구 현황



출처: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http://webzine.nuac.go.kr/>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이후 경제활동의 산업입지 연구를 위한 제언

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신경제지리학적 분석(New Economic Geography Approach)을 비판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하 구상)’과 남북한 경제통합과 평화경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임
 - o 그동안 ‘구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참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제시는 미흡한 수준인바, 향후 남북 사이의 신뢰회복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 및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o 따라서 본 연구는 신경제지리학적 관점(New Economic Geography Approach)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구상’을 통한 포용 성장과 남북 경제통합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지자체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o 신경제지리학 분석(New Economic Geography Approach)은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이 ‘공간에서의 생산입지’, 즉 공간문제를 새롭게 조명한 경제학의 한 분야로 이해될 수 있음(폴 크루그만 저, 이윤 역해, 2017)
 - o 정준호(2008)는 신경제지리학이 미시적 토대에 의거한 일반균형모형의 불완전경쟁하에서 수확체증과 금전적 외부효과의 개념을 통해 경제 활동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을 시도하였다고 평가되며 비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
-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7월 7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쾰른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른바 ‘신(新)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힌 이후 구체화된 대선 공약중 하나임
 - o ‘구상’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통해 한반도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나아가 동북아와의 연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동북아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비전을 담고 있음(이현주 외, 2018)

-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제간 융복합 연구와 복수의 기관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o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학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의 학문분야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역할을 담당할 각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 남북한과 해외사례의 비교

(1) 공간에서의 산업입지로 이해하는 남북한의 경제구조 변화

-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신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산업입지를 포함한 남북한 경제구조를 비교함으로써 2년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
- o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한의 경제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는 김정은시대의 시장화 개혁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본 연구는 신경제지리학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활동에 대한 공간적 분포, 즉 ‘공간에서의 생산입지’에 집중하는 것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임
-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북한 산업의 실태와 산업정책, 산업구조, 남북한 산업 경쟁력 및 전후방 연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통일 이후 한반도의 산업구조와 유망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업데이트할 것임

(2) 동서독 통일과 경제통합이후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통합의 효과를 신경제지리학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함
- 선행연구들은 동·서독의 급진적인 경제통합은 정치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동서독의 급진적인 화폐·경제 통합은 결과적으로 통일 초기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서독의 경제가 오히려 구동독 지역의 경제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많은 편임
- 따라서 본 연구는 동서독 통일의 거시경제 통합과정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경제협력과 산업입지의 재편 과정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남북한의 합리적인 산업

입지 결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되며, 2차년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3) 경제통합과 산업입지의 변화: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경제통합의 제반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산업입지의 국제적 변화가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는바, 경제통합과 산업입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이런 연구는 Krugman(1991) 등이 주장한 신경제지리학 이론에서 출발함
 - o 기존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의 지리적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하나, 경제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요소와 경제활동의 국제적 이동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신경제지리학이론에서 강조되는 경제통합으로 인한 산업의 지리적 집중에 대해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o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남북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이 더욱 빠르게 진척된다면,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이 산업을 점차 일부 지역에 집중시키는 결과와 유사해질 수 있음

□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남북한 경제통합: 중심-주변 모형의 재해석

- 폴 크루그만은 국가 사이의 경제활동을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간을 무시하는 전통 국제경제학을 비판, 또한 공간에서의 경제활동의 집중과 이에 따른 중심과 주변의 현상을 보편적이라고 주장(폴 크루그만 저, 이윤 역해, 2017)
 - o 크루그만(1991)은 집중이 발생하는 보다 큰 지역 규모로서 미국의 제조업 벨트의 사례를 소개하고 집중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수요’, ‘공급’ 및 이를 연계하는 ‘교통비’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 그리고 집중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역사와 우연의 역할에 대해 설명

(1)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입지의 재편

-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입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이후 북한의 산업입지 결정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임
 - o 신경제지리학 모형은 어떠한 경우 경제활동의 집중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다소 논란이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집중이 발생하면 경로 의존성에 의하여 지속되는 현상도 설명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신경제지리학 접근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된 한국 산업입지의 폐

해를 극복하고 북한의 산업단지 조성에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임

- o 북한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한국 산업 및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신경경제지리학 분석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임

(2) 남북한 경제통합과 교통비용(transportation cost)

- 남북한은 경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통망 체계 건설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신경경제지리학 이론은 교통망 체계 확보에 따른 교통비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이해상충을 조절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
- o 예를 들어 ‘구상’에서 제시하는 3대 경제벨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경우, 교통망 건설이 전체 한반도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경제활동의 집중이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기존의 경제학 모형들은 국가 및 지역간 거리나 교통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재화 및 생산요소의 이동이 교통수단의 이용 등의 제약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비현실적임
- o 그러나 크루그만 등이 주장하는 신경경제지리학 이론은 경제활동에서 교통비용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어 현실 경제에 대한 설명력이 매우 높음
- o 경제활동이 공간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 차별화된 교통비용이 중요한 경제적 고려 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신경경제지리학 이론은 교통비용에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가 비용 하락을 통해 경제활동의 집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3) 남북한 경제통합과 경로의존성의 비판적 수용: 역사 vs. 기대

- 크루그만은 1991년 그의 저서에서 생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그로 인해 생산은 제한된 수의 입지에 집중하며 교통비용으로 인해 수요가 크거나 요소 공급이 편리한 곳에 입지를 선택하는데, 일단 자리 잡은 산업의 집중은 스스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 o 이런 역사적 우연 혹은 경로의존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실제 현실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현상이기도 함
- o 이런 현상은 핸드폰 구매시 소비자가 기존의 제품을 고수하는 경향과 한국에서 생산활동이 집중된 영남과 그렇지 않은 호남의 경제적 격차에서도 발견됨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크루그만의 주장은 역사적 우연에 의해 미국의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으며 스스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어 상

당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o 이에 대해 크루그만은 ‘자기완결적 예언’의 가능성을 도입하여 초기의 우위를 넘어서 수 있는 요인 3가지를 제시하고 현실적인 경제학 모형 분석을 시도함
- o 요인들은 첫째,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이주할 수 있는 속도가 미래 임금 격차 할인 비율에 비하여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한 지역의 미래 우위가 다른 지역의 현재 우위보다 더욱 중요해야 하고, 둘째, 인구 분포의 미래 변동이 실질임금 격차를 재빨리 변화시킬 만큼 수확체증이 충분히 강해야 하고, 셋째, 시발점이 지나치게 불균등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3가지임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공간적 확장성: 남북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교류를 중심으로

(1)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경제가 작용하는 적절한 단위는?: 국가 vs. 지역

- 신경제지리학 이론은 국가 또는 국가 내 행정구역이 규모의 경제 또는 외부경제가 작용하는 적절한 단위는 아니라고 주장함
 - o 왜냐하면 지역화는 한 도시 정도의 작은 규모에서도 가능하며, 중심-주변 모형에서 생산활동의 집종을 유발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 역시 사실상 한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Krugman, 1991)
 - o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 최대의 중심은 독일 전체가 아니라 독일 서쪽의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 주, 벨기에, 네덜란드의 남부지방이 포함됨. 이런 중심지역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도시들 주변에서도 형성되어 있음
- 따라서 크루그만은 외부경제가 국가적 규모에 적용된다며 국가를 경제적 단위로 간주하려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함
 - o 왜냐하면 외부경제가 국가의 정책에 의하여 가능해지는 것이지 해당 국가의 지역으로서의 고유한 경제적 중요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나아가서 작은 국가나 일부 지역도 생산의 지리적 구조에 따라 중심이 될 수 있는데, ‘구상’의 3대 경제벨트 혹은 ‘하나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o 따라서 본 연구는 ‘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3대 경제벨트도 경제활동의 지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국가나 행정구역 단위를 뛰어넘어 생산과 경제의 중심지역이 될 수도 있음을 규명할 예정

(2) 산업의 지역화 원천과 사례: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 산업의 지역화 현상에 대한 분석은 이미 1920년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 주장에서 시작되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화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o 첫째, 한 산업내 여러 기업들을 동일한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산업의 중심은 Specialized Skills를 갖는 노동자에 대한 통합시장(pooled market)을 가능하게 하며, 이런 통합시장은 노동자와 기업에게 모두 이익임
 - o 둘째, 하나의 산업 중심지는 한 산업에 특수한 비교역 투입재(non-traded inputs)를 보다 다양하고 저렴하게 제공함
 - o 셋째, 정보는 먼 거리보다는 지역에 보다 쉽게 흐르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 중심은 Technological Spillover를 초래함
- 신경제지리학 이론은 지역화 원천 3가지를 노동시장 pooling, 중간 투입물, Technological Spillover로 정의하면서 미국 등 일부 지역의 경험적 사례들을 분석, 특히 첨단기술 클러스터, 서비스업이 주요 분석 대상이었음
 - o 본 연구는 신경제지리학 이론에서 제기하는 지역화의 3가지 원천을 활용하여 한반도 및 남북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구상’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3)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충남의 환황해 이니셔티브’의 공간적 확장성

- ‘구상’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신북방 및 신남방정책의 공간적 확장성을 신경제지리학의 관점에서 분석
 - o 특히 충남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 ‘환황해 이니셔티브’가 공간적 확장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관련 전략을 제시함
- 실제로 충남도의 ‘환황해 이니셔티브’ 전략은 국가 단위를 뛰어 넘는 경제, 산업적 공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신경제지리학 분석 대상으로 적합함
 - o 그동안 충남은 지위의 모호함, 대외교역 거점의 미비, 남북 경험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구상’의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았음(홍원표, 2018)

3. 결과 활용방안

-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구상’에 대한 신경경제지리학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학문적, 사회적, 정책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o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등재지(후보) 및 세계 유명 학술지 게재도 가능할 것임

- 본 연구는 ‘구상’의 실현에 따른 지역,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현실적인 영향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임.
 - o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신경경제지리학 관점에서 제시하는 중심-주변 모형 등은 보다 현실적인 맥락에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경제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학술적인 가치 이외에도 국가 차원의 비전 제시와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o 본 연구는 ‘구상’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경제통합과 한반도 중심의 경제활동의 공간적 변화과정을 추적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동 분야에 있어서의 전략 및 대안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주제의 포괄적 이해와 차세대 사회과학 연구자 육성에 기여
 - o 본 연구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리경제학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간 융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o 따라서 각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포럼과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본 연구는 동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 o 본 연구의 결과는 신경경제지리학과 관련된 경제학과 지리학 교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한다면 후속 연구자들 육성에 활용될 수 있음
 - o 특히 이를 통해 동 교과목의 강의 교재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학원 및 대학 교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 지급(地級) 도시를 중심으로 -

김상욱*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1. 행복지수의 구조
2.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
3. 자료

IV. 도시행복지수의 비교

1. 행복지수의 추계 결과
2.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I. 서론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행복경제학(happiness economics)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행복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은 인간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사회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하고 있으며 양적인 성장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에게 행복한가 또는 타인에게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하거나 받게 되면 순간 당황하게 된다. 경제

*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jinxiangyu@pcu.ac.kr

발전은 필연적으로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많은 사람들은 농촌지역으로부터 도시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며 이는 도시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경제학에서도 역시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적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동안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에서 GDP는 발전의 성과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 한 국가나 지역 또는 도시의 경제규모를 양적으로 표현하기에 GDP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들은 GDP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매년 GDP 성장률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한 국가나 도시의 경제가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발전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GDP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통해 GDP 성장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이미 GDP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GDP가 아닌 다른 지표로서 경제발전이나 도시발전의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들은 여러 측면에서 시도 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행복지수(happiness index)이다. 행복지수는 행복을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지표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즉 GDP 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욱 높은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보게 되면 이전의 논리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행복과 소득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실증분석이 진행되었는데 Easterlin(1974)의 연구는 소득수준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아무리 소득이 증가하여도 오히려 행복의 수준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Easterlin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인간의 행복 수준도 당연히 높아진다. 그러나 소득이 무한정으로 높아진다고 해서 인간의 행복 수준도 무한대로 높아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발전의 성과를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도시발전은 도시의 1인당 GDP에 의해서 평가되고 비교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행복의 관점에서 도시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지수(happiness index)를 이용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주관적인 행복을 객관적인 비교를 위한 지표로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해 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추계하고 비교해 보고자 한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개혁개방을 통해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중국화된 시장경제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역시 도시화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들 도시문제 중에서 이론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는 바로 최적도시규모(optimal urban scale)이다. 도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대도시병

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도시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중국의 최적도시규모에 대해서 이미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최적도시규모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최적도시규모이론의 발전에 또 다른 이론적인 발전을 도모해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도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대 도시의 출현에 대해 적절한 도시규모를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정책적인 시사점도 도출 할 수 있다.

II. 선행 연구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는 경제발전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되어 지고 있는 GDP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 특히 GDP는 양적인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는 유용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의 추구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용되어 온 경제지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³⁾. Osberg & Sharpe(2002)는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양적 지표만으로는 경제적 행복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분배나 경제안정 등의 질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Osberg & Sharpe(2002)는 경제행복지수를 제시하였으며 경제행복지수는 소비부문, 부(wealth)부문, 평등부문 그리고 안정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국가 간 행복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OECD(2006, 2011)의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과 BLI(Better Life Index)가 있다. NIW는 2006년 OECD가 유럽연합회 집행위원회 산하 JRC(Joint Research Centre)와 함께 개최한 삶의 질과 사회진보 측정(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에서 제안한 것이다. NIW는 캐나다의 복지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를 기초로 하는 지표로서 화폐지표와 비화폐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화폐지표에는 경제적 자원 및 연관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화폐지표에는 사회적 요인(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및 환경, 주관적 생활만족도(행복)를 포함하고 있다. OECD는 NIW를 기반으로 더욱 향상된 지표를

3)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간개발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비교하고 있음. 인간개발지수는 각국의 수명, 문자 해독률, 취학률, 1인당 GNP 등을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수화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HDI는 GDP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던 한 국가의 삶의 질 수준을 사회적 발전 수준(지식) 및 행복 관련 지표(평균수명)들로 보정하여 측정한 지표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개발하기 위해 GDP보다 사회적 후생(social well-being)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기 위해 스티글리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OECD(2011)는 Stiglitz, Sen, and Fitoussi(2009)를 바탕으로 11개 범주, 2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BLI(Better Life Index)를 공개하였다. BLI는 물질적 생활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과 삶의 질(Quality of life)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는 국민들의 소비 가능성과 소유 재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반면, 후자는 국민들의 금전 이외의 속성의 집합으로 삶의 기회를 형성하고 있다. 물질적 생활 조건에는 소득과 부, 직업 및 주거가 포함되며 삶의 질에는 건강, 일과 개인 생활 간 균형, 교육, 커뮤니티, 정부의 운영 방식, 환경, 치안 및 전반적 인생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포함되어 있다. BLI의 특징은 거시 지표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나타내는 미시 지표, 평균치 외에 분포 또는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는 물론 주관적 측면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은 OECD(2006, 2011)의 NIW(National Index of Well-being)와 BLI(Better Life Index)에 기반하여 행복지수의 추계를 시도 하고 있다⁴⁾.

국내의 연구기관들도 행복지수에 대한 추계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OECD(2006, 2011)의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경제행복지수는 소비부문, 소득부문, 분배부문 그리고 안정부문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득부문에는 근로 소득 이외에도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2011)의 경제적 행복지수(Economic Happiness Index)는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그리고 전반적 행복감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내찬(2012)의 연구에서는 OECD의 BLI 지표 중 12개를 선별하고 경제적 안정, 정부에 대한 신뢰, 외부인에 대한 관용과 성차별 등 사회자본 관련 지표와 지니계수, 빈곤율 등, 부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추가되었으며, 자연 환경적 요인으로 지속가능성을 포함 시키고 있다. 남주하·김상봉(2012)은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경제행복지수를 기반으로 소비부문, 미래성장 및 부의 스톡 부문, 소득부문 그리고 경제적 안정 부문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제행복지수를 설계하였으며, 하위 지표도 삼성경제연구소(2010)의 9개에서 24개로 확장하고 있다. 그 중 경제적 안정 부문이 13개의 하위 지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남주하·김상봉(2012)의 경제행복지수에서는 경제적 안정

4) 영국의 ONS(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는 객관적인 삶의 질 측정을 보완하고자 주관적인 삶의 질(well-being)을 측정하고 있음. 독일은 Commission of Inquiry(2013)에서 삶의 질에 대한 통합 지수를 개발하고 있음. 이탈리아는 BES(Benessere Equo e Sostenibile, 2012)를 중심으로 equitable and sustainable well-being 측정을 위한 체계적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2010년 미국은 Key National Indicators Act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미국시민들에게 미국과 그들의 지역의 삶의 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Key National Indicator System(KNIS)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KNIS는 National Academy of Sciences(NAS)에서 주도함. 일본의 행복도 지표(2011)는 경제사회 상황, 심신의 건강, 관계 세 가지 측면에서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국가미래연구원, 2013).

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2013)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민행복지수(National Happiness Index)를 설계하고 있다. 국민행복지수는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의 3개 대항목,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된다⁵⁾. 국가미래연구원(201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민행복지수와 GDP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는 0.113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고 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이전 시기에는 질적 발전 보다는 양적 성장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 서면서 점차적으로 단순한 양적인 성장이 아닌 국민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李剛·王斌·刘筱慧(2015)는 중국을 대상으로 국가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李剛·王斌·刘筱慧(2015)의 국가행복지수는 생활의 질 지수, 사회공평 지수, 사회진보 지수, 사회만족도 지수, 환경만족도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삶의 질, 공평, 환경, 만족도 등이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진보가 하위 지수로 설계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Kim & Li(2018)는 중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를 설계하고 있다. Kim & Li(2018)는 OECD(2011)의 BLI에서 중국의 지역에 적합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환경위생 네 가지 지표로 선별해서 행복지수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복지는 소득, 취업 기회, 사회보장률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활건강은 병상 수, 의사 수, 지방재정 중 의료 위생지출 비중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기회는 대학교 입학 기회, 도서관 소장 도서 수, 지방재정 중 교육지출을 포함하고 있고 환경위생은 녹지 정도, 쓰레기 처리율과 오수 처리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OECD(2011)의 BLI에서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율과 독해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Kim & Li(2018)에서는 대학교 입학 기회, 도서관 소장 도서 수, 지방재정 중 교육지출을 이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Kim & Li(2018)의 행복지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 기회와 교육지출은 지역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 비교에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관 소장 도서 수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하위 지표이다. OECD(2011)의 BLI에서의 환경 지표는 공기오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Kim & Li(2018)의 행복지수에서의 환경위생 지표는 녹지, 쓰레기, 오수 세 가지 측면에서 환경과 위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 역시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보다도 수질 오염이 더욱 심각하기 때

5)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에는 1인당 소비지출, 1인당 교양 및 오락비지출, 1인당 정부부채, 1인당 자본소득, 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1인당 가계부채가 포함된다. 삶의 질에는 고용, 건강, 민간교육비 지출, 환경, 주거, 문화시설이 포함된다.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정에는 중산층 비중, 물가,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 및 재해 안전, 식품안전, 노후 안정이 포함된다(국가미래연구원, 2013).

문이다. 특히 대기오염은 지역별로 구분이 힘들지만 녹지, 쓰레기, 오수는 지역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는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로 응용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되며 이는 지표의 구성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자료는 지역의 자료보다 더욱 이용 가능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행복이 가지는 정책적인 의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陈志霞(2012)는 중국의 도시별 행복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행복지수를 구축하였다. 陈志霞(2012)의 행복지수는 도시발전지수, 도시 관리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 사회적 행복감의 다섯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발전지수는 도시 GDP, 취업률, 도시 주민 평균 거주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시 주민의 평균 거주 면적은 중국의 도시 주민의 현실적인 행복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하위 지표가 된다. OECD(2011)의 BLI에서는 주거를 1인당 방의 개수를 이용하고 있지만 도시 가구 당 평균 가족 수가 3-4인 경우에는 방의 개수보다는 평균 거주 면적이 더욱 현실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陈志霞(2012)의 행복지수는 객관적 지수와 주관적 행복감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행복감이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중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행복지수의 추계 결과는 제시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罗建文·赵嫦娥(2012)는 陈志霞(2012)에서 제시되지 못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객관적 지표에 6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주관적 지표에 4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罗建文·赵嫦娥(2012)가 陈志霞(2012)보다는 가중치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분석결과는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熊彩云·孟荣钊·史亚峰(2014)와 赵静·靳共元·张晓林(2014)은 중국의 농촌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연구하고 있다. 熊彩云·孟荣钊·史亚峰(2014)은 행복지수의 만점을 1.0으로 하고 0.2를 하나의 구간으로 5개 구간을 구분하여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접적인 주관적 평가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赵静·靳共元·张晓林(2014)의 행복지수의 1급 지표는 경제와 사회 두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 영역의 2급 지표는 농촌주민소득지수, 농촌주민소비지수, 농촌경제구조조정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 영역의 2급 지표는 농촌인문환경지수, 농촌자연환경지수, 정부신용수준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수들은 모두 직접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자료를 이용한다.

김상욱(2019)은 Kim & Li(2018)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를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로 수정하여 중국의 34개 도시의 행복지수를 추계하고 비교하고 있다. 특히 김상욱(2019)은 罗建文·赵嫦娥(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 지표의 60% 가중치와 주관적 지표의 40% 가중치를 이용하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결합하는 도

시행복지수를 구축하고 있다. 김상욱(2019)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의 도시별 행복지수를 추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34개 도시의 행복지수만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도시별 행복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구축하고 지급(地級) 도시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최적도시규모(optimal urban scale)를 통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⁶⁾. 최적도시규모는 도시의 양적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과제 중의 하나이다. 현실적으로는 1천 만 명 이상의 도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의 성장이 과연 지속적인 팽창이 가능한지 아니면 도시규모의 관리가 필요한지는 중요한 도시정책의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최적도시규모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여러 측면에서 시도 되어 왔고 지금도 시도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주민의 행복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최적도시규모의 문제를 고민해 본다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Ⅲ. 연구 방법

1. 행복지수의 구조

행복지수의 기본적인 구조는 Kim & Li(2018)와 김상욱(2019)의 행복지수(happiness index)를 이용한다. 그러나 Kim & Li(2018)의 행복지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이기 때문에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에서의 적절한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상욱(2019)의 행복지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역시 자료의 일치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 Kim & Li(2018)의 행복지수에서는 행복지수의 하위 지표로 경제복지(economic welfare), 생활건강(health life), 교육기회(education opportunity) 그리고 환경위생(environment sanitation)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 4개의 하위 지표를 이용한다. 그러나 2급 하위 지표에서는 도시별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

6) 최근 최적도시규모를 행복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다수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더욱 행복한가 아니면 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더욱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Gerdtham, U. & Johannesson, M.(2001), Graham, C. & Felton, A.(2006), John, H.(2006)의 연구에서는 소도시 주민의 행복 정도가 대도시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Berry, B. J. L. & Okulicz-Kozaryn, A.(2009)는 대도시 주민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활건강 영역에서의 의료비 지출 항목을 의료 기관으로 대체한다. 왜냐하면 Kim & Li(2018)의 연구는 지역을 분석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2급 지표의 분석단위를 도시로 전환하게 되면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1급 지표에서는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환경위생 네 지표를 그대로 활용 가능하지만 이들 1급 지표를 구성하는 2급 지표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동일한 문제가 도시나 지역에서 국가 단위로 상향 조정될 때 역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계점은 연구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의 <표 1> 과 같은 행복지수의 지표가 가능해진다. 각각의 1급 하위 지표 아래에는 3개의 2급 하위 지표를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제복지에는 소득, 취업기회 그리고 사회보장률이 포함된다. 이들 2급 지표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세부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1> 행복지수의 지표 구조

1급 하위 지표	2급 하위 지표	세부 내용
경제복지 economic welfare B1	C1 소득	도시 직공(職工) 평균임금
	C2 취업기회	도시취업자수/도시인구
	C3 사회보장률	(양로보험가입자수+의료보험가입자수+실업보험가입자수)/도시인구
생활건강 health life B2	C4 의료기관 수	도시 인구 1만 명 당 의료기관 수
	C5 병상 수	도시 인구 1만 명 당 병상 수
	C6 의사 수	도시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
교육기회 education opportunity B3	C7 대학재학생 수	도시 인구 1만 명 당 대학재학생 수
	C8 공공도서관 장서 수	도시 인구 1만 명 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C9 교육재정지출	지방재정 중 교육재정지출
환경위생 environment sanitation B4	C10 녹지율	녹지율
	C11 쓰레기무공해처리율	쓰레기무공해처리율
	C12 생활오수처리율	생활오수처리율

자료: 김상욱(2019)

<표1>은 OECD(2011)의 BLI와 Kim & Li(2018)를 기반으로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를 설계하고 있다. 본 연구는 Kim & Li(2018)과 김상욱(2019)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에 적합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환경위생 네 가지 지표를 선별해서 행복지수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복지에는 소득, 취업기회, 사회보장률을 포함하고 있으나 생활건강은 병상 수, 의사 수, 지방재정 중 의료위생지출 비중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기회는 대학교 입학 기회, 도서관 소장 도서 수, 지방재정 중 교육지출을 포함하고 있고 환경위생은 녹지 정도, 쓰레기 처리율과 오수처리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OECD(2011)의 BLI에서 교육은 고등학교 졸업율과 독해력을 이용하고 있는데 Kim & Li(2018)에서는 대학교 입학 기회, 도서관 소장 도서 수, 지방재정 중 교육지출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입학 기회를 도시 인구 1만 명 당 대학재학생 수로 대체한다. 왜냐하면 Kim & Li(2018)의 행복지수와 달리 본 연구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인구 1만 명 당 대학재학생 수와 지방재정 중 교육지출이 도시별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도시 비교에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서관 소장 도서 수는 학생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하위 지표이다. OECD(2011)의 BLI에서의 환경 지표는 공기오염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Kim & Li(2018)와 김상욱(2019)과 마찬가지로 행복지수에서의 환경위생 지표는 녹지, 쓰레기, 오수 세 가지 측면에서 환경과 위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 역시 중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보다도 수질 오염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오염은 도시별로 구분이 힘들지만 녹지, 쓰레기, 오수는 도시별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지수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2.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

선행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행복지수의 측정에는 반드시 하위 지표에 대한 가중치의 설정과 일치성의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가중치의 설정은 Kim & Li(2018)과 김상욱(2019)에서 사용하고 있는 AHP방법을 이용한다. Kim & Li(2018)과 김상욱(2019)은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의 일치성을 검증한다. 이는 지표의 설계가 가지는 주관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도시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의 설계에 더욱 도움이 된다. B1을 경제복지, B2를 생활건강, B3을 교육기회, B4를 환경위생으로 설정한 후 우선 A 행렬을 이용하여 각 열의 합을 구한다. 그리고 열의 합을 이용하여 A 행렬의 모든 요소를 나누어 주면 A_{norm} 행렬을 얻게 된다. A_{norm} 행렬의 매 행의 평균값을 구하면 1급 지표 각각의 가중치 W_{1-4} 를 구할 수 있다. 1급 지표 각각의 가중치 W_{1-4} 를 구한 다음 단계는 이러한 가중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일치성 검증이다. 일치성 검증은 우선 λ_{max} 를 구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구하고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한다. 계산된 CR의 값이 0.1보다 작으면 행렬 A는 일치성 검증을 통과하게 되며, 만약 CR의 값이 0.1보다 크게 되면 일치성 검증을 통과할 수 없으며 적절한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송근원·이영, 2013). <표 2>의 A matrix와 A_{norm} matrix를 기초로 1급 지표의 가중치를 계산하면 B1(경제복지)은 0.544, B2(생활건강)는 0.244, B3(교육기회)은 0.136, B4(환경위생)는 0.076이다. 즉 경제복지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가지며 두 번째는 생활건강 세 번째는 교육기회 그리고 환

경위생은 가장 낮은 가중치를 가진다. 1급 하위 지표 가중치의 일치성 검증을 위한 λ_{\max} 는 2.391이다. 무작위지수(Random Index) RI는 4×4행렬인 경우에 0.890이다(丁以中, 2003). RI와 CI를 이용하여 CR을 계산하면 -0.603로 0.1보다 작은 값이다. 따라서 1급 하위 지표의 가중치는 일치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표 2〉 A matrix and A_{norm} matrix

	경제 복지 B1	생활 건강 B2	교육 기회 B3	환경 위생 B4		경제 복지 B1	생활 건강 B2	교육 기회 B3	환경 위생 B4
경제복지 B1	1.00	3.00	5.00	5.00	경제복지 B1	0.58	0.64	0.54	0.42
생활건강 B2	0.33	1.00	3.00	3.00	생활건강 B2	0.19	0.21	0.32	0.25
교육기회 B3	0.20	0.33	1.00	3.00	교육기회 B3	0.12	0.07	0.11	0.25
환경위생 B4	0.20	0.33	0.33	1.00	환경위생 B4	0.12	0.07	0.04	0.08

(a) A matrix

(b) A_{norm} matrix

〈표 3〉 2급 하위 지표의 일치성 검증 결과

1급 하위지표 가중치		2급 하위지표 가중치		A weight	λ_{\max}	CI	RI	CR
B1	0.544	C1	0.634	0.345	3.033	0.017	0.520	0.032
		C2	0.260	0.141				
		C3	0.106	0.058				
B2	0.244	C4	0.260	0.063	3.033	0.017	0.520	0.032
		C5	0.634	0.155				
		C6	0.106	0.026				
B3	0.136	C7	0.714	0.097	3.000	0.000	0.520	0.000
		C8	0.143	0.019				
		C9	0.143	0.019				
B4	0.076	C10	0.106	0.008	3.033	0.017	0.520	0.032
		C11	0.206	0.020				
		C12	0.634	0.048				

주: ① $CI = \frac{\lambda_{\max} - n}{n - 1}$, $CR = \frac{CI}{RI}$, $\lambda_{\max} = \sum_{i=1}^n \frac{1}{n} \left(\frac{T_i}{W_i} \right)$, $T_i = \sum_{j=1}^n a_{ij} W_j$

② A weight 는 1급 하위지표의 가중치와 2급 하위지표의 가중치를 곱한 값임.

1급 하위 지표의 일치성 검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2급 하위 지표의 일치성 검증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일치성 검증 결과에 의하면 B1(C1, C2, C3), B2(C4, C5, C6), B3(C7, C8, C9), B4(C10, C11, C12)의 하위지표의 CR 값이 모두 0.1보다 작기 때문에 일치성 검증을 통과하였다. 일치성 검증을 통과하였다는 의미는 2급 지표를 1급 지표의 하위 지표로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3〉에서 주의할 점은 A weight이다. 이는 1급 하위지표의 가중치와 2급 하위지표의 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즉 C1의 A weight는

B1의 가중치 0.544에 C1의 가중치 0.634를 곱한 값으로 0.345가 된다. 그리고 C1-C12의 A weight를 합하면 1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행복지수를 계산할 때는 A weight를 이용하게 된다.

<표 1>의 지표와 <표 3>의 A weight의 가중치를 이용한 표준화는 Kim & Li(2018)과 김상욱(2019)의 방법을 이용한다. 식(1)은 표준화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c_{i,j} = \frac{x_{i,j} - x_{i,\min}}{x_{i,\max} - x_{i,\min}} \quad \text{식(1)}$$

식(2)에서 i 는 C1-C12를 나타내고 j 는 개별 도시를 나타낸다. 그리고 $c_{i,j}$ 는 개별 도시의 C1-C12의 표준화된 값을 의미하며, $x_{i,j}$ 는 C1-C12의 기초 자료이고, $x_{i,\max}$ 는 C1-C12 자료의 최댓값을 나타내며 $x_{i,\min}$ 는 C1-C12 자료의 최솟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c_{i,j}$ 는 C1-C12의 표준화된 값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3. 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도시별 행복지수를 추계하여 비교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별 자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시할구(市轄區, district under city)이고 또 하나는 전시(全市, total city)이다. 시할구는 행정구역으로 보게 되면 구(區)를 포함하며 전시는 구 이외에 현(縣)을 포함한다. 즉 구와 현을 합하여 전시가 되는 것이다. 엄격하게 보면 도시는 구 만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구와 현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도시로 보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의미가 있으며 특히 중국의 현실을 반영할 때 구와 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더욱 도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시(全市)의 자료를 이용한다.

중국의 도시를 구분할 때 또 하나의 기준은 지급(地級) 도시와 현급(縣級) 도시가 있다. 지급 도시는 특정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이며, 현급 도시는 농촌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도시는 지급 도시가 더욱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통계연감에서도 지급 도시를 기준으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급 도시가 분석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에는 모두 279개의 지급 도시가 있다. 문제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C1-C12 12개의 2급 하위 지표의 자료가 모든 도시에서 제공되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녹지율(C10), 쓰레기무공해처리율(C11)과 생활오수처리율(C12) 세 가지 지표에서 기초 자료가 부재한 도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228개의 도시를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기초 자료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상욱(2019)

에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결합하여 2012년과 2016년의 도시별 행복지수를 추계하고 있지만 34개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28개 도시의 행복지수를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규모별 행복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도시규모는 도시인구를 이용한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호적(戶籍)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적은 도시 호적과 농촌 호적으로 구분되며 이는 인구 통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호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구는 연말 호적인구(年末戶籍人口, Household Registered Population at Year-end)로 제공된다. 그러나 호적 인구는 현실적인 도시인구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호적상의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유동인구(流動人口)라 부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동인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일정 기간을 거주하게 되면 이를 상주인구(常住人口)라 부른다. 따라서 도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은 연평균인구(年平均人口, Annual Average Population)가 더욱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적인구가 아닌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연평균인구를 이용하여 도시규모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경우는 연평균인구 규모가 연말호적인구보다 더욱 크다. 예를 들면 하북성(河北省)의 보정시(保定市)의 연말호적인구는 1,199만 명인데 연평균인구는 1,203만 명으로 64만 명이 더 많다. 이 차이만큼을 상주인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장춘시(長春市), 길림시(吉林省), 통화시(通化市), 청도시(青島市)는 2017년 도시 연평균인구의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연말호적인구로 대체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기초 자료는 중국도시통계연감(中國城市統計年鑑)의 자료를 이용한다. 중국도시통계연감은 연도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자료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IV. 도시 행복지수의 비교

1 행복지수의 추계 결과

<표1>의 행복지수의 구조와 <표3>의 가중치와 식(1)의 표준화 과정을 거친 도시별 행복지수의 추계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는 지면의 제한 때문에 228개 도시의 추계 결과 중 160개 도시의 추계 결과를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행복지수의 절대 값이 가장 높은 도시는 심천시(深圳市)로 0.6872이다. 그 다음은 북경시(北京市)와 상해시(上海市)로 각각 0.6820과 0.6373이다. 이 3 도시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GDP가 매우 높은 도시들이다. 심천시의 1인당 GDP

는 184,068위안(28,318달러, 1달러=6.5위안)이고 북경시는 128,994위안(19,845달러) 그리고 상해시는 126,634위안(19,482달러)이다. 즉 도시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도시의 행복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역설(happiness paradox)에는 아직 진입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의 역설은 도시의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도시 주민의 행복 수준은 낮아 질 수 있다는 것인데 <표4>의 결과로 볼 때는 중국의 도시발전 수준은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도시의 성장 잠재력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4> 도시별 행복지수의 추계 결과(2017년)

도시 명칭	행복 지수	도시 명칭	행복 지수	도시 명칭	행복 지수	도시 명칭	행복 지수
深圳市	0.6872	湖州市	0.3104	巴彦淖尔市	0.2439	济宁市	0.2209
北京市	0.6820	镇江市	0.3060	铜陵市	0.2435	清远市	0.2195
上海市	0.6373	秦皇岛市	0.3028	大同市	0.2429	阳泉市	0.2193
南京市	0.5422	廊坊市	0.3017	乐山市	0.2426	滁州市	0.2192
乌鲁木齐市	0.5416	潍坊市	0.3006	固原市	0.2425	南平市	0.2189
杭州市	0.5332	温州市	0.2995	淮南市	0.2418	泸州市	0.2185
克拉玛依市	0.5028	石家庄市	0.2986	滨州市	0.2412	韶关市	0.2183
武汉市	0.4893	淄博市	0.2981	郴州市	0.2407	肇庆市	0.2183
苏州市	0.4832	呼伦贝尔市	0.2971	鹰潭市	0.2385	盐城市	0.2180
厦门市	0.4798	绍兴市	0.2964	临沧市	0.2375	北海市	0.2172
昆明市	0.4639	南通市	0.2955	龙岩市	0.2372	三门峡市	0.2163
济南市	0.4601	烟台市	0.2947	宣城市	0.2361	蚌埠市	0.2148
兰州市	0.4553	株洲市	0.2866	晋城市	0.2351	宁德市	0.2146
无锡市	0.4464	威海市	0.2825	沧州市	0.2343	池州市	0.2133
郑州市	0.4438	芜湖市	0.2778	泰州市	0.2323	枣庄市	0.2130
青岛市	0.4333	玉溪市	0.2727	昭通市	0.2316	咸阳市	0.2125
宁波市	0.4253	张掖市	0.2709	自贡市	0.2307	淮安市	0.2106
贵阳市	0.4186	扬州市	0.2696	柳州市	0.2305	平凉市	0.2106
银川市	0.4148	湘潭市	0.2695	宜宾市	0.2295	景德镇市	0.2082
佛山市	0.4050	台州市	0.2692	阜新市	0.2294	日照市	0.2082
大连市	0.3990	辽阳市	0.2677	泰安市	0.2291	张家界市	0.2074
西安市	0.3986	铜川市	0.2665	赤峰市	0.2277	长治市	0.2067
舟山市	0.3920	马鞍山市	0.2655	宜昌市	0.2274	临沂市	0.2065
南昌市	0.3873	丽江市	0.2636	宝鸡市	0.2273	十堰市	0.2060
常州市	0.3870	吉林市	0.2625	白银市	0.2266	焦作市	0.2058
衢州市	0.3745	石嘴山市	0.2622	新余市	0.2262	临汾市	0.2057
金华市	0.3731	金昌市	0.2617	洛阳市	0.2262	襄阳市	0.2055
嘉兴市	0.3716	本溪市	0.2614	保定市	0.2261	九江市	0.2054
合肥市	0.3707	普洱市	0.2611	连云港市	0.2259	广安市	0.2053
西宁市	0.3655	六盘水市	0.2603	萍乡市	0.2256	白山市	0.2034
乌海市	0.3649	黄山市	0.2586	宿迁市	0.2254	岳阳市	0.2033

鄂尔多斯市	0.3623	晋中市	0.2570	漳州市	0.2250	常德市	0.2033
包头市	0.3580	淮北市	0.2559	泉州市	0.2249	聊城市	0.2031
三亚市	0.3523	酒泉市	0.2532	张家口市	0.2247	乌兰察布市	0.2025
丽水市	0.3401	唐山市	0.2523	汉中市	0.2247	南充市	0.2022
长春市	0.3386	怀化市	0.2519	徐州市	0.2243	赣州市	0.2005
东营市	0.3362	雅安市	0.2513	莱芜市	0.2234	陇南市	0.2000
哈尔滨市	0.3317	广元市	0.2503	桂林市	0.2229	通化市	0.1988
福州市	0.3154	盘锦市	0.2461	朔州市	0.2227	鞍山市	0.1981
南宁市	0.3136	三明市	0.2453	承德市	0.2216	商洛市	0.1979

주의: 지면의 제한으로 228개 도시 중 160개 도시의 결과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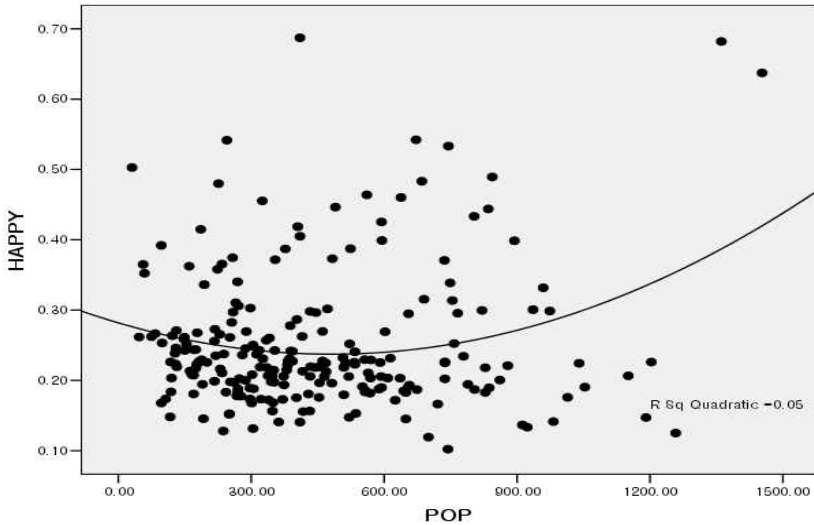
<표4>에 의하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도시는 호북성(湖北省)의 황강시(黄冈市)이다. 황강시의 2017년도 행복지수는 0.1022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와 가장 낮은 도시의 차이는 6.72배인데 이들 두 도시의 1인당 GDP의 차이는 3.23배이다. 이는 앞에서 가정하고 있는 도시경제발전 수준과 행복지수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도시경제발전의 격차보다도 행복지수의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발전을 행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추계한 행복지수를 이용하여 도시규모와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도시규모는 앞에서 밝히고 있듯이 상주인구를 포함하는 연평균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는 <그림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에서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를 추세 곡선으로 나타내면 역 U자가 아닌 U자 형태가 된다. 이는 중요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만약 역U자 형태이면 행복지수 측면에서 도시규모가 작을 때는 행복지수가 낮지만 도시규모가 성장하면서 행복지수도 함께 증가하며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서 도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때는 도시의 행복지수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복의 역설(happiness paradox)과도 연관되는 논리이다⁷⁾. 그러나 <그림1>에서처럼 U자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도시규모가 매우 작을 때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7)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최적도시규모의 존재에 대한 비판은 Easterlin, R. A.(1974)에서 시작되고 있다. Easterlin, R. A.(1974)은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반드시 증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득수준의 증가는 도시경제의 성장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를 최적 도시규모에 적용하게 되면 도시규모의 증대는 반드시 행복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Easterlin의 역설이라고도 부른다. 만약 Easterlin의 역설이 존재하게 되면 도시규모와 행복 사이에는 역U자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도시규모가 증대하면서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최저점을 지나고 나면 도시규모가 성장할수록 행복지수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는 현재의 중국의 도시발전 단계로 볼 때 여전히 성장의 잠재력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가진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는 도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며 도시발전이 계속되면서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교외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전체적인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료에 의하면 1960년 세계 평균 도시화율은 34%인데 2017년에는 55%로 상승하고 있다. 그 중 고소득 국가의 평균은 64%에서 82%로 증가하였고, 저소득 국가의 평균도 13%에서 32%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도시화율은 1960년의 70%에서 2017년에는 82%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16%에서 58%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이 2017년 기준으로 58%는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도시의 성장 잠재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표5〉는 도시의 인구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구규모가 100만 명 이하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314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인구규모가 100-2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00만 명인 도시는 0.238로 조금 상승하고 있으며, 400-600만 명인 도시는 0.250, 600-800만 명인 도시는 0.261, 800-1,0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71로 상승

하고 있다. 도시 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91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도시의 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도시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적도시규모는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더 증대하는 것이다.

〈표 5〉 도시인구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2017년 기준)

(단위: 만 명, 개)

도시인구	<100	100-200	200-400	400-600	600-800	800-1,000	> 1,000
도시 수	9	31	77	55	30	17	9
행복지수	0.314	0.236	0.238	0.250	0.261	0.271	0.291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추계하여 비교하고 있으며, 또한 행복지수와 도시규모의 관계를 통해 최적도시규모에 대해 고찰해 보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도시규모 또는 최적도시규모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최적도시규모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행복지수를 추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지급(地級) 도시 228개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추계한다. 추계 결과에 의하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도시규모를 도시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규모가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도시인구는 정책적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호적인구보다는 상주인구가 더욱 현실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호적제도는 인구가동에 있어서 영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에서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은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SOC 수요와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도시는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적인 도시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최적도시규모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역U자 가설에서의 우측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되고 있는 행복지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AHP 방법에 의한 가중치 설정과 일치성 검증 문제, 그리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의

조합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점차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도시인구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는 도시정책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도시성장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시의 행복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가미래연구원(2013), 한국의 국민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 김상욱(2019), 중국의 도시별 행복지수의 비교-34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3호, pp.69-87.
- 남주하·김상봉(2012), 「한국의 경제행복지수의 측정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pp.1-28.
- 삼성경제연구소(2010), 「경제행복도지수로 본 한국경제」, CEO Information, 제750호.
- 송근원·이영(2013), 「AHP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척도 재구성」,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29집, 제2호, pp.271-288.
-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 pp.5-40.
- 현대경제연구원(2011), 「제8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 한국경제주평,
제8호.
- 赵静·靳共元·张晓林(2014), 「基于模糊综合评价模型的山东省农村居民幸福指数研究」, 山东财政学院学报, 第1期, pp.93-99.
- 罗建文·赵嫦娥(2012), 「论居民幸福指数的评价指标体系及测算」, 湖南科技大学学报
(社会科学版), 第15卷, 第1期, pp.43-51.
- 熊彩云·孟荣钊·史亚峰(2014), 「我国农民幸福指数的实证研究」, 农业经济问题, 第12
期, pp.33-40.
- 陈志霞(2012), 「城市幸福指数及其测评指标体系」, 城市问题, 第4期, pp.9-13.
- 李刚·王斌·刘筱慧(2015), 「国民幸福指数测算方法研究」, 东北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17卷, 第4期, pp.376-383.
- 丁以中(2003), 管理科学-运用spreadsheet建模和求解. 北京: 清华大学出版社.
- Berry, B. J. L. & Okulicz-Kozaryn, A.(2009), Dissatisfaction with city life: A new
look at some old questions. *Cities*, 26(3), pp.117-124.

- Easterlin, R.(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David, R. and Reder, 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Academic Press, New York: 89-125.
- Gerdtham, U. & Johannesson, M.(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0(6), pp.553-557.
- Graham, C. & Felton, A.(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4(1), pp.107-122.
- Kim, S. W. & Li, N.(2018), Comparison of Chinese Regional Happiness Index-The Case of 31 regions.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30(3), pp.91-114.
- OECD(2011). 2010 Society at a glance. Retrieved March 2012, from <http://www.oecd.org/dataoecd/37/42/42495745.pdf>.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1), National Statistician's reflections on the National Debate on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Osberg, L. and Sharpe, A.(2002), An index of Economic Well-being for Selected OECD countr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8(3), pp.291-316.
- Oswald, A. J.(1997), Happines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Economic Journal*, 107(445), pp.1815-1831.
- Stiglitz, J. E., Sen, A., and Fitoussi, J.(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 UNDP(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 Welsch, H.(2006), Environment and happiness: Valuation of air pollution using life satisfaction data. *Ecological Economics*, 58(4), pp.801-813.
- Yongil, Jeon & Michael P. Shields.(2005), The Easterlin hypothesis in the recent experience of higher-income OECD countries: A panel-data approach.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8(1), pp.1-13.

국문초록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 지급(地級) 도시를 중심으로 -

김상욱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그리고 환경위생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고 있다. 각각의 부문에는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두 12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는 행복지수를 구축하였다. AHP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을 하였다. 2017년의 228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도 증대하는 것이다. 인구규모가 100-2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00만 명인 도시는 0.238로 조금 상승하고 있으며, 400-600만 명인 도시는 0.250, 600-800만 명인 도시는 0.261, 800-1,0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71로 상승하고 있다. 도시 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91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SOC 수요와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도시는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중국, 도시, 도시규모, 최적도시규모, 행복, 행복지수

Abstract

Comparison of Urban Scale and Happiness Index in China: The Case of Prefecture Level Cities

KIM, Sangwook*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 between urban scale and happiness index in China prefecture level cities. The happiness index consists of four category, economic welfare, health life, education opportunity and environment sanitation. Each category includes three low grade indicators, the happiness index consists of twelve low grade indicators. This paper uses AHP method, analyzes the weight and consistency test. The 228 cities results in 2017, this paper finds that the relation between urban scale and happiness index appears U-type characteristics. The urban scale more increase, the happiness index also more increase. In urban population by 1-2 million peoples, the happiness index is lowest as 0.236, in 2-4 million peoples, the happiness index is 0.238, in 4-6 million peoples, the happiness index is 0.250, in 6-8 million peoples, is 0.261, in 8-10 million peoples, is 0.271, and in above 10 million peoples, the happiness is relatively higher as 0.291. This results suggests an important implications to the urban policy. China faced to the increasing SCO demand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but this paper suggests that China urban has more growth potential.

Keywords : China, Urban, Urban Scale, Optimal Urban Scale, Happiness, Happiness Index

* Paichai University,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Professor, jinxiangyu@pcu.ac.kr